금주의 법구-〈중부경전〉
지나간 것을 좇아가지 말라.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현재도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8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3월 13일)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근대 발전 이끌었던 불교인 조명 본격화

종단협, 근대 불교 인물 홍보사업 추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격동의 근대기, 사회 발전을 이끈 불교 인물들에 대한 조명이 본격화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이하 종단협)는 4월 5일 간담회를 열고 '근대 사회 발전에 기여한 불교 인물 홍보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과 상반기 선정 인물을 발표했다.

종단협이 4월부터 추진하는 '근대 사회 발전에 기여한 불교 인물 홍보사업'은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업으로,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불교인들을 발굴 · 선양하기 위해 기획됐다.

독립 · 문화 등 5개 분야에서 인물 12명 선발해 연구·조명
상반기에 신화수 등 6명 홍보
11월 중 인물 세미나 예정도

이에 따라 종단협은 자문위원단과 연구위원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4차례 회의를 통해 △독립 △문화 △예술 △교육(청년) △여성 등 5개 분야 40명의 후보군 중 12명을 선발해 자료조사를 진행했다.

자문위원에는 종단협 사무총장 도각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 진각종 교법연구실장 수각 정사, 태고종 고시위원장 재흥 스님, 종단협 사무처장 진경 스님이 참여했다. 연구위원으로는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김경진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한금순 제주대 사학과 외래교수, 황상순 동국대 문화학술원 교수, 한동민 수원 화성박물관장, 장재진 동명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성수 불교신문 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종단협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각 6명 씩 선정된 인물들을 홍보하고 11월 중 인물을 조명하는 종합 세미나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12월까지 선정 인물들을 SNS 카드뉴스, 라디오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반기 홍보 대상 인물 6명이 발표됐다. 신화수 스님은 통도사 신평 독립만세 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했으며, 광복단 활동을 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박노영은 신화수 스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미국 유학길에 오른 뒤 하버드대학에서 첫 한국인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사회에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알렸다.

표충사서 출가한 박봉석은 불교 서지학 연구의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조선공공도서관 도서 분류표를 만든 인물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박봉석은 '한국 도서관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한다. 김상언은 제주도 최대 무장 항일운동인 무오년 법정사 항일 운동을 김연일 스님과 함께 전개했다. 승무 대중화에 매진한 한성준, 한국 최초 여성 유화 화가이자 문학가, 여성운동가인 나혜석도 선양해야 하는 불교 인물로 꼽혔다.

하반기에는 △우봉운(여성) △고유섭(문화) △김규진(예술) △이종천(교육 · 청년) △강유문(교육 · 청년) △황의돈(교육 · 청년) 등을 조사 · 홍보할 예정이다.

종단협이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근대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던 불교 인물들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한국불교가 근현대 사회 발전에 일임을 담당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종단협 사무총장 도각 스님(관음종 부원장)은 "격변기에 사회와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하셨던 불교인의 활동을 뒤돌아보고, 기억하고, 선양해 근대 한국불교가 국가 발전의 일임을 담당했던 것을 널리 알리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무처장 진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근대기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많은 불교인들이 있었지만, 많이 조명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인물 홍보사업을 통해 근대기 한국불교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인물 정리 3면〉



평화 · 생명의 燈, 서울광장 불 밝히다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생명과 평화의 봉축 장엄등이 서울광장에서 불을 밝혔다. 서울광장에 점등 된 장엄등은 5월 11일까지 약 한달간 자비광명을 서울 시민들에게 전한다. 4월 5일 봉행된 봉축점등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폭 축소된 3년간의 점등식과 달리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성대하게 진행됐다. 올해 서울광장을 장엄한 봉축등은 '화엄사 사사자(四獅子) 석탑등'으로 국보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을 원형을 본따 만든 조형등이다. 이번 석탑등은 높이가 20m에 달하며 석탑의 기둥역할을 하는 사자 네 마리의 용맹성을 그대로 살려 한지로 제작했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출범 1주년 동국대 건학위, 불교중흥 비전 선포

동국대 건학위원회 4월 7일 제3회 최고위서 공개

'동국발전 불교중흥' 비전 하에
메타버시티 등 중점 사업 발표
자문위 등 각계 네트워크 박차
4월 29일 1주년 기념식 봉행

동국대 건학위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불교중흥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4월 7일 서울 동국대 본관에서 제3회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건학위 자문위원 위촉을 비롯해 건학위 발족 1주년을 맞은 사업 보고가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2022년 산하 기관별 비전 수립으로 '동국발전 불교중흥' 비전 하의 다양한 중점 사업 추진이 결의됐다.

중점사업 첫 번째는 메타버시티 플랫폼 구축이다. 여기에는 다부처 공동기획연구비 350억이 투입된다. 메타버시티 플랫폼은 메타버스, AI, VR 등 가상현실 기술과 연계하여, 명상과 불교수행 등을 접목,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현대문명 위기를 치유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중점사업으로 건학이념 구현 도서 발간도 활발히 진행된다. 불교사전, 부처님의 생애, 동국의 빛 편찬이 진행된다. 불교사전은 건학위 총재인 자승 스님이 동국대에 기증한 〈한국불교대사전〉을 토대로 새롭게 편찬되는 사전이다. 이와 함께 〈부처님의 생애〉도 새롭게 정리한다. 〈동국의 빛〉은 동국대 동문을 조명한 책이다.

또 다른 중점사업은 등록금 걱정없는 대학이다. 동국건학장학,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내리사랑장학 등으로 자발적 기부문화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 장학제도에서 동국건학장학을 신설해 불교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네 번째 중점사업은 동국대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국내최고 기업채용 박람회 '동국 잡(JOB) 페어(FAIR)' 개최다. 동국대는 불자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유수기업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채용 박람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축제화하여 재학생들도 참여해 미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밖에 종립학교를 통합확대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8개 법인 14개 종립학교, 비종교 일반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병 대상학교를 조사하고 경쟁력을 지닌 종립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한 통합과 지원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대장경 사업'도 진행된다. 총예산 100억 원 규모로 현대적 가치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대장경을 완성하는 대작불사다. 또 동국대 일산병원에 이어 불교병원을 상징하는 제2병원 건립을 위해 화성시, 남양주시, 고양시 등을 1차 부지로 현재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다변화되는 교육환경 대응을 위한 사이버대학 설립과 법인 이하 17개 산하기관에 대한 동국총조사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건학위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도 진행됐다. 총재 자승 스님은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 민흥기 삼신화성산업㈜ 대표이사, 박동렬 세무법인화평 대표이사, 최진식 ㈜SIMPAC 회장, 조성원 ㈜조이시티 대표이사, 문선배 ㈜신화종합건설 회장 등 6명에게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하며 동국발전과 불교중흥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국대 건학위 1주년 기념식은 4월 29일 오전 11시 본관 중강당에서 열린다. 기념식에서는 건학위 경과보고, 1주년 성과보고, 건학위 공로상 시상, 동국건학장학 장학증서 수여(서울 30명, 경주 12명), 불교서적편찬위원 위촉식 등이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백만원력 결집불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아홉스님의 석 달 동안의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월선원 신축불사를 추진합니다. 봉은사의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 건립불사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함께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신축불사 모연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원 전체 불사 모연



전체 불사 : 1인 100만원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5-099939
농 협 301-0299-2142-01
국민은행 401301-04-080435
예 금 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의/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1 / 4837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상월선원 대웅전 불사 모연





구 분	수 량	동참금
상량보	1개	2억원
대들보	18개	1억원(개당)
기둥	18개	5천만원(개당)
도리	77개	2천만원(개당)
주춧돌	18개	5백만원(개당)
서까래	236개	1백만원(개당)
기타		십시일반

구 분	내 용	가족모연(금판)		개인모연(은판)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불상	삼존불(석가모니불) 및 좌대	5명	3억원	200명	100만원	500명	10만원
	삼존불(약사여래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삼존불(아미타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관세음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지장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구 분	내 용	가족모연		개인모연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탱화	후불탱화 삼세불도	10명	1억원	200명	50만원	200명	10만원
	신중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감로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봉은사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삼성동 73번지)

“종단 화합으로 결속… 찾아가는 불교로 傳法”

인터뷰 천태종 제19대 총무원장 무원 스님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3월 20일 천태종 제 19대 신임 총무원장으로 임명된 무원 스님은 4월 6일 서울 우면동 관문사서 교계기자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환경문화 조성’ ‘보살도 수행 강조’ ‘찾아가는 불교 표방’ ‘종단의 내부 결속 강화’ 등을 골자로 한 4년간의 종책 기조 방향을 밝혔다.

이어 스님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지구촌 모두가 공업중생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동체대비의 불교사상을 펼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간담회 내용을 1문1답 인터뷰로 재구성했다.

△종단을 이끌 총무원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은 ‘화합’ 입니다. 종단 스님들과 신도들의 목소리에 겸허한 자세로 귀 기울이며,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총무원장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는 우리사회도 예외는 아니죠. 또한 남북화합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국제적인 다문화시대에 다문화 다민족 등 함께 어울리는 문화 역시 또다른 화합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대통령선거로 더욱 심화된 우리 사회의 젠더와 진영 갈등은 물론 종단의 내부 결속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해 화합을 종단 운영의 주요 화두로 삼겠습니다.

△임기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종책으로 ‘찾아가는 불교’로의 전환을 꼽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노인 복지관의 문화는 찾아오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복지관을 찾아오는 노인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우리 불교계에서 중요하게 신경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종단 신도들 중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 먼저 껴안고 보듬으며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현 시대에 맞게 노인과 다문화가정 및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의 구석구석을 먼저 찾아가 살피는 적극적인 자세인 ‘찾아가는 불교’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는 또한 승려와 신도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 복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원 스님은 1979년 남대충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으며 인천 황룡사 등 전국 20여 사찰의 주지를 역임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직무대행과 총무원 사회부장, 종의회 의장 등을 지냈다.

4월 6일 향후 운영기조 발표
남북교류 언제든지 하게 준비
“취약계층에 먼저 다가갈 것”
함께 어울리는 보살수행 강조

△스님은 개성영통사복원위원회 단장을 맡아 천태종 초기 사찰인 북한 개성의 영통사 복원에 참여한 바 있지만, 안타깝게도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현재는 교류가 중단 된걸로 아는데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남북민간교류의 통로가 모두 막혀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영통사를 못 가지만 판문점서 영통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북측이 필요한 물품을 모아 전달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영통사 복원은 천태종 발상지인 개성 국청사로 가기 위한 교두보이기도 했기에 우리 종단에게는 국청사 복원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총무원장에 취임하고 난 뒤 조불련에 저의 취임 소식을 알리기도 했지만, 현재 답신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우리 천태종은 남북불교문화교류를 위해 항상 준비가 돼 있고, 계획도 많이 세워 놓고 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보살 불교’를 강조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판과 사판을 구별해 논하지 말고 재가자와 출가자가 다함께 어울리는 불교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중도(中道) 불교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대승보살도 수행을 우리 종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깨우고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적으로는 기도수행, 염불선 수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수행들을 철저히 해나간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에게 던져진 ‘정신적 공황이나 빈곤’을 채우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가자수 감소와 함께 특히 젊은이들이 불교를 찾지 않는 현상에 대해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신지요?

=이것은 종교인들의 큰 화두이며 비단 천태종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모두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당장 출가자 수를 늘릴 방안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불교가 사람들의 삶에 큰 의지처와 등대 역할을 한다면 저절로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불교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포교 방법도 연구돼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융복합문화 실현을 위한 출재가의 지혜를 구하면서 출가자 감소 등 종교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문제의 대책에 대해 더 이상 외형적 확장에만 머물러선 안됩니다. 시대의 눈높이에 맞는 즉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젊고 획기적인 콘텐츠 개발에 힘써야 젊은이들을 불교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천태종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는 종립대학인 금강대가 그동안 부침이 많았는데요, 현재는 어떤 상태고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요?

=종단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지금은 점점 운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우리 금강대 뿐만 아니라 지역대학들이 학생 정원을 못 채우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우리 금강대는 소수정예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점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입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잘되는 학교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앞으로는 학생들 취업에 학교가 적극적으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할 방침입니다.

조계종 · 파키스탄, 간다라 유물전시회 추진

파키스탄 대사, 원행 스님 예방서 유물 공동전시 제안

조계종과 파키스탄 정부가 한국에서 간다라 지역 불교 유물 전시회를 추진한다.

나빌 무니르 주한 파키스탄 신임대사는 4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간다라 불교유물 공동전시회를 제안하며 불교문화 관광 교류에 대해 환담했다. 〈사진〉



이날 나빌 무니르 대사는 “코로나19가 소강기에 접어든 만큼 많은 한국 불자들이 간다라 불교유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면서 불교유물 전시회 개최에 대해 운을 뗐다.

원행 스님은 대승불교 발상지이자, 백제에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 스님의 고향인 파키스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였다. 원행 스님은 “운반 중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으니, 리스크가 적은 부처님 치아사리 전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문화부와 불교중앙박물관 실무회의를 통해 진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과 한국불교계가 문화로 협조해 세계평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발원했다. 앞서 원행 스님은 2019년 파키스탄 방문 당시 파키스탄 정부와 함께 ‘부처님 고행상 및 간다라 유물’ 한국전시를 논의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잠정 연기된 바 있다.

이날 자리에는 서상표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도 함께해 한-파키스탄 간의 교류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서상표 주파키스탄 대사는 “총무원장 스님이 파키스탄에 방문하신 후 간다라 유적 복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파키스탄 내에서 간다라 불교문화와 관련된 세미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한국불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파키스탄에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1993년 파키스탄 외교부에 입사한 나빌 무니르 대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벨기에, 케냐 등에서 근무했다. 2012~2019년 뉴욕 유엔주재 파키스탄대표부 부대표를 역임했다. 2022년 3월 주한 파키스탄 대사로 임명받았다.

2020년 12월부터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로 근무하고 있는 서상표 대사는 2009~2018년 경제기구과장,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장, 주UN공사참사관, 국립외교원 교수부장 등을 지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태고종 2021년 세입세출 결산 20억원 승인

4월 4일 중앙종회 임시회
총무부장에 현담스님 선출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는 4월 4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45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2021년 세입세출 결산액 20억 1609만여 원을 승인했다.

종회의장 법담 스님은 “코로나로 힘들지만 종단 발전을 위한 중앙종회가 되자”고 개회사를 밝혔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145회 임시종회를 기점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정과 화합으로 발전한 것은 종회의원 스님들의 협조 덕분이다. 항상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종단 발전과 종도화합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고종 세입세출 결산액은 총무원 18억 4878여만 원, 한국불교신문사 1억 6730여만 원으로 승인됐다. 또 동방불교대 세입결산액은 1억 7555만 원으로 승인됐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4월 4일 임시회를 열고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안을 의결했다.

종정 감사에서는 2021년 종단발전기금 감소에 대한 업무진행 차질 발생과 승려의무금 납부 권선, 직할사찰 분담금 지원 방안 마련이 지적됐다. 2020년 대비 각종 종단 수입 감소에 대해 종단 운영 수익 창출에 대한 재정 증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과 함께 종도들의 적극 참여를 위한 권선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종회에서는 총무부장에 현담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호법위원에 송헌, 혜학, 대호, 무종 스님이, 초심위원에 법진, 철오, 정오 스님이, 법규위원에 지만 스님이 선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법흥사터 논란 야기 문화재청장 사퇴하라”

조계종, 대변인 명의 성명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4월 8일 대변인 법원 스님 명의의 성명에서 “법흥사 사찰터는 1960년대 북악산을 폐쇄하면서 스님과 신도의 불사노력이 무산된 아픔이 있는 곳이다. 그런 법흥사터 초석에 앉은 것은 다시 한 번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문화재청에서 비지정 불교문화재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을 사과했다면 불교계에서도 포용했을 문제”라고 밝힌 조계종은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가 아니다’고 발표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비지정 불교문화재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확인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화재청장과 국민소통수석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며 “문화재청은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변화하라”고 촉구했다.

신성민 기자

● 강탄재(降誕齋) 거룩하신 미륵부처님이 세상에 나투시기를 기원하는 의식

제1256주년 금산사 미륵강탄재 降誕齋

진표율사께서 금산사에 미륵부처님을 모신지
올해로 1256주년이 되었습니다.
보시와 계행 그리고 자비심으로 공덕을 쌓아
미륵부처님이 이곳 금산사에 오시길 기원하는
미륵강탄재를 성대하게 봉행하오니,
무루 참석하시어 근심걱정을 물리치는
행복한 인연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불기 2566(2022)년
5. 1. 일요일

주요행사
• 7일 기도 입재 10시
• 대중설법 11시
• 문화체험행사 12~16시

* 증명: 금산 도영 큰스님 / 법문: 불일 평상 큰스님

※ 미륵강탄재 7일 기도
입재 : 5월1일(일), 회향 : 5월7일(토) | 동참금 : 가족당 10만원
떡, 과일, 꽃 등 부처님 공양물도 접수 받습니다.
• 문의전화 : ☎ 063-548-4441~2
• 입금계좌 : 농협 525133-51-000080 (금산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주지 일원 합장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15길 1

선학원, 주지 몰래 분원토지 매각 논란

총림선원, 진주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소송'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진주 총림선원 전경.

전통사찰구역 내 1만여평 일방 매각
주지 협의없이 선학원·진주시 계약
'명백한 절차상 하자'란 논란도 거세
뒤늦게 인지한 주지·창건주 소청구

진주시 매매 과정에도 '의혹' 제기
애초 '무상 임대' 방안 논의됐으나
토지 매입 대금으로 13억 원 지출
문체부 허가도 누락… '무효' 사유

재단법인 선학원이 창건주·분원장을 배제한 채 분원 토지를 진주시에 일방적으로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해당 분원은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전통사찰로, 주지가 전통사찰보존지 처분에 따른 허가신청권을 가질 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선학원과 진주시가 무리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진주 총림선원은 최근 진주시(시장 조규일)를 상대로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토지는 경남 진주시 망경동 산 18-1에 위치한 임야 1만 3832㎡ 상당이다. 총림선원 대웅전 뒷편에 인접한 사찰림으로,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상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진주시는 해당 부지를 매입해 현재 추진 중인 '망경공원 조성사업'에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부지와 관련해 선학원과 진주시가 체결한 매매계약에 절차상 하자 논란이 거세다. 해당부지는 전통사찰 총림선원에 속한 전통사찰보존지로, 전통사찰보존법에 근거해 양도돼야 하지만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전통사찰 토지 양도 시에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 처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해당부지 양도를 위해 선학원의 이사장 승인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처분허가를 득해야 할 신청권자이자 등기의무권자는 주지(분원장)이다.

그러나 선학원과 진주시는 주지를 완전히 배제한 채 망경공원에 편입되는 총림선원 부지에 대한 협의서를 체결했고 진주시는 2019년 12월 이에 따른 매매대금 13억여 원을 선학원에 지불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은 2020년 2월경으로, 총림선원 주지(분원장)와 창건주가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인지한 것은 그로부터 4개월 뒤인 2020년 6월 경이다.

해당 부지의 명의가 재단법인 선학원으로 등기돼 있었다는 점은 변수로 지적된다. 등기권자의 매각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本紙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진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 유권해석 결과, "일반적으로 양도·처분행위에 대한 재산관리 처분권은 등기부상 소유권자에게 있지만 전통사찰법 제9조에 따른 처분 허가신청의 주체는 전통사찰의 주지로, 사찰이 속한 단체의 승인서를 첨부토록 돼 있다"고 확인됐다.

법률전문가들 역시 "선학원이 총림선원의 명의수탁자임을 감안하면 총림선원 주지의 신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 없이 체결된 양도계약은 절차상 하자로 당연무효 소지가 높다"며 "특히 해당법은 주지의 지위에 대해 '전통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운영 및 재산을 관리하고 전통사찰의 보존발전계승을 관장하는 승려'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주지 모르게 매매절차가 진행된 점은 명백한 하자가 될 수 있다"고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심각한 하자로 지적된다. 本紙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전통사찰 토지처분과 관련한 허가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림선원과 관련한 승인건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부존재 여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3항에 의거해 해당 계약은 무효화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해당 부지의 등기상 소유가 선학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총림선원이 부지 매각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등기권자와 협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또한 해당 부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인지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 재판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결이 날 경우 선학원으로부터 매입금을 회수하고 원상회복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총림선원 창건주 A스님은 "총림선원은 삼보정재 유실 방지와 사찰 존속을 위해 진주시와 이미 2018년경부터 망경공원 편입부지에 대한 '무상영구임대'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특히 산18-1번지는 전각 뒤편에 인접해 있어 총림선원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지임에도, 사찰 주지조차 모르게 매각됐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법적으로 이를 되돌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림선원 사례와 관련, 재단법인 선학원이 분원장을 배제한 채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재단법인의 특성상 소속 분원의 재산명의는 선학원이더라도 사사찰(私寺刹)의 경우 분원으로서 재산권한을 상당부분 인정해 왔다는 점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선학원 관계자는 "총림선원과 관련해 토지수용의 건이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온 적이 있다"며 "선학원 소속 분원의 재산은 모두 선학원으로 등기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해당 분원이 요청하고 분원의 의사를 반영해 이사회가 승인을 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하지만, 총림선원은 분원의 의사에 반해서 분원 모르게 진행된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학원은 재단법인이기에 사사찰(私寺刹)의 경우 명의는 선학원이더라도 분원의 재산권한을 인정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총림선원 사례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 이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독립운동·예술활동…근대화 이끈 불자 6人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요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근대화 과정에서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불교인물 선양사업을 추진한다. 독립과 문화예술 등 5개 분야에서 사회 구제와 한국 근대화를 이끈 12명의 불교인을 선정, 이들을 집중 홍보해 현대불교와 사회발전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홍보대상인 신화수, 박노영, 김상언, 박봉석, 한성준, 나혜석 등 6명의 업적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신화수(1896~?) 스님

신화수 스님은 1919년 3·1운동 당시 만해(1879~1944)스님의 지시 아래 만세운동에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오택언(1897~1970) 스님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은 인물이다. 신화수 스님은 이를 안전하게 통도사 스님들에게 전달, 3월 13일 양산 신평장터 만세운동 촉발에 도화선 역할을 담당했다. 신화수 스님의 활약으로 시작된 신평장터 만세운동은 3·1운동 이후 경상남도에 일어난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으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인근 해인사와 표충사 만세운동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23년 1월 12일 의열단 김상옥 의사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에 적극 조력한 독립투사로 평가받는 신화수 스님은 1930년대 이후 행적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못해 제대로 된 평가와 서훈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박노영(1897~1976)

양산 통도사에서 불문(佛門)에 들은 박노영은 1919년 중앙학교에 재학 중 만해 스님의 영향을 받아 3·1운동에 적극 가담했다. 3·1운동 전날 경성 시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데 이어 동료 학생들의 선두에서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1919년 4월 김상옥과 백초월 스님이 주도한 비밀독립운동단체 혁신단에 참여해 〈혁신공보〉 〈자유신종보〉 발행을 주도했다. 독립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일본경찰의 수배를 받게 된 그는 중국 상해로 몸을 피했다가 1920년 미국을 건너갔다. 환속한 그는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해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활발한 강연과 더불어 다양한 집필활동을 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며 식민지 한국의 현실을 알렸던 그는 귀국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다.



김상언(1873~1965)

김상언은 제주도 법정사 신도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해 거사 현장에서 중문 경찰관주재소 건물과 기구를 불태우는 등의 활약을 한 항일운동가다. 법정사 정기 예불에 참석하며 항일운동 거사 목적을 인지하고 참여해 활약했다. 법정사 스님인 강창규 스님을 도와 활약한 그는 항일운동 중 현장에서 체포돼 3년 간 수감생활을 했다. 법정사는 1918년 항일운동 이후 일제에 의해 불살라지고 참여자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힘든 여생을 살아야 했다. 김상언은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항일운동에 참여한 신도로 그 업적을 기려야 하는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박봉석(1905~?)

박봉석은 불교 서지학 연구의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조선공공도서관 도서 분류표를 만든 인물이기도 하다. 중앙고보에 재학 중 경성에 있는 중앙불교학우회 활동을 하며 포교활동에 앞장섰던 그는 8·15광복 후 불교계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맡아 동분서주했다. 그는 중앙불교전수학교를 졸업한 1931년 종선총독부 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사서로서 연구내용을 보면 한국불교장경과 한국불교사 속 인물을 정리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도서 분류에 있어 지금까지 소외됐던 조선이란 항목을 첨가해 독자적인 분류체제를 이뤄낸 성과들로 '한국 도서관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한다.



한성준(1874~1942)

근대 전통 승무의 전승자로 불리는 한성준은 전통 예술인으로 삶을 살다간 인물이다. 17~20세 수덕사에서 지내며 승무를 수련했다. 한성준은 승무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1930년 조선음악무용연구회를 조직, 불교계 의식에서 활용됐던 승무를 대중화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공헌했다. 일본 동경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순회공연하면서 호평 받은 그는 1908년에는 고종으로부터 참봉벼슬을 받고 궁중을 출입하기도 했다.



나혜석(1896~1948)

나혜석은 한국 최초의 여성 유화가, 문학가, 독립운동가로 불리며 압도적 존재감을 뽐낸다. 일본 유학을 한 엘리트 신여성이자 3.1운동으로 5개월간 구속된 독립운동 이력, 7년간 안동현 부영사 부인으로 만주 경험에 더해 20개월 동안의 세계여행은 식민지 시절 당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 경험을 지닌 인물이었다.

수원 최초 미술전람회를 1929년 수원포교당에서 개최한 것은 나혜석과 불교라는 첫 접점을 만들었다. 이듬해부터 서울 수송동에 머물며 그림 그리기에 전념한 그는 인근 각황사에 다니며 불교 공부를 했고 그곳에서 만난이들을 통해 해인사, 다솔사 등과 인연을 맺었다.

나혜석의 후반기 삶은 '예술혼'과 '보리심' 즉 예술과 불심으로 지탱됐다. 수덕사로 입산 출가한 김일엽과의 인연으로 수덕여관을 근거지로 활동했다. 속세를 떠나 산사 주변에 머무르며 마지막 생애는 비승비속의 삶이자 치열한 창작 활동을 펼쳤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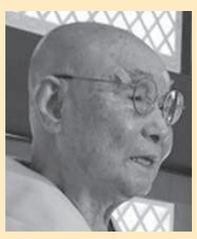
| 한국불교 7대 선사 |

제 4 회 간화선 대법회

세계명상마을 개원, 깨달음의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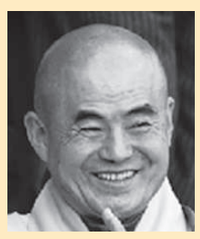
천년의 道! 문경 세계명상마을 山門을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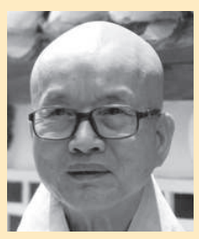

성파 대선사 (15대 종정예하) 4.26 화


지유 대선사 (범어사 방장) 4.22 금


대원 대선사 (학림사 조실) 4.20 수


무여 대선사 (축서사 조실) 4.24 일


혜국 대선사 (석종사 조실) 4.25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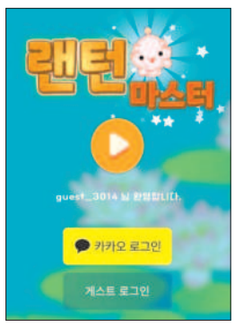

의정 대선사 (한국참선지도자협회 이사장) 4.23 토


영진 대선사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4.21 목

기간 4.20 수 - 4.26 화 오후 1시 - 3시
장소 문경 세계명상마을
검색 문경 세계명상마을
문의 1577-4327
주최 전국선원수좌회
주관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후원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문경시 MUNGYEONG CITY 한국참선지도자협회 한국명상총협회 국제포교사회

온라인 연등회, 'UPGRADE'돼 돌아왔다

연등회보존위 모바일 게임
'연등회 랜턴마스터' 출시
쉬운 퍼즐아케이드 장르로
연등회 燈만들기 흥미 유발
온라인 연등행렬도 '버전업'





연등회가 처음 선보인 모바일 게임 '연등회 랜턴마스터' (사진 왼쪽)와 지난해 많은 호응을 얻어 올해에도 진행되는 '온라인 연등행렬' (사진 오른쪽)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일상으로의 회복이 이뤄지면서 3년 만의 '오프라인 연등회' 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즐기는 연등회도 빼놓을 수 없다. 더욱 업그레이드돼 돌아왔기 때문이다.

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원행)는 최근 연등회 등(燈)만들기 모바일 게임인 '연등회 랜턴마스터' 를 출시했다. 안드로이드, ios를 모두 지원하며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연등회 랜턴마스터' 는 필요한 재료를 모아서 등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퍼즐 아케이드 형식의 3매치 게임이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연등 재료가 제공되고 이를 모아서 자신이 필요한 연등을 제작하면 된다. 만든 연등에는 소원을 작성할 수 있으며, 소원나무에 걸 수 있다.

지난해 처음 공개돼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던 '온라인 연등행렬' 도 올해 다시 진행된다. '온라인 연등행렬' 은 도심을 오색 연등으로 수놓는 대규모 연등행렬을 연등회 홈페이지(www.llf.or.kr/2022lanternparade)를 통해 구현했다. 장엄등과 연등행렬은 2D 일러스트로 재현됐으며, 행렬에 참여하며 들었던 흥겨운 연등행렬곡도 함께 들을 수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버전업' 됐다. 캐릭터 생성 툴(tool)과 모션이 추가됐으며 자신의 연등행렬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추가됐다. 내 캐릭터의 이미지를 저장하고 SNS에 공유하는 기능도 새롭게 탑재됐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보존위원회가 처음 선보인 '연등회 랜턴마스터' 는 다양한 연령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단순하고 재미있는 모바일 게임"이라며 "일반인에게 연등회와 등 만들기를 알리고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시작된 '온라인 연등행렬' 은 1만 2000명이 참여하며 많은 호응을 보였다. 향후에도 지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계, 우크라이나 구호 박차

지구촌공생회, 3천만 원 전달
화계사에선 스님들 현지 파견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성우 스님(왼쪽 두번째)이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러시아 침공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불자들의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성우)는 4월 6일 서울 용산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과 주지 혜솔 스님이 기탁한 3000만 원을 전달했다.

혜수 스님과 혜솔 스님은 지구촌공생회 회원으로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소식을 듣고 지구촌공생회 측에 성금을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성우 스님과 사무총장 덕림 스님, 이재호 후원팀장이 참석했으며, 우크라이나대사관에서는 루슬란 뎀차크 경제참사가 나와 성금을 전달받았다.

성우 스님은 "매일 러시아 공습으로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민간인이 희생되는 등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며 안타까웠다"며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데 금액이 적어 죄송한 마음이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해 평화와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오늘 적은 성금이나마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공생회 회원인 한마음선원 이사장 스님과 주지 스님께도 감사하다"며 "불자들이 우크라이나에 성금을 모아 전달해 평화 정착과 전후 복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루슬란 뎀차크 경제참사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함께 나선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과도 같다"며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국민들이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교계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와 함께 불교NGO들의 우크라이나 구호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 우크라이나 출신 원학 스님은 전쟁이 발발하고 인접국인 폴란드로 출국해 국경지역 난민촌에서 구호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화계사는 최근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보시금을 마련해 곧이어 출국한 폴란드 국적의 관미 스님 편으로 전달했다. 4월 1일까지 폴란드인 조불 스님도 합류, 구호활동에 뛰어든 화계사 스님들은 총 세 명이다.

더프라미스는 독일 유학생을 전문위원으로 임명하고 현지 지원에 나섰다. 3월 8일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베를린에 도착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담요, 매트리스,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올해 연등회, 외국인들도 함께 즐겨요!

국제포교사회(회장 이재홍)는 4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 공연장에서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의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은 예경 의식에 이어 연등회 사무국장 선효 스님의 환영사와 국제포교사회 이재홍 회장의 축사, 기념촬영, 오리엔테이션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포터즈들은 발대식에 이어 시청 앞에서의 점등식에 연등을 들고 참가했다.

이번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는 전 세계 24개국에서 온 외국인 25명, 내국인 5명의 청년들로 구성됐다. 발대식과 점등식 참가에 이어 템플라이프 체험, 연등 만들기 체험, 율동 익히기, 프래시몹 등 4주간에 걸쳐 사찰문화와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연습한 후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 축제에 참가한다. 노덕현 기자

"불교 탄압 원인 냉철한 분석 · 성찰 절실"

4월 7일, 조계종 종회의원 연수서
이병두 원장 '불교차별 역사' 발제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민과 종교는 위정자와 자치단체장의 종교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영역에서 자행되는 종교차별과 왜곡, 종교편향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희일비 즉각적이고 물리적 대응이 아닌 성찰과 자성을 통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4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22년 중앙종회의원 연수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사진〉은 "대통령이나 정권, 권력의 속성은 언제나 종교계를 장악하기 위해 겉으로는 화합을 말하면서도 종교계, 좁게는 불교계의 분열과 갈등이 지속되길 바라게 돼 있다"면서 "권력이 늘 쓰는 분할통치술에 이용, 악용당하지 않는 길은 우리 스스로를 찾아서 지켜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의 종교편향 사례 및 불교규제 국가법령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는 자성의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두 원장은 이날 '현대 한국불교 탄압과 차별의 역사' 에서 차별과 탄압의 역사를 왜 돌아봐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원장은 "더 이상 억울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며 "탄압 역사를 통해 자기 콤플렉스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성찰의 바탕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더 이상 차별과 탄압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명제이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다지려면 과거의 탄압과 차별이 벌어진 원인의 냉철한 분석과 스스로의 성찰이 절실하고 그 바탕 위에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수립해야 한다"며 "종단의 불교사회연구소 등에서 해방 이후 8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차별과 탄압을 받았는지 정리해 백서를 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립하는 중기와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중앙종회의원 지우 스님은 '정부 및 지자체의 종교편향 사례와 대응전략' 에서 시립합창단 종교편행 공연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으며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세미나는 마무리됐다.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은 "종교편향 문제는 해방 이후 우리 사회와 불교계를 계속해서 괴롭혀온 해묵은 문제"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신계사 온라인 등달며 통일 염원"

민추본, 4월 5일 올해 일정 발표
4월 초 신계사 온라인 법당 개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가 남북불교 교류의 성과물 금강산 신계사 복원 15주년을 기념해 온라인 법당을 개원한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개원하는 온라인 법당에서는 등달기를 비롯해 다양한 메뉴들로 신계사를 체험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민추본은 4월 5일 서울 전법회관 7층 사무국에서 2022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민추본은 4월 초 금강산 신계사 온라인 법당 홈페이지(singyesa.org / singyesa.kr)를 개설하고 온라인 등달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온라인 등달기 캠페인은 남북 평화를 부처님께 서원하는 사업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는 등달기 뿐 아니라 신계사 대웅보전, 극락전 등 6개 전각을 온라인으로 참배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신계사 역사 및 소개, 복원불사 과정 연도별 안내, 행사사진 등이 실린다. 민추본은 향후 홈페이지 제작을 여러 지역 북한 사찰로 확대, 불자 실향민이나 이산가족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북한 사찰 3D촬영 및 VR제작사업과 연계, 온라인 참배 및 연등달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계사 낙성15주년을 맞아 남북합동법회도 추진한다. 민추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찰을 중심으로 성지순례단을 구성해 10월 13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봉행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추본 추진사업에 대한 대외적인 관심을 고취시키고 템플스테이와 금강산 내 불교문화재 복원사업에 대한 종단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한 108 평화통일 도량 사업은 올해 상반기 목표했던 108개 도량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21년 3월 인천 능인사에서 제1호 도량 협약식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현재 101개 도량과 협약을 맺은 상태며 4월 말까지 108개 도량 협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민추본은 6월 중 108 평화통일 도량에 동참한 사찰에 감사를 표하며 선포식을 거행하고 하반기부터는 점차 희미해져 가는 평화 통일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불교계에 확산시켜 남북불교교류 및 통일사업의 원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남북불교교류기금 조성사업(가칭)을 통해 기금 형태의 재원도 마련한다. 기금 조성사업은 예측 불가한 남북관계 속에서 변화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획됐다. 민추본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이웃종교 남북기금 운영 사례를 먼저 파악할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사노위, 4 · 3 진상규명 염원

제주 4 · 3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스님을 비롯한 3만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는 4월 3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어울쉼터 추모공간에서 '제주 4 · 3 74주년 희생자 추모재' 를 봉행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 관계자 및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추모재 행사장에는 희생자들의 명단과 함께 제주4 · 3을 상징하는 동백꽃으로 곳곳을 장식해 눈길을 끌었다.

추모재는 추모사를 시작으로 명상음악밴드의 추모공연, 법고, 추모염불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사회노동위 부위원장 혜문, 위원 고금 · 동신 · 현성 · 여등 · 주연 · 대각 · 서원 스님과 백경진 제주4 · 3범국민위원회 상임이사, 희생자 유가족 등이 참석해 4 · 3사건으로 희생당한 이들의 넋을 위로했다.

제주 불교계는 4 · 3 당시 주민들이 사찰로 피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환경 속에서 제주지역사회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사찰로 대피해 온 주민들을 지키다 35개의 사찰이 전소, 폐허 등의 피해를 입었고 스님들 15명이 총살, 수장, 고문후유증 등으로 희생되는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근대 제주불교의 부흥을 위해 활동하던 스님들이 대거 희생되면서 제주불교 활동 전반에 큰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추모재에서 사노위는 제주 4 · 3 특별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하루빨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염원했다. 임은호 기자

불교계, 산불 피해 이재민에 생필품 지원

조계종복지재단, 100여 가구에 전기밥솥 등 전달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은 4월 1일, 동해시(시장 심규언)에 동해안 일대 산불피해 전소가정 100여 가구를 위한 250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00개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3월 18일 울진구청에 전달한 전기밥솥 지원에 이어 두 번째 전달이다. 산불 피해 긴급 모금액과 함께 평택 용성조사대원 명법사실천회(총재 화정)가 1000만 원을 동참한 것으로 마련됐다.

나누며하나되기(총재 무원)는 울진지역 이재민들 돕기에 나섰다. 3월 31일 천태종 울진 봉화사를 방문,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500만 원 상당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어 울진군청을 방문해 전찬걸 군수를 면담하고 1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동해시에 전기밥솥 100개를 전달했다.

한편 사찰들은 기금은 물론 공양미를 전달하며 이재민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는 공양미 1000kg을 기탁했으며 도선사도 3000만 원 상당의 공양미 5000kg을 쾌척했다. 임은호 기자

삼국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세계기록유산 한국위, 6월 삼국유사 등 신청 예정

고려시대 일연 스님이 편찬한 역사서인 〈삼국유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 지역목록 등재 절차에 들어간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가 오는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를 신청할 기록물로 〈삼국유사〉와 〈내방가사〉,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 3건을 선정했다"고 4월 5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프로그램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목록이다. 현재 한국의 편액, 만인소, 조선왕조 궁중 현판이 등재됐다.

이번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 신청 목록은 문화재청이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40일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5건의 기록물을 대상으로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가 심의해 선정했다.

〈삼국유사〉는 고려 일연 스님이 1281년(고려 충렬왕 7년) 편찬한 역사서로 한반도의 고대 신화와 역사, 종교, 생활, 문학 등이 담겼다.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 신청 기록물은 오는 6월 15일까지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올해 말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전달식 모습들. 지난 4월 6일 10회차를 맞았다. 이를 통해 100명의 학생이 총 1억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사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포항 원법사 △제주 관음사 △구례 화엄사 △화성 용주사 △여주 신륵사 △고창 선운사 △안양 삼막사 △보은 법주사 △용인 서봉사 △시흥 법련사의 전달식 기념촬영들.

사찰–지역 재학생 연결…'장학포교' 새장 열다

10회 맞은 동국대 건학위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는 동국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동국대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의 결연한 원력에서 시작됐다.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꿈같은 이야기는 이제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

학교, 지역 사찰 · 학생 잇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가 추진하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이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지역 사찰이 동국대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에게 직접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사찰은 1000만 원의 장학기금으로 10명의 지역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사찰 · 스님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포항 원법사를 시작으로 △제주 관음사 △구례 화엄사 △화성 용주사 △여주 신륵사 △고창 선운사 △안양 삼막사 △보은 법주사 △용인 서봉사 △시흥 법련사 등 현재까지 10개 사찰이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에 동참했다. 약 6개월 동안 100명의 학생에게 총 1억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의 가장 큰 특징은 사찰과 지역 학생들의 연결이다. 기존 일반 장학제도는 독지가나 사찰이 학교에 장학기금을 전달하면, 그 목적에 맞게 학생들을 선발 · 지원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학교에서 지역 출신 장학생 명단을 제공하면, 사찰은 학생들의 자기 소개서와 학업 계획서를 직접 심사한 뒤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는 사찰 스스로 '우리가 선발한 특별한 장학생'이라는 애정을 갖게 하고, 학생들 역시 '출신 지역 사찰에서 선발된 장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긍정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인재양성 · 포교의 새로운 모델

실제 장학금 지원으로 형성된 사찰 · 학생 간의 유대 관계는 친밀하고 끈끈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첫 번째 장학금 지원 사찰인 포항 원법사의 장학생인 천나경(법학과 3학년) 씨는 "원법사에서 주신 장학금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지난 2월에 찾아뵙고 스님들께 인사드렸다. 스님들께서 학생들 미래와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고 조언해주셨다. 부처님오신날도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포항 원법사 주지 해운 스님은 "11년 전부터 전통한과를 제작하고 판매한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을 알게 돼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찾아와 인사도 하고 전화를 걸어서 고민을 털어 놓기도 한다. 새학기 맞아서는 제가 직접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다. 사찰 밴드에도 가입해 사찰 행사 일정과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의 첫 장학생들이 포항 원법사를 찾아 감사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천나경 학생**

'등록금 걱정없는 동국대 만들자'
고문인 자승스님 원력서 비롯돼
지난해 11월 포항 원법사서 시작
4월6일 시흥 법련사에서 10회째
총 100명에게 1억원의 기금 전달

사찰–지역 학생 이어 유대형성
수혜 학생 사찰 찾아 감사 인사
단톡방 개설…스님–학생 소통
"어려웠던 스님, 이젠 친숙해요"

화엄사 장학생으로 선발된 최민석(중어중문학과 4학년) 씨는 "어려웠던 스님이 친숙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술회했다. 최 씨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모교인 정광학원 이사장이셔서 어렵다고 느껴졌다. 하지만 올해 초 새해 인사를 드리기 위해 화엄사를 찾았는데 너무 친절하게 맞이해주셨다. 세배를 드렸는데 세뱃돈과 복주머니도 주시고, 학생 모두에게 일일이 염주를 채워주셨다"면서 "감사인사를 드리려 왔는데 도리어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제게는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면서 "주신 장학금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도선사 청소년법회의 학생들에게 사용했다.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게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같은 기회를 주신 건학위원장, 화엄사 주지 스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메신저와 같은 대중적 소통창구로 유대관계를 이어가는 사찰도 있다. 10회차 장학금 전달 사찰인 시흥 법련사 주지 진명 스님은 학내 정각원장으로도 활동하는 만큼 전달식 직후 바로 10명의 장학생들과 단체 카톡방을 개설했다. 스님은 '단톡방' 등을 통해 학생들과 꾸준하게 '스킨십'을 이어갈 계획이다.

진명 스님은 "4월 6일 전달식을 마치고 바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대화를 나눴다.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련사 근처에서 사는 장학생이 있는데 매번 등하교할 때마다 교통비가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스케줄이 맞으면 그 학생과 등하교를 같이 하려고 한다"고 장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사찰 동참 확대… 장학제도 'Upgrade'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다. 사찰과 학생을 연결해 장학포교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실제, 8월 말까지 10개 사찰의 전달 일정이 확정됐을 정도로 일선의 호응도 좋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출범 이후 '장학제도' 일신(一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불교 소양을 갖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장학제도인 '동국건학장학'을 신설하고 1기생을 모집했다.

2~4학년 각 10명씩 총 30명이 선발되는 '동국건학장학'은 학업성적 외 품성, 지도력, 봉사활동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선정되면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장학생 선발 이후에도 △해외탐방 프로그램 △진로지원 △장학생 모임 △졸업 커뮤니티 구성 등을 제공한다는 게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방침이다.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등록금 걱정 없는 학교를 만들자'는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의 원력이 곧 동국대 건학이념과 일치한다. 양질의 불교 인재들을 배출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115년 전 '교육보국' 정신을 바탕으로 동국대를 건립했던 선지식들의 건학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사찰과 해당 지역 출신 재학생들을 연결해주는 장학제도가 인재불사와 청년 포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 발전 · 확대되면 장학포교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뿌리깊은 종단, 보람여는 교구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경전강의안내

귀의 삼보 하오며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경전강의를 개설합니다. 개설하고자 하는 취지는 스님들께서 사찰을 운영함에 있어 정기법회는 물론 교양대학(기초교리강좌)이나 불교대학 등 법회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전을 선택하여 강의하고자 합니다. 수도권(특히 25교구)에 거주하시는 본 말사 스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주지 **초격** 합장

■ **강 사** : 능엄승가대학원장 정원스님
■ **교 재** : 우리말 석가여래행적송
■ **접수일정 및 마감일정** : 2022년 3월 ~ 4월12일까지
■ **개 강 일** : 2022년 4월13일 수요일 오후2시 매월 2회 격주
■ **강의실** : 운하당
■ **강의기간** : 2022년 4월13일 ~ 2023년 4월5일까지
■ **수강료** : 매월 5만원
■ **교재준비** : 봉선사 교무국(봉향각)
■ **접 수 처** : 봉선사 포교국 031-527-8568



부산불교聯, 천진불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1기 출범

전통등 제작 등 불교문화체험
부산연등회 호기놀이 참여 등
대불청 부산지구 봉사 후원해
부산연등회 일정변경 등 공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가 4월 2일 천태종 삼광사 경내 강의실에서 불교문화 전승을 위해 활동할 '선재동자 문화전승단-부산연등축제 행렬등(燈) 만들기'를 개최했다.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은 부산불교연합회가 연등회 및 팔관회 등 불교 대표 문화 활동에 어린이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불교문화 체험을 돕기 위해 창립한 단체이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3월 각 사찰의 모집공고를 통해 선재문화 문화전승단 제1기 초등학생 50명을 선발(선착순)했다. 제1기로 선발된 어린이들은 행렬등 제작, 부산연등회 연등행렬 참가 등 부처님오신날의 행사들을 체험하며 불교 전통문화를 경험한다. 특히 이번 불기2566년 부처님오신날 부산연등회에서는 전통놀이인 호기놀이를 시연한다. 호기놀이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당시 어린이들이 깃발을 들고 마을을 돌며 연등 제작을 위한 모금을 했던 놀이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문헌에 따라 호기놀이를 재현해 선재문화 전승단 어린이들과 대중에 전통 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어린이들은 이번 호기놀이 시연을 위해 직접 등을 만들고 연등회를 준비한다. 아울러 템플스테이, 2022년 팔관회 사회나눔, 수계법회 참여 등 1년 동안 불교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한다. 참가한 어린이들은 3만 원 참가비 외 교육 및 행사 참여는 무료이며 활동 우수 어린이는 불교계 장학금 추천을 받고 연등회 행렬등, 법복, 수계증서 등을 제공받는다.


부산불교연합회가 4월 2일 삼광사 강의실에서 불교 문화 전승을 위해 활동할 '선재동자 문화전승단-부산연등축제 행렬등(燈) 만들기'를 개최했다.

이번 행렬등 제작에는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어린이들과 보호자를 비롯해 김진희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 및 대불청 부산지구 회원들이 동참했다. 대불청 부산지구 회원들은 행렬등 제작을 위해 한 달 동안 전주를 방문해 전통등 제작을 배웠으며 어린이가 하기 힘든 철골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번 봉사에 동참한 봉사자들은 대불청에서 진행하는 문화재 해설사 과정을 수료한 회원들이다. 대불청 부산지구는 이번 행렬등 제작뿐 아니라 연등회 행렬과 템플스테이, 팔관회 등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1년 동안의 활동 과정 전체를 관리한다.

김진희 대불청 부산지구 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어린이 포교에 동참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대불청 부산지구는 문화재 해설사 과정을 운영 중인데, 과정을 수료해도 코로나로 인해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어린이들을 도와주며 전통문화를 전승하는데 앞장설 수 있어 더욱 특별하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은 새로운 경험이라며 불교 전통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옥나경(초1) 학생은 "처음으로 만들어보았는데 새로운 경험이었고 전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유민숙(43) 보호자는 "오늘 아침에 아이들에게 전통등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서 부처님오신날의 의미와 등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설명을 해주었다"며 "이런 체험이 있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궁금해하고 직접 경험하며 우리 불교문화에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참여하길 잘했다고 생각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는 4월 5일 부산불교연합회 전법관에서 '2566 부산연등축제 제1차 실무진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 이전에 개최했던 연등회와 달라진 '부산연등회', '연등행렬 코스' 등을 공개했다.

부산연등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부산연등회는 4월 22일 오후 7시 송상현 광장에서 개최한다. 부산연등회는 부산연등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대형장엄등 점등식 행사였지만 올해는 영산재, 느티떡 나누기, 호기놀이, 봉축연합대법회를 포함해 주요 행사로 진행한다.

4월 30일에는 부산시민공원에서 봉축연합대법회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생략하고 소규모 연희단을 구성해 연등행렬만 진행한다.

연등행렬은 부산시민공원 에코브릿지에서 출발해 교육청을 지나 하마정 교차로, 양정교차로, 송상현 광장에서 회향한다. 과거 연등행렬 회향은 참가팀이 개인별로 마무리했지만 올해는 송상현 광장에서 난타공연, 내빈 인사말 등으로 회향식을 진행한다.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보운 스님은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여러 차례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들이다"며 "주요 행사를 변경했지만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부산시민에게 차별화된 불교문화를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연등문화제가 무형문화재로 등재돼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함께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영불교사암聯, 통영 보건소 햄버거 전달



통영불교사암연합회(회장 종묵)가 4월 4일 통영보건소를 방문해 햄버거 200인분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달식에는 통영불교사암연합회장 용화사 주지 종묵 스님, 보현사 주지 묵원 스님, 대성암 주지 승원 스님, 연화사 주지 도법 스님이 동참했다.

회장 종묵 스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신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통영 불자들의 마음과 정성을 전하고자 방문했다"며 "코로나 감염병이 하루 빨리 퇴치되어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주 보건소장은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보건소를 방문해 선물을 전달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통도사, 2566 보살계 수계산림 회향

4월 5~7일, 장학금 수여 및 성만패 증정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4월 5일부터 7일까지 경내 설법전 금강계단에서 '불기 2566년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이번 보살계 수계산림은 전계사 혜남스님이 전계아사리, 前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이 갈마아사리,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이 교수아사리를 담당했으며 천진, 명신, 중선, 향조, 법선, 증도, 덕문 스님이 존증아사리 칠증사로 계단을 증명했다.

마지막 회향 법회에서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주지 현문 스님이 동참해 참석한 대중을 격려했다.

통도사는 수계의식 전에 영축율학승가대학원장 성주 스님과 통도사승가대학 정혜 스님을 비롯한 39명의 스님에게 장학금 3180만 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10회 이상 보살계에 참여한 대중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살계 45회 성만패는 황정련(대원심), 35회 성만패는 박수연(관음화), 25회 성만패는 정덕자(지성월), 홍화순(무량심), 이복림(여래성)에게 수여했으며 20회 수계자 6명과 15회 수계자 18명, 10회 수계자 24명에게 기념 메달을 전달했다.

한편, 통도사는 4월 7일 보살계 회향식에 앞서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이 번역한 〈청량국사화엄경소초〉(운주사) 출판 봉정식을 진행했다.

수진 스님이 완역한 〈청량국사화엄경소초〉는 현재 30권이 출판됐으며 앞으로 총 100권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동용궁사, 권보성 신도회장 취임

4월 1일 취임식"…젊고 활기찬 불교 문화 이끌 것"

조계종 제19교구 화엄사 말사 해동용궁사(주지 연규)가 4월 1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제1대 신도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권보성 회장(47)은 '미래 세대에 어울리는 불교문화'를 강조했다. 권 회장은 "해동용궁사가 조계종 19교구 화엄사 말사로 등록한 이후 신행과 나눔으로 지역의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해동용궁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사찰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 해동용궁사의 신도회장이라는 역할이 더할 수 없이 중대하게 느껴지며 믿고 맡겨주신 주지 스님과 신도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사찰의 신도회장 가운데 제가 아주 젊은 편에 속한다. 미래 세대에 어울리는 불교문화를 제시하고 새로운 활력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권보성 신도회장은 불자향토기업인으로 불교용품기업 선행(善行)을 이끌고 있다. 특히 사찰에서 사용하는 양초를 12지 양초, 통일대불양초 등 사찰 특색에 맞게 제작해 포교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해동용궁사는 4월 6일 경내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해동용궁사는 기장시니어클럽에 500kg, 일광노인복지관에 500kg, 부산구포 진여원에 500kg, 불교쌀나눔사회적협동조합에 500kg, 총 2000kg의 쌀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쌀은 독거어르신을 비롯해 청소년 포교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관음사, 산신불 점안 및 쌀 전달

4월 3일, 자비의 쌀 가야 3동에 전달

부산 범내산 관음사(주지 천웅)가 4월 3일 경내 대웅전 옆 마당에서 '산신불 점안법회 및 이웃돕기 자비의 쌀 나눔식'을 봉행했다.

관음사는 이번 산신불 점안법회를 통해 지역 시민들의 안녕과 국운융창을 발원했으며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1080kg을 가야3동 동사무소에 전달했다.

점안법회는 불공으로 시작해 기념사 및 격려사, 축사, 법문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지 천웅 스님을 비롯해 전등사 주지 도문 스님(前 동래구불교연합회 회장),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 화엄승가회 사무국장 대각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천웅 스님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이 불보살이다. 관음사에 와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사찰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산신이 산을 지키며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관음사는 불보살의 가피가 이곳 부산진구 모든 불자들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증명법주 도문 스님은 "주지 천웅 스님이 오신 이래로 관음사가 밝게 변모하고 생동감이 넘친다"며 "삶이란 휘면서 자라는 소나무처럼 휘청거리고 힘든 상황을 만나기도 한다. 관음사를 찾는 여러 불자들은 오늘 점안한 산신불을 친견하면서 힘들 때마다 마음의 안식처를 얻고 힘을 얻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불교 전통불복장 전수 교육 안내말씀

불교문화는 부처님이 세상에 탄생하신이래로 한국불교 1700여년의 유구한 역사와 아울러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전반적으로 불교역사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특히 모든 불교 의례중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은 불교문화의례에 가장 핵심이며 등상불이 불복장을 통해서 완전한 부처님으로 화현했을 때 불공의식 예수재 수륙재 시식 제불공 및 범패 태징 바라 나비춤 법고춤 살풀이 화관무 진도 씻김굿등 민속문화까지 모든 의례 의식이 구현되었다.

특히 불복장은 무형에서 유형을 만드러내는 과정을 조상경에서 밝혔는데 용허스님이 자료를 수집하시고 화악스님이 경전과 제방 선지식을 통하여 고증해서 완성한것이 강원도 금강산 유점사본이다 화악스님의 교판에 의하면 조상경은 신해행증(信解行證) 사문(四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수가 있었다.

첫째 신(信): 등상불을 살아 계시는 부처님으로 철저히 믿을 것
둘째 해(解): 복장에 들어갈 250여 가지의 물품을 왜 넣어야 하는지 각각의 뜻을 잘 알아야 하고 의식할때의 마음가짐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
셋째 행(行): 삽입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각종 진언을 지송할 때 사부대중이 동심 일체가 되어 모두 금강신으로 들어가 작법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수행 정진이며
넷째 증(證): 조성불을 화현불로 탄생시키는 의식 즉 점안작법 점필법이 있다.

이상의 개괄적 설명과 같이 근본 부처님을 완성하는 의식 작법이야 말로 모든 의례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의식 작법은 불교 전체 불교인의 불교문화 의식이기에 모든 종파를 초월하여 완전개방해서 누구나 공유하고 자타일시 성불을 기원하면서 아래와 같이 전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증명: 활안정섭(서울 금강선원 총재)
범청상명(선암사 전 주지 및 현 선원장)
의식 법주 겸 강주: 담양 용화사 주지 도월수진 (무형문화재 제 139호)

- 아 래 -

지원자격: 불교계 비구 비구니 교법사 교임(AI인공지능 조예가 있는분 대 환영)
개강일시: 2022년 양 5월 12일(음 4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
교육기간: 1년과정 1학기 3개월 2학기 9월부터 3개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모집인원: ○○○명
수 강 료: 1개월에 20만원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 www.dyhs. kr(담양용화사)
2. 각 종단 승적증명서(1부) 또는 승려증 사본 및 교임확인서
3. 반명함판 사진 3매
교육장소: 담양 용화사 대웅보전
접 수: 수시모집
교 과 서: 별도 (개강일 분배)

교육원은 전통의식을 여법히 봉행할수 있도록 지도하며 출재가자도 환영 전 과정을 통하여 수료 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 자격증을 부여함 (수료증 포함)

한국불교 전통불복장 교육원
연락처: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촌길 77 용화사
담양 용화사 전화: 061-381-2683 팩스: 381-2749
e-mail: hb480806@hanmail.net
전통불복장 사무국장 국진 010-5048-7782

울산 백양사, 태화문화체험관 건립한다

4월 1일, 백양사 건립부지서 업무협약

30년 숙원불사로 진행
지하2층, 지상3층 건물
국제명상센터 등 위치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불교문화를 널리 알려갈 복합문화공간 태화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백양사(주지 산옹)는 4월 1일 태화문화체험관 건립부지에서 '태화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설명회 및 협약식'을 갖고 시삽 등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을 비롯해 울산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산옹 스님, 정관암 대활 스님, 여여선원 효암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신흥사 종현 스님, 석남사 일영 스님, 내원암 진응 스님 등 지역스님과 송철호 울산시장, 박태완 중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행사로 헌다와 헌향, 선학무 공연과 함께 개식선언, 내빈소개, 국민의례, 시삽산신제, 사업설명회 영상상영, 사업 질의응답, 격려사, 기념사, 축사, 협약식, 시삽,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백양사 주지 산옹 스님은 "울산 불교계 30년 숙원인 태화문화체험관이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태화문화체험관에는 교육원 방송국 국제명상센터전시실, 인성교육장, 문화, 예술, 전시 등 종합 공간이 들어서 꿈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과 일상에 지치고 힘든 이들을 위로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울산 백양사에 모인 사부대중이 태화문화체험관 건립 시삽을 하고 있다.

스님은 이어 "코로나라는 복병에 힘들어 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으로 위로할까 고민했다. 꽃나무 몇 그루를 법당 앞에 심고, 보는 이로 하여금 잠시나마 미소 짓는 얼굴이 되기를 발원했다"며 "체험관이 한 송이 꽃이 되어 시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종간이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격려사로 "인간의 도리에 충실하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문화공간으로 체험관이 자리하길 바란다.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강조하며 사람, 예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울산의 행복장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축사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공간과 체험공간으로 힐링하는 태화문화체험관이 되고 함월산 끝자락 천년고찰 백양사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관광벨트화로 울산의 밝은 미래와 희망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양사 맞은편 주차장 부지에 건립되는 태화문화체험관은 울산불교 연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백양사 주차장(중구 성안동 831번지)에 위치한 6202㎡ 규모 부지에 연면적 6800㎡,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체험관 1층에는 문화예술공연장, 전시체험관, 어린이놀이방, 컨벤션홀이, 2층에는 사찰음식 레스토랑, 카페, 공유 사무공간, 사무실이, 3층에는 국제명상센터, 문화교양대학 등이 들어선다.

표충사, 제557회 사명대사 춘계향사 개최

4월 4일 사부대중 운집
진각 스님 "호국의지" 강조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는 4월 4일 표충사 일원에서 제557회 사명대사 춘계향사를 봉행했다.

이날 향사에는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 前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법선 스님, 중앙종회의원 효림 스님, 백담사 주지 삼조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울산 내원암 진응 스님, 용궁사 정무 스님 외 지역스님과 김성규 밀양부시장, 이원효 유도회 밀양시 지부회장, 김영환 밀양향교 전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밀양 표충사는 4월 4일 사명대사 춘계향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명종5타, 삼귀의, 반야심경, 종사영반, 헌다, 헌화, 유교제향, 추모사, 축사, 주지스님 인사말, 화환소개 및 공지사항,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밀양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명 스님의 호국정신을 이어 받아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후손들에게 전쟁이 없는 나라를 물려주는 것은 책무"라고 강조했다.

통도사 前 주지 원산 스님은 추모사에서 "사명 스님의 유업을 기려 나라를 발전시키고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하자"고 서원했다.

김성규 밀양부시장은 "춘계향사에서 인사하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불교문화를 꽃피운 표충사에 호국충혼 정신이 면면히 이어져서 시민들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하는 수호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안동 법림사의 가치 탐구 나서다

경북불교문화원, 3월 31일
법림사 연구 학술포럼 개최

경북불교문화원(이사장 호성)은 3월 31일 안동청소년문화센터 4층 대강당에서 '안동 구 역사(驛舍)에 묻힌 법림사의 가치'를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학술포럼에는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을 비롯해 부주지 정우 스님, 안동 대원사 주지 도륜 스님, 박순 경북불교문화원 상임이사, 정의우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교육문화 부장, 김성동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관장 등이 참석했다.



학술포럼에 모인 사부대중이 법림사 연구에 뜻을 모았다.

이날 등운 스님은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하는 것은 삶과 예술에 대한 문화의식을 고양시켜 모두가 지혜롭게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자 안동의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법림사지' 원형복원이 모색됐다.

△전성건 안동대 교수의 '법림사 오층전탑과 화엄세계' △태지호 안동대 교수의 '법림사지 전탑을 활용한 불교문화유산의 콘텐츠 방안 제언', △신호림 안동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사라진 이야기의 흔적: 법림사와 오층전탑의 편린' 등이 발표됐다.

한편 경북불교문화원은 불교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불교를 넘은 문화운동 전개 등을 목표로 설립됐으며 그동안 경북 한글서체 개발, 훈민정음 해례본 찾기 발굴조사 등을 진행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삼론종은 4월 7일 서천 천용사에서 '제6대 종정 혜승 대종사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공덕 지을 수 있는 표상 되겠다"

삼론종 6대 종정 혜승 스님 취임
4월 7일 서천 총무원서 취임법회

삼론종(총무원장 지공 해불)은 4월 7일 충남 서천 천용사내에 위치한 삼론종 총무원에서 '제6대 종정 각몽당 혜승 대종사 취임법회'를 사부대중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혜승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우리가 정말로 공덕을 이루고 삼론종을 만들어 가려면 많은 공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에 공 들이는 이치를 알고 수행을 통해 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하나씩 나쁜 습관을 고쳐가면서 수행한다면 원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공을 덕과 공만 생각하고 공덕을 소홀하게 생각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혜승 스님은 "우리 삼론종 종도들께서 저를 종정 자리에 3번씩이나 추대 했으니 종도들이 많은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제가 먼저 표상이 되겠다"며 "이 소망이 이루어 질 것인가 걱정 반 희망 반이다. 어려운 시기에 종도들을 잘 이끌어 우리 종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혜승 종정 스님은 1963년 충주 대원사에서 우암 스님은 은사로 득도해 1983년 덕암 스님을 법사로 건당했다. 문화원장, 포교원장, 사정원장, 종회의장, 총무원장 등 종단의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했다. 2012년 제4대 종정에 추대돼 제5대 종정에 이어 제6대 종정으로 재추돼됐다. 현재 는 포천 보문정사에 주석하며 후학 양성에 나서고 있다.

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도 봉행사를 통해 "한평생 오직 수행과 중생 포교에 정진해온 혜승 대종사의 종정 연임을 기쁜 마음으로 사부대중에게 고한다"며 "대종사님의 한 평생은 바로 다보 부처님의 삶이었다. 오늘 추대에 부응해 부처님 역시 이 사바세계를 불국정토로 분명 청정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승정원장 진봉 스님도 축사를 통해 "각몽당 큰 스님의 밝으신 혜안과 온후하신 덕성으로 우리 종단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는다"며 "오늘의 종정 취임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태고총림 선암사 선조사 추모다례 개최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주지 시각)는 4월 3일 역대 선조사를 추모하는 추모다례를 봉행했다.

선암사는 매년 봄(음 3월 3일)과 가을(음 9월 9일), 역대 조사들을 추모하는 다례를 봉행하고 있다.

진영당과 응진당에서 봉행한 춘다례에는 태고총림 방장인 지암 스님의 증명과 원로의원 명성 스님, 현호 스님, 시각 스님을 비롯한 소임자 스님들, 문도 스님, 신도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선조사 스님들에 대한 묵념, 주지 시각 스님의 종사영반, 참가 스님과 신도들의 다례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시각 스님은 인사말에서 "매년 다례제를 모실 때마다 선조사님들에 대한 죄송함과 안타까움에 사무쳤지만, 올해는 좀 더 마음이 안정되고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며 "대중스님들이 수행하고 학인들과 행자들이 목표를 정해 공부하는 근간에는 훌륭한 신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총림 선암사 스님들이 추모다례를 봉행하고 있다.


대관음사 유튜브를 통해 강연하는 우학 스님.

한국불교대학, 유튜브 100만 구독 천명

도심포교도량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온라인을 통한 전법 활동으로 불교 포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최근 대관음사는 2019년 비대면 법회를 위해 개설한 유튜브불교대학이 구독자수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불교대학 유튜브는 반응이 뜨거웠다. 유튜브 매체에 대해 낯설어하던 기존 불자들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새로운 불자들이 유입되면서 구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구독자 수 10만 명을 돌파하며 유튜브 측으로부터 실버버튼을 받았다. 이 같은 인기는 매일 새롭게 업로드되는 회주 우학 스님의 생활법문을 비롯해 신행상담, 경전강의, 독경 등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우학 스님의 생활법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일들을 주제로 쉽고 편하게 전하면서 구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관음사의 유튜브 불교대학은 향후 100만 구독자는 물론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불교계 유튜브 채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동문, 울진 성금 전달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는 4월 5일 경북 울진군청을 방문해 울진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위문성금과 생활전화기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위문성금과 전화기는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보시한 것으로 위문성금 300만 원과 생활용품 전화기 100대 등이다.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장 성관 스님(하동 와룡사 주지)은 "불시에 재난을 당한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동문회장 성관 스님, 복지원장 강청 스님, 수석부회장 진일 스님, 부회장 덕연 스님, 사무총장 송운 스님, 경북동부종무원장 지공 스님, 재무국장 성혜 스님, 홍보국장 혜정 스님, 사무처장 지아 스님, 10기 정연 스님 등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중앙강원 동문 스님들이 이재민 돕기에 나섰다.

티베트 자치구서 13人 '게쎄 하람빠' 탄생

400년 전 시작 겔룩파 최고 학위
20년간 강원 교육 후 엄격한 시험
역대 달라이라마 3명만 지닌 자격
강원강사 · 본말사 주지 소임 가능

박영빈 객원기자



새롭게 탄생한 13인의 '게쎄 하람빠' 스님들. 사진출처=중국 서장망

티베트 불교 4대 종단 중 하나인 겔룩파의 최고 학위인 '게쎄 하람빠'가 새롭게 탄생했다. 중국의 '신화통신' '중국 서장망'은 4월 3일, 티베트 비구스님 13명이 라싸에서 열린 시험을 통과하고 게쎄 하람빠 학위를 취득했다고 보도했다.

'게쎄' 학위는 티베트어로 '선지식'을 뜻하며 약 20년간의 전통강원교육 뒤, 토론과 필기시험을 거쳐 본산 방장 스님들의 심사 하에 주어지는 법계다. 400여 년 전 시작된 이 전통은 교학과 수행을 깊이 겸수하는 법맥을 잇기 위하여 겔룩파에서 마련된 제도다. 게쎄학위를 받은 스님들은 각 강원의 강사를 비롯해 본말사 주지 등 주요 소임을 맡는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인명, 아비달마, 중관, 반야, 율장의 5대 경론에 모두 통달해야한다. 게쎄학위는 3단계로 나뉘며 가장 높은 학위가 '하람빠(上士)'로 그 시험이 매우 엄격하고 혹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대 달라이라마 중에서도 게쎄 하람빠 학위를 받은 이는 현 달라이라마를 포함 3명뿐이다. 겔룩파 외의 타 종단들도 '켄뽀(대사)', '로뾘(논사)' 등의 법계제도로 교학의 연찬을 장려하고 있다.

4월 2일 라싸의 조캉사원에서 열린 시험은 아침 8시부터 시작됐다. 응시자와 심사위원들이 함께 1시간 가량 예불을 올리고 9시부터 토론시험이 시작됐다. 응시자들은 티베트 자치구를 비롯해 티베트족 자치구에 산재한 강원에서 전통교육제도를 마친 학인스님들로 지난해 9월 응시자격 시험을 통과한 인재들이다.

3시간에 가까운 치열한 토론 끝에 최종적으로 13인의 스님들이 게쎄 하람빠 학위를 취득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라싸의 쎄라사원에서 응시한 롭상 딱따 스님이 수석을 차지했다. 롭상 스님은 "30여 년 전 고향을 떠나 라싸로 와 공부를 시작했다. 들이나 산에서 소와 양을 치던 소년이 이런 영예를 받을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현재 게쎄학위에 대한 시험과 인증은 인도의 망명 티베트 사찰들의 강원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강원들에서 이뤄지고 있다. 티베트 자치구에서 진행된 이번 시험은 중국정부의 종교위원회가 마련한 시험표준안에 따라 진행됐다. 이 시험에는 티베트어 경전뿐만 아니라 한역경전에 대한 시험도 포함돼 있다. 반면 인도의 강원들에선 전통적인 방식의 자체시험을 진행한다. 2018년 중국정부는 인도에서 게쎄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온 스님들을 인정하지 않고 강원에서 추방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인도에서 게쎄학위를 받은 한 티베트 스님은 "중국의 시험안은 티베트불교와는 교리적 해석이 다른 중국불교의 교학을 비롯해 친공산당 성향의 애국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순수하게 티베트 불교의 교학은 연찬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티베트 자치구의 소식통도 "대부분의 학인스님들이 인도 출신의 게쎄스님들께 배우길 원한다. 중국정부의 시험을 따른 게쎄스님들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미얀마 군부, 100개소 이상 사찰 및 종교시설 파괴

종교시설 반군 숨긴다 의혹일어
민주진영 사찰 파괴 · 스님 체포



이달초 군부의 방화로 파괴된 사찰에서 불에 탄 불상이 방치돼 있다.. 사진출처=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1년 전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 선출된 미얀마 정부를 전복시킨 군부가 미얀마 전역에서 100개소 이상의 불교 및 종교시설을 파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3월 30일,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미얀마 현지의 안타까운 소식을 보도했다.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작년 말부터 군부는 미얀마 중부, 북서부, 남동부에서 민간인 지역에 포격공습을 실시했다"고 전하며 "현재 군부는 모든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 소식을 전하는 비영리 뉴스 웹사이트인 '더 이라와디' 역시 "군부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인해 평화로운 시위와 시민 불복종 캠페인이 무장저항으로 바뀌었다. 국가의 존경을 받는 불교교단들조차 군부의 공격대상이 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인권단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사가잉 지역에서만 최소 30개소, 마그웨 지역에서는 20개소 이상의 사찰들이 군부에 의해 파괴되거나 습격을 받았으며, 민주진영의 스님들이 체포됐다.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우세인 친(Chin) 지역에서는 약 35개의 교회와 15개의 관련시설도 파괴된 것으로 전했다. 군부는 종교시설들이 반군들을 숨겨주고 있다는 의혹만으로 사찰에 불을 놓거나 강제로 건물을 점령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달 초 사가잉 지역의 랫판바우 마을에선 군부가 사찰에 포격을 가해 6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또 2월 말 같은 지역 친폰마을 한 사찰에서는 교리공부를 하기 위해 모여있던 80여 명의 초등학생을 36시간 동안 구금하며 반군을 이끌어 내는 잔학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마을 주민은 "주지스님이 군부군과 협상하기 위해 빈손으로 나아가자 스님에게 총을 겨누고 위협했다"고 증언했다.

민주진영의 출가자 네트워크의 일원인 우 와랴마 스님은 사찰의 파괴와 출가자 체포를 꼬집으며 "군부는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불교와 정법의 수호자라고 주장하며 실제 탑과 사찰을 조성하는 불사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보여주기 식에 불과하다. 군부는 자신들의 정권이 위협이 감지된다면 공격할 의지를 거듭해서 내비쳤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그들은 권력에 위협이 되는 출가자들을 체포하고 살해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얀마의 찰스 마웅 보 추기경은 "종교시설들은 국제적으로 비전투 구역이며, 민간인들이 대피하는 장소이다. 군부는 이를 트집 잡아 반군이 있다는 명목으로 전투가 없는 때에도 교회와 사찰을 포격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지인은 "군부는 의도적으로 종교시설을 공격하는 것이다. 종교를 중심으로 저항하는 시민들의 정신을 파괴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우간다 최초 불교 초등학교 개교

붓다라키타 스님, '평화학교'
시민 무료 교육기회 제공 목표



우간다 최초의 불교 초등학교가 문을 열었다.

불교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 등 외신은 4월 4일 "우간다 최초의 스님인 반테 붓다라키타(Bhante Buddharakkhita)가 이끄는 우간다 불교센터(Uganda Buddhist Centre, UBC)가 최근 불교초등학교를 공식 개교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평화학교'(Peace school)로 불리는 이 학교의 유치원 프로그램에는 24명의 아이들이 등록돼 있다. 아이들은 3~5세 영유아로, 불렝가(Bulenga) 출신이 대부분이다. 3명의 담임교사와 2명의 교직원이 아이들의 교육과 교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우간다불교센터는 "평화학교의 목표는 아이들이 훗날 성실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윤리적인 학습 환경에서 올바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의 내면과 외면의 평화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교 교육에 기반하고 있지만 '모든 인류를 연결하는 보편적 가치'로 설명되는 우분투(UBUNTU) 철학과 같은 전통 아프리카 윤리와 가치도 가르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분투란 아프리카에서 공동체 의식에 바탕을 둔 인간애를 의미한다.

평화학교의 공식 개교는 지난 3월 케냐 주재 태국 대사 사시리트 탕굴라트가 우간다를 방문했을 당시 이뤄졌다. 탕굴라트 대사는 2020년 8월에도 우간다불교센터를 방문, "우간다에 불교 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붓다라키타 스님은 "불교가 아시아에서 멀리 아프리카로 전파된 것이 너무 기쁘다"며 "불교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간다 사람들과 태국 사람들이 불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뻐했다. 이어 "아이들이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66년 우간다 카톨릭 가문에서 태어난 붓타라키타 스님은 1990년 인도 여행 중 처음으로 불교를 접했다. 1993년 명상수행을 시작으로 태국 · 미얀마 등에서 불교를 공부했다.

이후 2002년 캘리포니아의 타타가타 명상센터에서 인도 소승불교 중 상좌부 불교로 출가해 미국 · 브라질 등에서 활동했다. 저서로는 〈불법의 씨앗 : 아프리카에서의 불교의 출현(Dahma Seeds : Sasana Abhiwurdhi Wardhana Society)〉(2006) 등이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인도, 기원전 3세기 석탑 해체보수 착수

문화부 장관 현장 방문
개수 환경 등 개보수도



인도 북부 하리아나(Haryana)주(州) 야무나나가르(Yamunanagar)에 위치한 기원전 3세기 석탑이 해체보수 작업과 함께 개조될 예정이라고 인도 매체 힌두스탄타임즈(the Hindustan Times)가 4월 3일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이날 "지난달 31일 문화부 장관인 디벤더 싱하 바블리(Devender Singh Babli)가 현장을 방문해 관료들에게 석탑 보수를 명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약 100㎡ 크기의 이 석탑은 전 세계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주요 관광 명소이자 하리아나주 내에 있는 39개 국가보호기념물 중 하나다.

석탑 보수와 함께 관광객을 위한 환경 개선도 실시한다. 지역 당국은 "전 세계로부터 찾아오는 불교도들을 위해 유적지 인근에 휴게소를 지으라는 장관 지시가 있었다"며 "앞서 휴게소 건축에 대한 논의가 있어 공사에는 착수했으나 중단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깨끗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수 환경을 갖추는 등 미화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며 "공공사업부에 이미 개보수를 위한 견적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타인에 대한 연민 갖는 것이 치유의 길”





연민은어떻게 삶을고통에서 구하는가

조안 할리팩스 지음
김정숙, 진우기 옮김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오후 햇빛을 등지고 진료소로 돌아온 나는 죽어 가는 할머니 곁에 앉았다. 숨쉬기도 힘들어 하는 노인의 이마에 오른손을 올려놓았다. 다음에는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 곁에 앉았다. 그녀 역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진료소의 하루가 저물어 가며, 찰나의 해변에는 생사의 파도가 오가고 있었다. 마침내 밤이 오자 진료소는 문을 닫았고, 나는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있는 나의 텐트로 돌아왔다. 나의 삶은 뭍 생명 곁에 있는 작은 배처럼 느껴졌다. 그 생명들은 배움을 주기 위해 우리 곁에 왔다. 히말라야의 어둠과 침묵 속에서 나는 잠이 들었다.”

‘치유’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다. 각박한 인간관계, 살벌한 경쟁, 팍팍한 삶으로 인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이 시대의 지상 과제다. 치유를 위한 해결책으로 흔히 제시되는 것이 ‘이기적이 되라’이다. 이것저것 눈치 보며 타인을 배려할 것 없이 나부터 생각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필연적으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이기적이 되라’가 과연 진정한 치유의 길이 될 수 있을까? 타인의 존재에서 눈을 돌려 버리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인 조안 할리팩스(Joan Halifax)는 세계적인 선승이자 미국 참여 불교의 대가인 동시에 의료 인류학자다. 저자는 ‘이기적이 되라’와는 반대되는 것, 즉 타인에 대한 연민을 가질 것을 치유의 길로 제시한다.

저자는 연민에 기반해 이타심을 발휘하고, 타인에게 공감하며, 도덕적 진정성을 갖고, 타인을 존중하며, 타인을 위해 뭔가를 하라고 주문한다. 때로 우리는 그러한 과정에서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타인과의 깊은 유대를 인식하는 연민의 마음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연민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부터 스스로를 치유할 힘을 얻는다. 나아가 우리는 모든 존재와 사물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드넓은 관점, 그리고 삶과 죽음을 여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된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자기 치유의 수단이 되는 시대에 조안 할리팩스의 권유는 이상적인 꿈같기도 동화 같기도 하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저자의 생애는 타인을 향한 연민의 여정이었다. 그 것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신경 과학적인 탐구이기도 했고, 죽어가는 이들의 삶과 사형수들의 삶과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치열한 실천이기도 했다. 그 기나긴 여정을 통해 저자는 타인을 향한 연민이야말로 자기를 치유하고 나아가 이 세상을 치유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몸소 입증해 왔다.

이 책은 다섯 가지 인간적인 자질, 즉 이타심 · 공감 · 진정성 · 존중 · 참여를 통해 연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성찰한다. 이타심, 공감, 진정성, 존중과 참여는 타인과 어울려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자질들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 먼저 ‘이타심’은 ‘병적 이타심’으로 바뀔 수 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심 없는 행동은 사회와 자연계의 행복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때로는 자신을 해하거나, 봉사하려는 사람들을 해하거나, 봉사하는 기관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공감’은 ‘공감 스트레스’로 변할 수 있다. 타인의 고통을 감지할 수 있을 때, 그 공감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영감을 얻으며 나아가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도 있다. 하지만 타인의 고통에 지나치게 감정이입 되어 자신을 그것과 너무 강하게 동일시한다면, 우리 자신이 피해 입고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게 된다. ‘진정성’은 강한 도덕적 원칙을 말한다.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진정성, 정의, 선행에 위배되는 행동에 관여하거나 그런 행동을 목격하게 되면, ‘도덕적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

저자는 세계적 선승 출신이자
미국 참여 불교의 대가이기도
“스트레스와 번 아웃의 끝에서
고립과 단절로 자기 방어하는
사람들의 치유는 연민에 있다”

‘존중’은 존재와 사물을 받드는 방법이다. 하지만 가치관과 예의라는 우리의 원칙을 어기고 자신과 타인을 경시할 때, 존중은 ‘무시’로 바뀔 수 있다. ‘참여’는 삶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일 때 특히 그러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 과로, 유해한 직장 환경, 효율성 부족이 개입되면 참여는 ‘소진(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선량한 존재인 인간은 이 다섯 가지 자질을 실천하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량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타인과 세상에 대해 거리를 두고 고개를 돌리게 된다.

이타심 공감 진정성 존중 참여라는 이 다섯 가지 자질이 발현하는 기반은 연민이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그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욕구로 정의될 수 있다. 분리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모든 존재와 모든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보편적 연민은 무르익는다. 연민은 우리로 하여금 이 다섯가지 인간적 자질을 꿋꿋이 실천하며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 또한 이 다섯 가지 자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과 보람을 회복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 연민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속도와 성과를 중시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타인에 대한 연민을 가질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타인에게 연민을 발휘하다가 스스로 상처를 입게 될 가능성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주의를 모으기’ ‘의도를 상기하기’ ‘자신에게 조율한 후 타인에게 조율하기’ ‘무엇이 도움이 될지 숙고하기’ ‘참여한 후 상호 작용 끝내기’라는 다섯 가지 간단한 실천을 통해 일상의 삶 속에서 연민의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 저자는 “베네딕토회 수사 토마스 머튼에 따르면 연민의 전체 개념은 살아 있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일부가 되고 서로에게 관여하는 상호 의존성에 관한 민감한 알아차림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머튼의 심오한 관점은 모든 생명을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얽혀 있으며 서로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는 통찰력을 암시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지 않고 사심 없는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이것이 바로 원칙에 입각한 연민”이라고 설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연민은 용기, 사랑 그리고 모든 존재와 사물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존중에 바탕을 둔 명확한 도덕적 토대를 가진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오늘날 왜 연민이 필요한지에 대한 해답을 이 책은 분명히 전해준다.

▲저자 **조안 할리팩스**는?

세계적인 선사(禪師)이자 의료 인류학자로서 임종 돌봄 의료 분야의 선구자다. 1973년에 의료 인류학 박사를 취득하고, 하버드대 신학 대학과 의과 대학, 조지타운대 의과 대학 등에서 죽음에 관한 교육을 해 왔다. 미국 산타페에 불교 연구와 사회 운동을 위한 ‘우파야 연구소 및 젠 센터(Upaya Institute and Zen Center)’를 설립해, 50년 넘게 참여 불교의 길을 걷고 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보살피는 임상 역량을 개발시키기 위해 의료 전문가를 훈련시키는 ‘죽음과 함께 하는 삶’ 프로젝트의 창안자이기도 하다. 1970년대에 숭산 스님의 제자였고, 그 후 틱낫한 스님으로부터 법등(法燈)을 전수받았다. 또한 저명한 서구 선 불교 지도자인 버니 글래스맨(Bernie Glassman) 선사로부터도 법등을 전수받았다. 〈죽음을 명상하다〉 등 여러 권의 저서가 있다.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삶?
마음 쓰는 대로 펼쳐지는 것이 삶이다!



정신과 의사, 최훈동 원장이 전하는
깨달음의 길 숙고 명상
최훈동 지음 | 248쪽 | 15,500원

불교와 명상, 심리 치료는 하나다!
불교를 심리 치료적 견지에서 새롭게 해석한 역저
싯다르타의 깨달음의 여정에 따라 행복에 이르는 길

최훈동
마음 전문가. 서울대의대 외래교수로 25년간 정신 치료를 지도하고, 휴앤심 연구소에서 종교와 정신의학, 명상과 심리치료를 아우른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 『내 마음을 안아주는 명상 연습』, 『정신의학 이야기』, 『나를 넘어선 나』 등이 있다.

가까운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02)765-1251 담앤북스

저자와 함께 하는 숙고 명상 워크숍

명상은 관련 책을 백 권 읽는 것보다,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깊은 사유와 깨달음을 통해 삶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는 숙고 명상의 여정에 초대합니다.

| 일시 | 2022년 4월 30일(토), 5월 1일(일), 7일(토), 8일(일) 총 4회
토요일 오후 2시 30분 ~ 6시, 일요일 오후 2시 ~ 5시 30분

| 교재 | 깨달음의 길 숙고 명상

| 수업 내용 | 명상 안내, 명상 실습, 숙고록 작성(1:1 피드백 제공)
1회 명상 입문, 집중 관찰 명상 2회 호흡 명상, 숙고 명상1
3회 호흡 명상, 숙고 명상2 4회 자비 명상, 무아 명상
* 1회 또는 전체 참가 가능합니다.
* 각 회기는 독립적으로 진행하되 회를 거듭할수록 점층적으로 심화됩니다.

| 참가비 | 대면 1회 8만 원, 4회 30만 원
비대면 1회 5만 원, 4회 18만 원 *선착순 모집

| 참가 신청 및 문의 | ungang817@naver.com
*신청 시 성명, 연락처, 참석 희망 일자를 기재해 주세요.

승·속 경계 넘나든 무애의 '禪畵'

중광 작고 20주기 특별전
'예술의 원점 · 중광과 다섯 광화사(狂畵師)'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4월 16일~6월 2일

갤러리미 소장 1979~1980년초 작품 56점 전시
다섯 광화사 '狂氣'로 관찰한 '예술의 원점' 주제
엇갈린 평가 '중광'의 삶 · 예술세계 재조명 기회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걸레스님' 으로 불리며 독보적 화풍으로 한국선화의 지평을 넓혔던 중광(1935~2002)의 작고 20주기를 추모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4월 16일부터 6월 2일까지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3층에서 열리는 2022 중광 작고 20주기 특별전 '예술의 원점 · 중광과 다섯 狂畵師' 이다.

생전 중광과 교류가 깊었던 김태정, 이존수, 조부수, 한농, 육심영 작가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는 이번 전시는 갤러리미(관장 이란영)가 주최하는 전시로 '동자' 등 갤러리미가 소장한 중광의 1979~1980년초 구작 56점을 선보인다.

선(禪)을 코드로 성과 속, 무법과 유법, 동양과 서양을 넘다든 중광의 삶과 예술세계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김태정, 이존수, 조부수, 한농, 육심영 다섯 광화사가 비추는 예술의 원점을 '광기(狂氣)' 라는 키워드로 들여다본다.

중광이 원형의 파괴에서 나오는 파경의 예술을 정직이라는 이름의 무애로 실천했다면 육심영은 '고대의 동양적 주제를 동시대 회화로 이행시킴으로써 시간적 문화적 틈을 획기적으로 메워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존수는 한국인의 집단무의식에 깔린 원초적 심상을 우주적인 근원체험과 전통문화와의 해후로 그려냈다. 그런가하면 한농은 아무 색도 형태도 없는 무(無) 아닌 무(無)에서 작가의 느낌과 생각이 모아져 유(有) 아닌 유로 서로 연결했다. 조부수의 화필은 우주의 혼돈상태부터 삼라만상의 지구의 모습은 물론 지구 내부의 맨틀까지 적 · 청 · 흑의 색깔로 그려냈고, 김태정은 서예와 그림의 본질까지 소멸시킴으로써 더 높은 차원에서 모호함을 키워드로 한 새로운 비전을 찾아냈다.

중광의 작업은 서화(書畫), 유화(油畫)는 물론 입체의 도자, 액션페인팅, 시문(詩文)과 영화까지 전방위적인 것으로, 예술에 있어 성과 속, 동과 서의 경계를 허물었다고 할 수 있다.

"미술에 현대미술이니 고대미술이니 하는 것이 따로 없다. 우리가 구분하니까 현대미술이니 고대미술이니, 서양화니 동양화니 한다. 고대에 이미 현대미술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이 있었다. 지금 사람들이 문자나 글에 얽매여 그렇지,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이고, 그것이 대번에 나타난다. 예술은 기교가 아니라 혼이고 언어이다. 표출해 내는 것이다. 그것은 사상이 정립되어야 나온다. 〈중략〉 원형에서 추상으로, 추상의 마지막에 들어가면 원형으로 다시 복귀하게 된다. 원형을 파괴하면 파격의 예술이 나온다. 이쯤 되면 경지에 이른다. 경지가 바로 도(道)요 진리이다." - 〈나는 똥이올시다〉 중.

이와 같이 중광의 '무애' 는 그의 삶과 예술을 관통하는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다. 얽매임이 없는 중광의 이런 모습은 때론 천진난만하게, 때론 파격적으로 보인다.


달마2_chinese ink &color on korean paper_1981_128x69c_60호


용약_chinese ink &color on korean paper_1981_136x69c_60호

하지만 이런 모습은 늘 한결같다. 작품 '동자(童子)' No.17을 보면, 작품의 소재는 갈대와 동자다. 여기서 동자는 보는 사람에 따라 '어머니' 로도 해석된다. 말하자면 '갈대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달마' 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낸 작품이다.

여기서 중광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능력은 기존의 달마를 동자와 어머니로 뒤바꾼 '사건' 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셀 뒤상의 '변기' 가 연상되는 대목으로, 중광의 달마는 전복적인 조형언어의 구사라는 점에서 차별된다고 하겠다. 예닐곱 개의 초간단 필획과 스트록으로 각중에 서화일체로 형상화된다. 하지만 모든 작품의 구도, 얼개, 골격, 짜임새가 모두 다르다. 한마디로 인드라망과 같은 '일즉다 다즉일' 의 미의 질서가 중광의 붓을 통해 삼천대천세계와 같은 화면에 훤하게 드러난다.

랭카스터 교수가 "중광은 대화가 인습적인 대화의 노선을 따르게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달마화술' 을 이용하여 우리의 상호교감을 선(禪)의 공안에 용해시킨다. 이러한 상호교감을 통해서 스승은 그의 제자를 제약하는 이성의 메카니즘(기계적)을 내팽개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고 한 그대로를 조형언어로 치환시켜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닐곱 번의 필획과 스트록이 전부라는 사실이다. 그야말로 전광석화와 같이 단숨에, 일필휘지로 심상, 즉 이미지를 화면에 현현시키는 것이다. 이 지점의 필획에서 그림 이전에 펄떡이는 중광의 호흡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광기, 즉 원기, 에너지의 근원을 시추하여 적나라하게 시각화해내는 것이다.

여기서 중광의 선(禪)은 기(氣)이다. 그것도 전광석화와 같은 일기(一氣)이다. 더 피부에 와 닿도록 말하면 한 마디로 두 마음이 아닌 하나의 마음으로서 정직(正直)이다.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중광은 화단의 이단아이자 파계승으로서 그의 화업은 생존 당시 극과 극의 평가로 엇갈렸다. 지금까지도 중광의 예술적 성취에 대한 평가는 중광 개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작품 장르나 주제 간의 유기적인 관계 속의 이해보다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평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성(性)이나 선(禪) 등 그의 작품 속 주제들은 터부와 본성 그리고 확장성 등에서 늘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문제들로 중광 예술의 사회적 평가는 다양해진다고 하겠다.

중광은 1960년 26세 때 양산 통도사에서 출가했으나 계율에 얽매이지 않는 기행으로 인해 1979년 환속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화업은 승 · 속의 경계와 상관없는 것이었다. 독보적인 화풍으로 국내외적으로 높은 관심과 평가를 받았다. 1977년 영국 왕립 아시아학회에 참석해 '나는 걸레' 라는 자작시를 낭송한 것을 계기로 '걸레스님' 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1979년 중광을 주인공으로 한 랭카스터 교수(미국 버클리대)의 저서 〈광승〉이 발표되면서 '한국의 피카소' 로 불리기도 했다. 1998년부터는 설악산 백담사로 들어가 달마도에 몰두했으며, 백담사의 오현 스님으로부터 '바위처럼 벙어리가 되어라' 는 뜻의 법호 '농암(聾庵)' 을 받았다. 2000년 10월 서울 가나아트센터에서 마지막 전시 '중광 달마전 괜히 왔다 간다' 를 열었다. 2002년 3월 9일 타계했으며, 양산 통도사에서 다비했다.

김수용 감독의 '허튼 소리' , 이두용 감독의 '청송으로 가는 길' 등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으며, 저서로 〈나는 똥이올시다〉〈허튼 소리〉〈벙어리 절간 이야기〉 등과 시인 천상병, 소설가 이외수와 함께 펴낸 〈도적놈 셋이서〉(1989) 등이 있다.


목조대일여래좌상,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불교조각으로 만나는 일본불교 면면들

국립중앙박물관, 10월 9일까지
도쿄博 소장 불교조각 공개
밀교 등 日불교 특징 한눈에

불교미술을 통해 일본불교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진행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은 "4월 5일부터 세계문화관 일본실에서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불교조각품 5점을 특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불교미술은 초기에는 한국과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나 9세기부터는 일본의 독자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 무렵부터 주문과 의식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밀교(密敎)와 서쪽의 극락정토(極樂淨土)에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비는 정토교(淨土敎) 신앙이 성행했다. 일본 고유의 신앙과 불교가 합해진 신불습합(神佛習合) 또한 한국과 중국에서는 없는 일본의 독특한 불교문화이다.

이번에 소개되는 목조대일여래 등의 불상들은 밀교 · 정토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불상들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는 일본 불교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밀교, 정토교, 신불습합의 불교조각품으로 구성됐다. 일본 불교 조각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먼 바다를 건너 우리를 찾아온 부처와 만나, 그 염원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은 세계문화관 인도 · 동남아시아실의 전시품도 일부 교체했다.

자이나교 신도들의 순례 체험을 위한 그림과 인도의 대표 서사시 〈라마야나〉의 한 장면을 그린 그림 등을 선보인다. 또한, 동남아시아 불교조각 코너를 14~15세기 티베트와 네팔 등 히말라야 지역의 불교조각으로 교체해 다양한 지역의 불교조각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상설전시관 3층에 위치한 세계문화관은 연중 무료 관람이며,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일본 불교조각품 특별 공개는 내년 10월 9일까지 계속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一乘圓音’ 한국 범종 총망라하다

최응천 동국대 교수, 〈한국의 범종〉 출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표 法具 범종 연구 결정체
통일신라~현대 363점 정리
41점 종소리 QR코드로 담아
상세목록 · 명문 수록 의미 커
‘한국 범종 백과사전’으로 평가

“신종을 매달아 놓아 일승의 원음을 깨닫고자 하니라.”(懸擧神鐘 悟一乘之圓音)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성덕대왕신종의 명문 중 일부다. 신종을 달아 ‘일승의 원음(一乘之圓音)’, 즉 부처님의 설법을 만백성에게 듣게 하겠다는 의미다. 이처럼 한국의 범종은 종소리로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는 대표적 법구다.

“종소리로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겠다”고 서원했으니 우리 선조들은 범종을 만드는 데 ‘진심’이었다. 중국과 일본의 종들은 ‘사형주물법’을 사용해 전반적으로 문양이 없거나 거칠며, 종의 두께가 두꺼워 종소리가 투박하다. 하지만 한국의 범종은 밀랍주조 공법을 사용해 조형적으로 아름답고 음통이 있어 소리도 은은하고 아름답다. 조형미와 실용성을 모두 구축한 성보이자 한국금속공예사의 결정체인 것이다.

금속공예 연구 전문가로 잘 알려진 최응천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동국대 박물관장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가 최근 발간한 〈한국의 범종: 천년을 이어온 깨우침의 소리〉는 ‘범종’의 모든 것을 망라한 학술서다.

소중한 문화유산이지만, 남겨진 범종의 수가 한정적이고 북한과 일본 등지에 개인 소장의 형태로도 산재하고 있어 그간 한국 범종의 정확한 숫자나 상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금속공예 전문가로서 오랜 시간 범종을 연구해온 저자는 한국과 북한은 물론 일본, 미국, 프랑스 등 국내외 소재 한국 종의 현황을 꾸준히 조사해왔다. 이 같은 조사 · 연구 성과를 한데 묶어 정리한 것이 〈한국의 범종〉이다.


국보 성덕대왕신종. 한국 범종 중 가장 크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가 범종과 인연을 맺은 것은 대학교 1학년 당시 1장당 500원씩 받는 아르바이트로 실상사 파종의 FRP 복제본 주악비천상을 탁본하면서부터다. 이후 1989년 일본 후쿠오카시립박물관 개관 때 유물관리관으로 머물면서 아카즈키(秋月)성터 지하에서 발견된 고려 범종을 조사하며 두 번째 인연을 이어갔고, 이것이 계기가 돼 일본 전역에 흩어진 한국 범종을 10년간 조사했다.

저자의 평생 연구 성과가 오롯이 담긴 만큼 〈한국의 범종〉은 ‘한국 범종 백과사전’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한국 범종의 개괄부터 주요 작품에 대한 분석, 목록까지 모두 담아내고 있어서다.

책은 크게 제1부와 제2부, 그리고 부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한국 범종의 특성과 시대별 변천을 정리하고 구조와 각 부분의 명칭, 주조법 등을 설명한다. 제2부에서는 개별 범종 작품 각각의 특징과 역사적 의미를 풍부한 이미지와 함께 살펴본다. 그리고 부록에선 각 종의 명문을 비롯해 363점에 이르는 국내외 한국 범종의 상세목록을 소개한다.

특히 제2부는 아카이브 형식을 따랐으며, 총 59장에 걸쳐 한국 범종 역사에서 특별한 지점을 차지하는 작품들을 선별해 자세히 들여다본다. 명문을 풀이해 조성 내력을 설명하고, 용두와 음통, 종신의 문양 등 전통을 이어받은 부분과 새로운 시도를 알려주면서 종소리를 포함해 각 작품의 특징을 하나씩 짚어준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저자가 직접 촬영했거나 소장하고 있던 희귀한 상세 이미지를 풍부하게 곁들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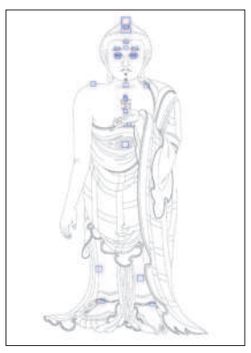
또한 성덕대왕신종, 보신각종과 같이 이제는 타종을 멈춘 종이나 낙산사 종처럼 소실된 종 등 41점에 이르는 한국 범종의 종소리 QR코드를 수록했다는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향후 최 교수는 일본 소재 한국 범종을 망라하는 학술서를 계획 중이다. 그는 “일본 소재 한국 범종을 망라하는 책을 계획 중에 있다. 최종적으로는 한국 범종 전체를 시대별로 개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보물 운흥사 괘불탱서 梵字 150자 확인”

문화재청 · 성보문화재硏
‘대형불화 조사보고서’

머리 · 미간 등서 범자 확인
“점안통해 佛寶 거듭 의미”
국보 · 보물 괘불 조사 담아



보물 운흥사 괘불탱 주존에 그려진 범자 위치(사진 왼쪽)와 운흥사 괘불탱 범자 세부 모습.(사진 오른쪽)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운흥사 괘불탱에서 고대 인도문자인 범자(梵字)가 150자가 확인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과 (사)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현문)은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의 2021년 성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형불화인 괘불탱을 전수 조사하는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갑사 삼신불 괘불탱(국보) △율곡사 괘불탱(보물) △금당사 괘불탱(보물) △운흥사 괘불탱 및 궤(보물) △용흥사 삼불회 괘불탱(보물) △안국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보물) 등 7건이 조사됐다.

조사 결과 ‘운흥사 괘불탱’에서는 불화 각 존상의 머리 · 미간 · 눈 · 눈동자 · 눈꺼풀 · 거슴 등 곳곳에서 범자 150여 자가 확인됐으며, 화면 뒤편 후배지에서도 진언으로 기록한 범자와 다라니 판본을 붙여 놓은 것이 확인됐다.

불보살 존상 곳곳에 범자를 적은 것은 불상과 불화 등 신앙의 대상에 부처의 영험과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한 점안(點眼)의 의미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존상의 신체에 범자를 적는 것은 점필(點筆, 점안을 의미)과 관련이 있다. 점필은 새롭게 조성된 불보살 모두 존귀한 상호를 구비하여 예배의 대상으로 위의를 갖추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새로 조성한 불상에 종자(種子) 범자를 안포하여 불보(佛寶)로 거듭나게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운흥사 괘불탱을 감싸놓은 직물은 원래 탁의(卓衣)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안국사 영산회 괘불탱’은 바탕재인 삼베를 세로로 길게 이어 화면을 구성했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그린 다음 합쳐서 배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결한 부분에서 상하부의 필선과 문양이 어긋나 있고, 채색 차이를 보여 대형불화 제작에 있어 분업화의 한 흔적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가 보물로 지정된 것도 이번 사업의 주요한 성과다. 문화재청은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은 매년 지방 및 비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발굴해 대형불화의 가치 제고와 보존 · 관리에 힘쓰고 있다”며 “매년 6건씩의 대형불화를 조사해 향후 2030년까지 전국에 있는 대형불화(괘불도)를 모두 집대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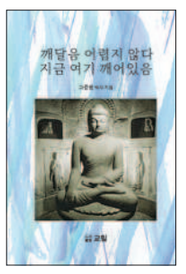
한편, 발간된 보고서는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을 통해 공개됐으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깨달음 대한 老교수의 강의록

고준환 박사 〈깨달음 어렵지 않다…〉서 ‘원력’ 강조

재가불자들의 깨달음을 위한 불교교육을 이끌어 온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가 〈깨달음 어렵지 않다 지금 여기 깨어 있음〉을 출간했다.



고 명예교수는 2011년 본각선교원을 개원해 불교 대중화를 발원했다. 하지만 2014년 신장암과 폐암으로 생사의 고비에 부임했다. 요양 생활에서 수행에 매진한 고 교수는 수많은 경전과 선어록을 보며 일종의 몸과 마음이 합일되는 느낌을 받는다. 다시 건강이 좋아진 고 명예교수는 코로나가 한창인 2020년 보다 열정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본각선교원 불교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깨달음 어렵지 않다 지금 여기〉에는 고 명예교수가 최근 10여 년간의 일련의 과정에서 느낀 ‘깨달음’에 대한 일종의 ‘원력’이 담겨있다.

이번 책에는 총 61화로 나눠 고 명예교수가 수행과정과 선지식들에 대한 탐구에서 느낀 점을 소상히 담았다.

고 명예교수가 이 책에서 말하는 바는 “깨달음은 누구나 가능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 명예교수는 “자기가 혼자 깨달을 수 있다면 무소의 뿔처럼 홀로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참된 선지식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고 명예교수는 수행기간 선어록 등을 공부하며 직접 선원을 찾아다니며 법거량했다. 고 명예교수는 끝으로 “우리는 이분법을 떠나 분별자재하며, 10바라밀로 업장을 녹이고 자비공덕을 쌓아야 한다. 새로운 것에 익숙하고 과거 익숙한 것에 멀어지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61

▶ 62회 예고
수시마 부왕비는 갓난아기 니그로다를 안고 천민촌으로 피신한다. 마침내 중병을 앓아오던 빈두사라왕이 죽는다. 수시마 부왕 편에 섰던 친위대장이 자살하고, 왕자 다섯 명은 살해된다. 아쇼까는 자연스럽게 마우리아왕국의 왕이 된다.



아쇼까, 부왕에게 왕권 넘겨받다

친위대 조장이 탁실라로 떠난 지 두 달을 넘기자,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은 친위대장이었다. 수시마 부왕이 와야만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빈두사라왕에게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칼라따까 수상이나 라다굽따 제관도 친위대 조장을 초조하게 기다리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속셈은 전혀 달랐다. 그들은 수시마 부왕이 오지 않기를 바랐는데 그래야만 아쇼까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어서였다.

빈두사라왕은 하루가 다르게 병세가 악화되었다. 정궁 집무실에 보관하던 국새를 침전의 침실 머리맡에 갖다놓고 있을 정도였다. 왕권을 상징하는 것 중에 국새만한 것은 없었다. 국새를 보관한 조그만 상자 뚜껑에는 마우리아국 국조(國鳥)인 공작새 두 마리가 음각돼 있었다. 칼라따까나 라다굽따, 그리고 친위대장과 수시마 부왕비는 우두머리 궁중의원에게 매달렸다. 그가 진단하는 소견에 따라 일희일비했다. 그날도 우두머리 궁중의원이 빈두사라왕 침실에서 나오자, 침전 회랑에서 대기하고 있던 대신들이 우르르 몰려가 물었다.

"대왕님은 어떠시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오."

"아무 것도 드시지 못하시니 의원으로서 한계를 절감합니다."

"대왕님께서 의식이 분명하시다니 곧 일어나실 것 같소만 특단의 치료는 없는 것이오?"

"음식은 물론 물도 못 드신 지 보름도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이 맑으신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우두머리 궁중의원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음식과 물을 끊은 지 보름도 더 지났지만 마치 몸과 정신이 분리된 것처럼 빈두사라왕의 의식은 아직까지도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궁중의원이 급히 침전을 나간 뒤 칼라따까와 라다굽따, 친위대장은 침전에 딸린 다실에서 구수회의를 했다. 칼라따까가 말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오. 수시마 부왕께서 언제 빠딸리뿌뜨라에 도착할지 모르오. 그때까지 아쇼까 부왕이 왕권을 대리할 수 있도록 대왕님께 허락받는 것이 어떻겠소?"

"궁중의원이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했소. 무슨 뜻이겠소? 만에 하나 왕권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니 칼라따까 수상님의 의견에 나는 동의하오."

칼라따까나 라다굽따가 왕위는 수시마 부왕이 잇도록 하되 잠시만 아쇼까 부왕에게 왕권을 맡기자고 하는 의견에 친위대장이 반대했다.

"수시마 부왕님께서 오늘 도착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왕권을 아쇼까 부왕님께 잠시 넘긴다면 두 형제간의 우애를 깨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칼라따까가 친위대장을 설득했다.

"궁중의원의 말을 믿어야 하오. 그러니 단 하루라도 왕권의 공백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오. 수시마 부왕님께서 빠딸리뿌뜨라에 오늘 내일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말이오."

"소장이 알기로는 대왕님의 뜻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대왕님의 뜻을 잘 알고 있소. 다만 수시마 부왕님의 도착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비하자는 것이지 대왕님의 뜻을 거스를 생각은 추호도 없소."

"소장은 여기서 뭐라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수상님께서 대왕님의 허락을 받으신다면 소장은 따르겠습니다."

"나를 믿어주니 고맙소. 나와 제관님이 대왕님을 알현해서 건의해 보겠소."

친위대장은 짜이를 마시지 않고 일어났다.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분하게 여기고는 다실을 나가버렸다. 그러나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짜이를 느긋하게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왕님 침실에 들어가 허락받는 일만 남았소."

그날 오후.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우두머리 궁중의원을 따라서 빈두사왕의 침실로 따라 들어갔다. 빈두사라왕은 탈진한 사람처럼 누운 채 꼼짝을 않고 있었다. 칼라따까와 라다굽따가 가까이 다가가 신분을 밝히자 눈을 껌벅거렸다가 감았다. 우두머리 궁중의원이 말했다.

"대왕님께서는 두 분을 알아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드려도 되겠소?"

"의식은 분명하시니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대왕님 귀에 대고 말씀하십시오."

칼라따까가 무릎을 꿇은 채 말했다.

"대왕님,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시마 부왕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수시마 부왕이란 말에 빈두사라왕이 눈을 떴다. 그러나 눈동자가 천정을 응시할 뿐 칼라따까를 보지는 않았다.

"다만 수시마 부왕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보고입니다. 수시마 부왕님이 오실 때까지 아쇼카 부왕이 대왕님 곁에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다굽따도 한 마디 했다.

"수시마 부왕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제야 빈두사라왕이 두 사람을 확인하듯 바라보고는 고개를 좌우로 힘겹게 흔들었다. 허락한다는 뜻이었다. 그래도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빈두사라왕이 입으로 허락해주기를 기다렸다. 우두머리 궁중의원도 거들었다. 빈두사라왕의 팔을 주무르며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수상님과 제관님께 말씀하소서."

한참 만에 빈두사라왕이 분명한 발음으로 말했다.



"아쇼까를 믿는다. 수시마 형을 도울 것이라고..."

칼라따까는 준비해간 문서를 빈두사라왕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우두머리 궁중의원이 빈두사라왕에게 읽어주라고 말했다.

"지금 대왕님께서는 문서를 보시기보다는 듣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칼라따까가 문서를 또박또박 읽었다. 자신과 라다굽따가 작성한 문서에는 '이 시간 이후부터 수시마 부왕이 빠딸리뿌뜨라 왕궁에 올 때까지만 아쇼까 부왕이 빈두사라왕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우리아왕국을 통치한다.' 라고 쓰여 있었다. 칼라따까가 문서를 다 읽고 나자, 빈두사라왕이 머리맡에 둔 작은 국새 상자를 손짓으로 가리켰다. 그러자 우두머리 궁중의원이 국새 상자를 들고 칼라따까에게 건네주었다. 그 순간 빈두사라왕의 눈가에는 눈물이 비쳤다. 우두머리 궁중의원이 얼른 다가가 빈두사라왕의 머리를 바르게 해주었다.

칼라따까는 국새를 꺼내들고 문서 끝에 찍었다. 이제 왕권은 아쇼까에게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문서를 들고 다르마 왕비별궁으로 달려갔다. 아쇼까에게 문서를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아쇼까는 다르마 왕비별궁에 없었다. 동생 비가따쇼까를 데리고 강가강으로 나가 목욕을 하고 있었다.

한편, 친위대 조장 일행은 빠딸리뿌뜨라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오고 있었다. 웨살리까지 왔지만 친위대 조장은 왕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 것도 몰랐다. 웨살리는 빠딸리뿌뜨라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큰 도시였다. 친위대 조장 일행은 밤새 완고한 안개를 뚫고 달렸다.

"남서쪽으로 달려라!"

다음날 새벽. 친위대 조장 일행은 예정대로 빠딸리뿌뜨라에 입성했다. 친위대 조장은 외성 성문을 지나 내성으로 들어가 꾸날라를 다르마 왕비별궁으로 보낸 뒤, 친위대 기병들은 내성 군막에서 푹 쉬게 하고 자신은 칼라따까 저택으로 갔다. 안개가 날벌레처럼 눈썹에 달라붙었다. 친위대 조장은 말에서 내려 잠입하듯 걸었다. 칼라따까 저택 2층은 불이 켜져 있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정문을 지키던 하인이 다가와 친위대 조장임을 알아보고는 문을 열어주었다.

"수상님은 어디 계신가?"

"2층에 계십니다."

친위대 조장은 하인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발을 디딜 때마다 나무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칼라따까가 벌떡 일어나서 친위대 조장의 두 손을 맞잡았다. 칼라따까의 첫 일성은 수시마 부왕의 행방이었다.

"수시마 부왕님은 여전히 탁실라에 계시겠지?"

"아닙니다. 오시다가 급사하셨습니다. 아침으로 꾸날라 왕세자님과 공작새 커리를 드시고 난 뒤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꾸날라 왕세자님은 무사하신가?"

"이곳에 도착한 뒤 바로 다르마 왕비님 별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잘했네. 수시마 부왕님 시신은 어디에 있는가?"

"야무나강 상류에서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잘 했네. 그런데 꾸날라 왕세자님과 같은 커리를 드셨는데 어째서 수시마 부왕님만 돌아가셨다는 것인가?"

"탁실라 특사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했습니다."

"음, 그래서 특사는 내 복심 중에 복심이지."

칼라따까는 단 번에 직감하고는 오히려 친위대 조장에게 입단속을 지시했다.

"이 일을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네. 알겠는가?"

"제 입으로 말할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수상님. 이제 친위대장께 보고해야 합니다."

"대장은 항시 대왕님 침전에 있네. 어서 가보게. 나를 만났다는 말은 하지 말고."

"대장님은 바보같이 아직도 저를 믿고 있습니다."

친위대 조장이 야릇한 웃음을 흘리면서 일어났다. 직속상관인 친위대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그의 직무였다. 장막 같은 안개 때문에 왕궁 안의 길들이 잠시 헷갈렸지만 친위대 조장은 곧 침전으로 향했다. 마침 침전 밖을 순시하고 있던 친위대장이 친위대 조장을 보고는 달려왔다.

"대장님, 방금 내성에 도착했습니다."

"수시마 부왕님은 아직 이곳에 오시지 않았는데?"

친위대 조장이 바로 대답하지 못하자 친위대장이 다그쳤다.

"사고인가?"

"예, 오시다가 옛 꾸루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날벼락이 있나."

친위대장은 한 동안 말을 못했다. 왜 돌아가셨는지,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묻지 못했다. 당황한 채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얼마나 허둥대는지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이 이리 저리 흔들거렸다.

"대장님, 고정하십시오."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난 지금 다녀올 데가 있네."

친위대장이 급히 자리를 떴다. 친위대장이 달려간 곳은 수시마 부왕비가 사는 별궁이었다. 수시마 부왕이 죽었으니 부왕비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몰랐다. 그렇다면 수시마의 아들 니그로다를 살려두어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친위대장은 수시마 부왕비와 갓난아기 니그로다가 살아남으려면 외성 밖의 천민촌에 숨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 판단이 들자 친위대장의 마음은 더 조급해졌다. 친위대장은 말을 타고 수시마 부왕비 별궁으로 달렸다. 몰려오는 안개 때문에 말발굽 소리가 더 크고 길게 공명했다.〈계속〉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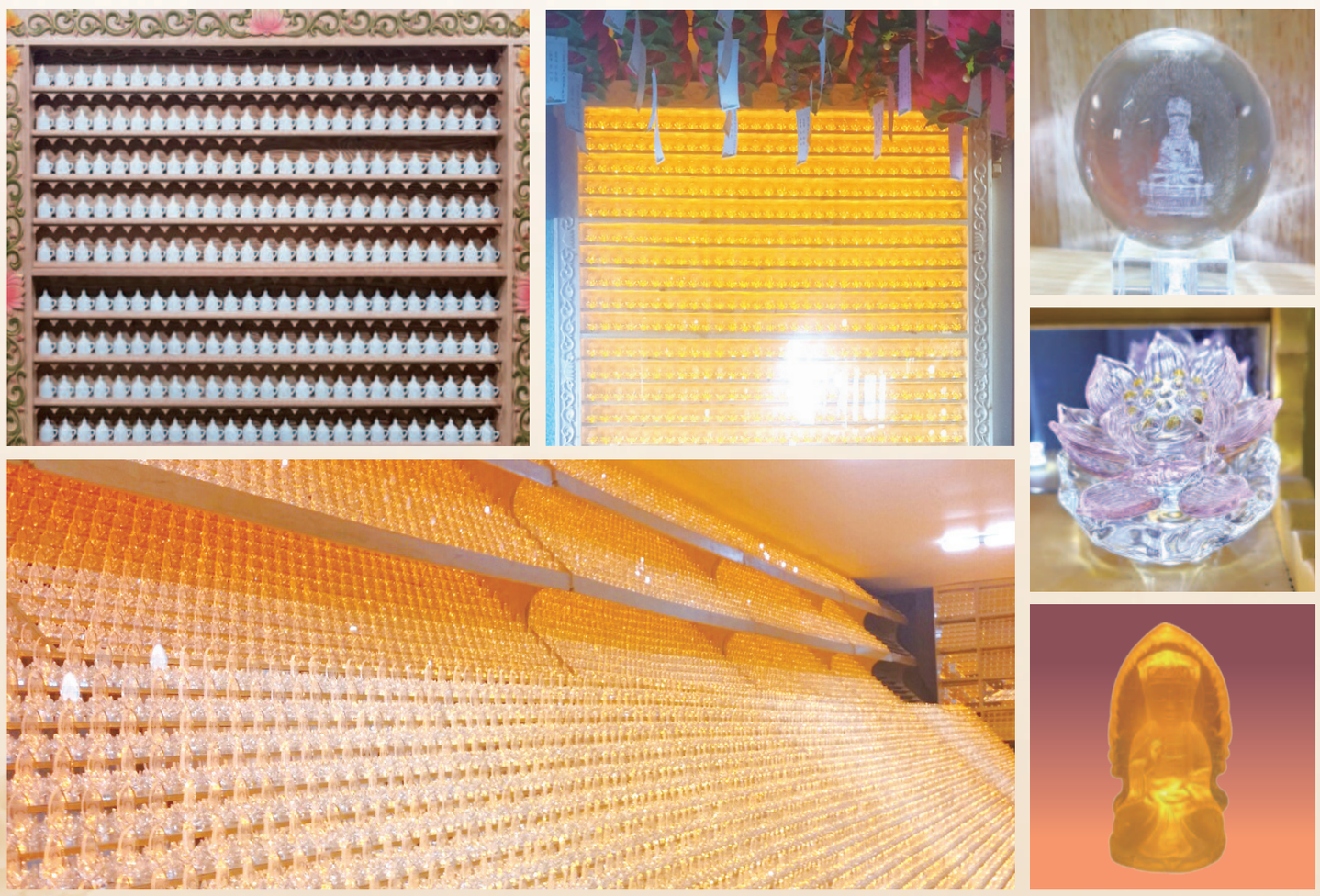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❼ 선승의 출가 ③



▶한줄요약
선승의 출가 동력은 운명처럼 만난 타인의 경책이나 권유에서 결정적으로 생성되기도 했다.

운명처럼 만난 선승들 출가 인연

5. 물속으로 들어간 물고기

속세에서 사는 것이 시시하고 고통스럽기만 한 반면, 산속 절 생활을 떠올리기만 하면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속세에서 사는 것은 물속에서 살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내동댕이쳐진 것과 같다. 물 밖 물고기가 시급히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듯 그 사람도 일단 한시바삐 산속 절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사람이 출가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요, 수행승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물고기가 드넓은 물속에서 유영을 시작한 것과 같다.

태몽 없이 태어난 찬영(粲英, 1328~1390)은 어느 날 삼각산의 우뚝한 모습을 보고 감격하여 삼각산 중흥사로 출가했다. 근대 이전 선승의 출가담 중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인 셈이다. 근대 이후 많은 선승은 이와 비슷한 사연으로 출가했다. 혜월(慧月, 1861~1937)은 덕숭산 정혜사에 놀러 갔다가 삼촌뻘 되는 혜안(慧安)을 은사로 출가했다. 만공(滿空, 1871~1946)도 금산사에서 정월 초하루를 맞이하던 중 불법에 대한 환희심을 경험하고 출가의 뜻을 굳혔고 이듬해 야반도주하여 동학사 경허 스님 문하로 출가했다. 혜암(惠菴, 1885~1985)은 아버지를 여의고 흥국사에 갔다가 절의 분위기에 이끌려 그냥 머무르고 싶었다. 그 때는 허락을 받지 못해 집으로 돌아갔지만 산사가 그리워 12살 되던 해 결국 출가했다. 운봉(雲峰, 1889~1941)은 13살 때 아버지를 따라 팔공산 은해사에 갔다가 불상을 바라보고 무한한 기쁨과 동경심을 느껴 그날 바로 출가했다. 춘성(春成, 1891~1977)도 9살 때 어머니를 따라 설악산 신흥사에 갔다가 불상을 우러러 보고 출가의 뜻을 세웠다. 그때는 허락을 얻지 못했지만 4년 뒤 백담사로 출가했다. 향곡(香谷 1912~1978)은 수도 중인 중형을 만나보기 위해 내원사로 갔다가 출가했다.

수옥(守玉, 1902~1966)은 정숙하고 용모가 빼어나서 유년을 넘기자 청혼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어릴 적부터 세속 삶이 비루하게만 생각되었다. '흰 구름 푸른 산속'에서 수행 생활하는 것을 언제나 그리워하였다. 결국 16살이 되자 몰래 집을 나와 덕숭산 견성암 법희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산속 돌부처의 점지로 태어난 대영(大英, 1903~1985)도 항상 산이 좋고 그립다고 되뇌었고, 19살이 되자 설악산 신흥사의 한 말사로 출가했다. 광호(光毫, 1915~1989)는 어린 시절부터 오신채가 든 음식은 입에 대지 않았고 동네 아이들이 메뚜기나 미꾸라지 등을 잡는 것을 보면 기겁하며 말렸다. 9살 때 어머니를 따라 운문사 청신암에 갔다가 행자승의 삭발 모습을 보고는 출가의 뜻을 세우고 몇 년 뒤 출가했다. 일우(1918~1989)는 어려서부터 세속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고 오직 도만 찾다가 출가했다.

속세를 벗어나 산사로 가려는 마음은 위의 선승들과 같았지만 좀 더 오랫동안 모색과 준비 과정을 거친 경우도 있다. 석우(石友, 1875~1958)는 혼인을 하고 난 뒤에도 가출을 일삼았다. 비승비속의 경계인으로 생활한 것이다. 결국 〈보조어록〉의 한 구절을 보고 문득 금강산으로 출가했다. 한암(漢巖, 1876~1951)은 유년 시절부터 우주에 대한 근본 의심을 가졌다. 9살 때 '우주 자연이 처음 생기기 이전인 태고 적에 반고씨가 있었다.'는 〈사략〉 구절을 보고 '그렇다면 반고씨 이전에는 누가 있었을까?'라는 의심이 생겨났다. 그것은 '살아 있는 화두'가 되었다. 스스로 일으킨 화두가 자기를 금강산으로 출가하게 했다. 만해(卍海, 1879~1944)는 13살에 혼인했으나 출가를 위한 생각을 그친 적이 없었다. 아내가 출산하자 '미역국 끓일 미역을 사려고' 집을 나섰다가 백담사로 발길을 돌려 출가했다. 용성이발관을 운영하던 구산(九山, 1909~1983)은 29살이 되던 해 출가했다. 시절인연이 도래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은 그간 치열하게 출가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사유해왔음을 암시한다. 성철(性徹, 1912~1993)은 대나무 숲 속이나 밤나무 밑에 가서 명상에 잠기곤 했다. 〈증도가〉를 읽는 순간에는 캄캄한 밤중에 횃불을 만난 듯한 감격을 맛보았다. 대원사로 가서 '영원'의 문제를 풀기 위한 참선에 들었다가 42일 만에 '마음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시끄러운 움직임과 고요한 멈춤이 하나가 된 경지'에 이르렀다. 출가하기도 전에 한 소식을 얻었으니 언젠가 출가할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탄허(呑虛, 1913~1983)는 오대산 한암선사와 3년간 서신을 주고받다가 한암 가까이서 공부를 더 깊이 하려는 마음에서 한시적인 입산을 했다. 입산은 결국 출가가 되었다. 성수(性守, 1923~2012)는 또래 아이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어른들만 가까이 했다. 유년 때 도인을 만난다며 몇 차례 가출을 시도했지만 가족 손에 이끌려 돌아오곤 했다. 아버지 사후에야 출가할 수 있었다. 혜정(慧淨, 1933~2011)은 잡지 〈불교〉를 통해 불교 이론의 기초를 닦았다. 특히 옛 선사들의 일화를 보면서 불교에 대한 더 많은 의문점과 기대감이 생겨 마곡사로 출가했다.



만공선사 진영.

운봉, 은해사 불상 보고 바로 출가
광호, 행자승 삭발 모습 보고 발심
월혜, 청담스님 인연 42세에 출가
수월, 주인에게 "놓아달라" 애원해

다른 한편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기에 자연스럽게 출가자가 된 경우도 있다. 본공(本空, 1907~1965)이 출가의 뜻을 말하자 그녀의 신심 깊은 집안 어른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흔쾌히 받아들였다. 덕암(德庵, 1913~2003)과 법흥(法興, 1931~)의 경우도 그랬다. 특히 법흥(法興)의 아버지는 김용사와 대승사에서 상주하다시피 했고 어머니도 매일 빠짐없이 기도를 했다. 어릴 적부터 절에만 가면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싶었고 스님을 보면 반가웠다. 속명이 '주흥'이었는데 마을 어른들과 친구들이 "중아, 중아" 부르며 놀렸는데도 그게 전혀 싫지 않았다. 고려대 국문과 학생이었을 때도 학교 근처인 개운사와 청룡사로 가서 기도를 이어갔으니 졸업 뒤의 진로는 자연스럽게 '출가'가 되었다. 설정(1942~)은 어릴 때부터 집을 방문하신 스님들을 두루 뵙게 되었는데 "중노릇 하라"는 스님들의 말씀을 축원처럼 듣고 자랐다.

6. 운명적 만남과 출가

선승의 출가 동력은 운명처럼 만난 타인의 경책이나 권유에서 결정적으로 생성되기도 했다. 진리에 대한 스스로의 몸부림과 바깥의 지지가 대응하는 줄탁동시의 형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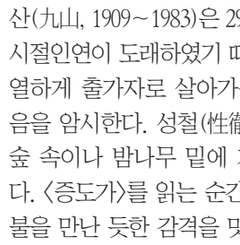
1936년 어느 날 경북 안동 포교당의 한 풍경이다. 30대 스님이 사자후를 토하고 중년부인이 그 한마디 한마디에 몸과 마음을 가누기 어려운 충격을 받고 있었다. 그녀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불교는 '엉터리'였다. 젊은 스님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42살인 부인은 만주에서 판사 생활을 하고 있던 아들에게 엄마의 출가 결심을 일방적으로 통고하고는 속세의 삶을 바로 정리했다. 그녀가 사불산 윤필암으로 출가한 것은 법문을 들은 지 불과 3일도 지나지 않은 날이었다. 젊은 청담 스님이 밖에서 쪼아주는 지점을 향해 정확히 안에서 대응한 중년부인은 결국 통념적 '가정주부'의 알을 깨고 나왔다. 월혜(月慧, 1895~1956)의 출가담이다.

완벽한 빈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한 분이 수월(水月, 1855~1928)이다. 수월은 부모나 집안, 자기 이름에 대한 기억도 없었다. 그에 대해 스스로 말한 적도 없다. 어느 순간 자기가 남의 집 마구간 옆에서 자며 그저 발밑만 바라보고 남의 일을 해주는 머슴이란 사실이 자각되었다. 수월은 성품이 맑고 단순하여 말없이 일만 했다. 고기와 술을 싫어했고 살아 있는 것은 자기 몸처럼 여겨 비록 모기나 빈대 같은 해로운 벌레라도 괴롭히거나 죽이지 않았다. 들일을 하던 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수월의 벗이었다. 수월은 잠이 없어 새벽 닭이 울기까지 방 안에서 일을 했고 달 밝은 밤이면 일손 모자라는 남의 들일을 몰래 해주기도 했다. 가끔 스님들이 수월의 방에서 자고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수월은 스님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었다. 어느 늦가을 밤, 어느 운수승이 밤새 해준 수행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수월은 출가를 결심하고 이튿날 주인에게 자기를 놓아달라고 애원했다. 주인은 가죽신을 내어주며 그 가죽신이 다 떨어졌을 때 떠나가게 해주겠노라 말했다. 수월은 가죽신을 신고 더 열심히 일했다. 두 해가 지났지만 가죽신은 그대로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방에서 다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된 운수승은 수월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벼포기를 걷어차보라 조언해주었다. 그로부터 수월은 밤마다 논으로 나가 미안하지만 제발 자기를 놓아달라며 벼포기를 걷어찼다. 수월을 옭아매고 있던 고역의 굴레처럼 질기디질겼던 가죽신은 서서히 허물어져 내렸다. 벼포기도 수월의 출가를 도와주는 듯했다. 새벽이 오자 수월은 크고 맑은 눈을 껌벅이는 소를 어루만져주며 작별을 고했다. 스물아홉의 늦가을, 그의 몸을 옭아매면서도 삶의 교실이 되어준 들판을 떠나 멀지 않은 천장암으로 갔다. 거기서 수월은 혜월, 만공과 함께 '경허의 세 달'이 되었다. 수월은 그들 중에서도 맏이였지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무하고 짚신 삼고 방아를 찧었다. 스승이 알려 주신대로 일을 하면서 '대비심다라니'를 외우는 것이 달라진 점이었다.

이렇듯 월혜와 수월은 우연한 만남을 통해 전의(轉依)라고도 할 정도의 변화를 겪고 출가를 이루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만났던 분들을 떠올려본다. 그중에는 청담이나 운수승처럼 내 관습적 일상의 단단한 껍질을 수없이 쪼아준 고마운 분들이 계셨을 것이다. 이날까지 나는 그 쪼는 소리와 진동과 충격을 흐리멍덩 놓쳐온 것은 아닌가.

〈연세대 객원교수〉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직인 등록 공고



총무원장 새 직인

본종 종헌 제37조에 의거, 2022년 3월 29일 제20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당선,
2022년 3월 30일 종정 예하로부터 임명 받은 제20대 총무원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인 위 · 도용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총무원장 직인을 등록하오니,
총무원 · 원로의원 · 중앙종회의원 · 각 교구종무원장 스님들께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31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 염불전문 시설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특징 : 고장없음, 전제품 국산 확인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완벽시설, 가격 198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방문시 8천만원 하는 마이크 있음을 스마트폰 확인해 드림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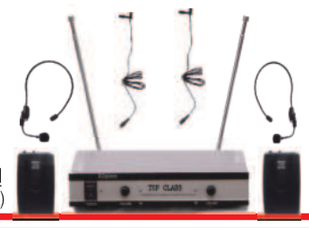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40만원
(출장 설치비 20만원 별도)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증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0만원
(출장 설치비 20만원 별도)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6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❼ 인욕선인본생도



▶ 한줄요약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게 된 계기는 이차돈의 순교였다. 〈삼국유사〉에는 '이차돈의 목을 베자 목에서 흰 젖이 솟아올랐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왕이 인욕선인의 인욕을 시험코자 팔 다리를 자르니 그곳에서 흰 젖이 나오고 이내 회복됐다는 부처님 본생담 '찬제파라품'과 유사하다.

붉은 피, 흰 젖으로 바뀌 佛法 증명하다

불교 전래와 관련해서 여러 나라들에 상서로운 자연 현상 혹은 신비한 일들이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라의 이차돈(異次頓, 506~527) 순교 이야기가 가장 신비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미 4세기 말에 고구려와 백제가 불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간 반면에, 신라는 여섯 개의 부족이 모여 나라를 이룬 까닭에 각 부족들은 건국 당시의 민간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당연하게도 신라의 귀족들은 선진 종교인 불교를 수용하면 자신들의 전통성과 정치적 존립 기반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차돈이 왕명을 앞세워 절을 지으려 했던 천경림(天鏡林)은 신라의 민간 신앙에서 천신이 내려와 지신과 결합한 장소로서, 토착 세력들에게 신성시되던 장소였기에 그 반발은 걷잡을 수 없었다. 마침내 527년 불교 공인에 있어 귀족세력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차돈이 기적을 일으키며 순교했고, 이로써 법흥왕은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이고 고대국가의 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다.

이차돈은 불교 공인을 위해 순교하기 전에 법흥왕에게 "소신이 저녁에 죽어서 아침에 불법(佛法)이 행해지면, 불교가 일어나고 성군(聖君)께서는 길이 편안하실 것입니다. 소신의 목을 베어 만민이 굴복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에 관해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는 형리(刑吏)가 이차돈의 목을 베자 목에서 흰 젖이 한 길이나 솟아올랐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더니 꽃비가 내렸다고 기록돼 있다. 그리고 순교 당시 이차돈의 잘린 머리가 하늘에 높이 올랐다가 떨어진 곳에 자추사(刺楸寺)라는 절을 지었다고 전해지는데, 현재 경주 동천동에 있는 백률사(栢栗寺)가 자추사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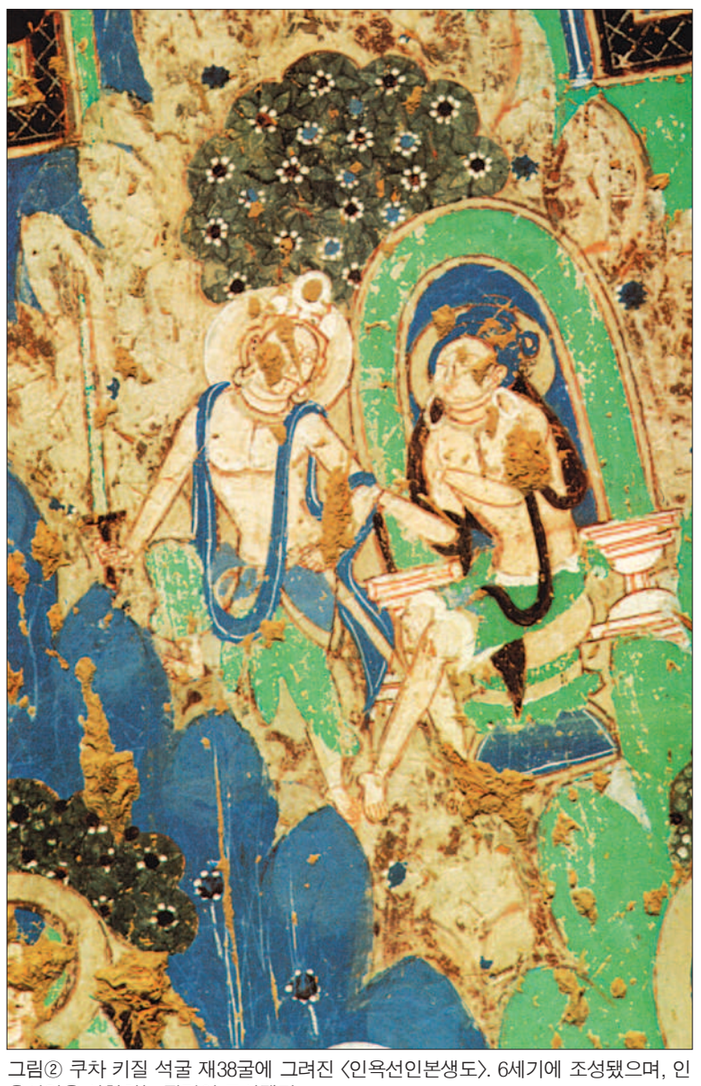
이 사실을 증명하듯 백률사에서 발견된 '백률사 석당기' (일명 이차돈 순교비, 높이 104㎝, 너비 29㎝)는 818년에 조성된 것으로, 여섯 면의 돌기둥에 이차돈의 순교 장면을 시작으로 불교 수용을 위해 당숙 법흥왕과 조카 이차돈이 모의하는 장면, 이차돈의 순교 후 기적이 내리는 장면 등이 조각되어 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은 첫 번째에 조각된 이차돈의 목이 잘린 곳에서 피가 솟구치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이다.

누구나 이차돈의 순교 장면을 떠올리면 사람의 붉은 피가 어떻게 흰 우유 빛으로 바뀔 수 있는지 의문이 들면서, 많은 신비한 일들 중에서 왜 하필 이러한 기적이 행해졌을까 궁금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은 이차돈만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에 석가모니로 태어나기 전 한 생에서 행하셨던 기적이다. 부처님의 전생담을 기록하고 있는 〈현우경(賢愚經)〉의 '찬제파리품 본생담' (羼提波梨品 本生譚)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①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된 〈백률사 석당기〉. 818년에 조성됐으며 이차돈의 순교 장면이 조각돼 있다.



그림② 쿠차 키질 석굴 재38굴에 그려진 〈인욕선인본생도〉. 6세기에 조성됐으며, 인욕선인을 시험하는 장면이 묘사됐다.

잘린 목서 흰 젖이 쏟아지는
기적을 보여준 '이차돈 순교'
왕이 선인의 인욕 시험코자
팔다리 절단하니 흰 젖 나온
본생담 '찬제파리품'과 유사

이차돈 '찬제파리 기적' 보여
신라불교 정착 · 발전 초석 놔

"부처님께서 죽원림(竹園林)에서 아야 교진여(阿若 憍陳如)와 울비라 가섭(鬱卑羅 伽葉) 형제들 1000명을 제도하시며 전생의 인연을 말씀하셨다. 염부제에 바라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곳의 국왕은 가리(迦梨)였으며, 찬제파리(羼提波梨)라는 큰 선인(仙人)이 있었다. 선인이 5백 제자들과 함께 인욕(忍辱, 온갖 욕됨과 번뇌를 참고 원한을 일으키지 않는 일)을 수행하는 숲에 국왕 가리가 신하들과 왕비와 궁녀들을 데리고 놀러 오게 되었다. 왕이 피로해 누워 쉬고 있자, 왕비와 궁녀들은 왕을 두고 꽃이 핀 숲을 구경하였다. 그러다가 찬제파리가 단정히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 꽃을 공양하고 설법을 듣고 있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왕이 네 명의 대신들과 함께 왕비와 궁녀들을 찾다가 선인에게 설법을 듣고 있는 장면을 보고 선인에게 무엇을 수행하는지 묻자, 인욕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곧 왕이 칼을 빼어 인욕을 잘 수행하였는지 시험해 보겠다며 선인의 두 손, 두 다리, 귀와 코를 잘라내었으나, 그는 얼굴빛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에 왕이 놀라워하며 인욕을 수행하였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다시 묻자, 선인은 인욕하는 것이 진실이며 거짓이 아니라면, 피는 젖이 되고 몸은 전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 말이 끝나자 피는 곧 젖이 되고 몸은 전처럼 회복되었다. 왕이 선인의 인욕의 증명을 보고 죄를 참회하자, 선인은 먼 뒤에 부처로 태어나면 먼저 지혜의 칼(慧刀)로 왕의 세 가지 독을 끊을 것이라 이야기하였다.가리왕은 참회한 뒤에는 늘 선인을 청하여 궁에서 공양하였다. 그때 다른 범지(梵志, 브라만교의 승려) 수천 인은 왕이 찬제파리를 공경히 대우하는 것을 보고 매우 시기하여 그가 앉은 곳에 티끌과 흙과 더러운 물건들을 끼얹었다. 이를 목격한 찬제파리가 인욕을 수행하여 중생들을 위해 쉬지 않고 그 행을 쌓으면, 뒤에는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만일 내가 불도를 성취하면 먼저 법의 물로써 너희 범지들의 티끌과 때를 씻고 탐욕의 더러움을 없애어 영구히 청정하게 할 것이다라고 서원을 세웠다. 그때의 찬제파리는 석가의 전생이며, 가리왕과 네 명의 대신은 교진여 등 다섯 비구의 전생이며, 부처님께 티끌을 끼얹던 범지들은 울비라 비구들의 전생이다."

〈현우경〉의 '찬제파리품 본생담' 에서는 이차돈의 이야기처럼 목에서 흰 젖이 뿜어져 나오지는 않지만, 두 손 · 두 다리 · 양쪽 귀 · 코가 잘린 곳에서 흐르던 피가 젖이 되었고 상처는 씻은 듯이 회복되는 기적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 중국 신장성 위구르 자치구의 쿠차현(庫車縣) 키질(克孜爾)석굴 38굴의 벽화다. 이는 6세기경 그려진 것으로, 〈인욕선인본생도(忍辱仙人本生圖)〉 혹은 〈찬제파리품 본생도〉라고 부른다. 마름모 형태의 화면에 꽃이 핀 동그란 나무를 배경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선인 찬제파리와 서서 위협적으로 선인을 내려다 보는 가리왕이 그려져 있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손이 잘린 팔을 들어 보이며 미소를 잃지 않는 찬제파리와 오른손에 장검을 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가리왕 사이의 긴장감과 감정이 시각적으로 잘 표현돼 있다.

한편, 팔리어로 기록된 〈본생담〉의 313번째 '칸티바디 자타카' (Khantivadi Jataka)도 선인 찬제파리의 온갖 욕됨과 번뇌를 참고 원한을 만들지 않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선인을 고문하고 조롱했던 왕은 참회가 아닌 땅속에서 솟아오른 불꽃 덩어리에 묶여 가장 깊은 지옥으로 끌어 내려졌으며, 선인은 부상으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당연히 선인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인물이었으며, 왕은 데바다타의 전생이었고, 선인을 도왔던 장군은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사리불의 전생이었다고 적혀있다. 팔리어 〈본생담〉에서는 피가 젖으로 바뀐 기적이나 가리왕의 참회 대신에 지옥의 불구덩이, 선인의 죽음, 왕의 전생으로서의 데바다타, 사리불의 등장 등 다른 요소들이 첨가되었다.

이차돈이 불교의 포교와 법흥왕의 고대국가로서의 체계 확립을 위하여 순교하였을 때, 정말 목에서 붉은 피 대신 우유빛 젖이 솟아올랐는지 아닌지 증명할 방법은 없다. 다만 불교라는 공통분모에서 갈등 요인이 인욕을 믿지 않는 가리왕 그리고 불교를 반대하는 신라의 귀족들이라는 묘하게 닮았음을 생각하면 어쩌면 이차돈 그리고 법흥왕은 〈현우경〉의 '찬제파리품 본생담' 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현우경〉이 중앙아시아 및 중국에 걸쳐 널리 유포되었던 경전이었음을 감안 한다면, 인지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미 〈삼국유사〉를 비롯한 다양한 기록에 부처님의 전생담 혹은 인연설화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찬제파리의 이야기 또한 신라에 전해졌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은 막연함보다 확신에 훨씬 가깝다.

이차돈과 법흥왕은 선인 찬제파리의 기적을 신라의 왕성 경주에서 재현하여 반대세력을 누르고 천경림에 신라 최초의 사찰 흥륜사(興輪寺)를 건립할 수 있었으며, 신라를 여섯 부족 연맹체에서 고대국가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외래교수〉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우공침술
개·인·지·도
딱 6일 만에 우공이 개발한 TLS 침법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침술경력 30년이 넘었다는 한 스님이 저에게 침술을 배우던 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공 선생님, 돈 많이 버시죠?"
수업 중 뜬금없는 물음에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는 저의 반문에 스님은
"허리통증으로 고생하는 신도들에게 선생님께 배운 TLS 침법을 써 보니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런 침법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것 같아서요."
30년 이상 써 왔던 스님 자신의 침법도 나름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 왔는데, 저에게 배운 침법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였다며 "TLS 침법 끝내줍니다!"하며 감탄해 했습니다. 저는 그러는 스님에게 스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TLS 침법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지 않다고 말을 했더니,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침법이 거기서 거기지"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저에게 침술을 배운 또 다른 분은
"선생님이 개발하신 TLS 침법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앞서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겠죠." 라고 말하며 역시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개발한 기가 막히는 TLS 침법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 일이 탄력을 받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제가 개발한 TLS 침법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을 치료하는데 기발한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어깨통증, 허리통증, 무릎통증에서 기가 막힐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처럼 기가 막히는,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TLS 침법을 개인지도를 통해 딱 6일 동안에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방분들은 제가 방문하여 개인지도 해드리며 3일 간의 속성으로 완벽하게 TLS 침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 접속되며, 그곳에서 침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연구원 문의전화 : 010-4054-7110

박원자의 母情佛心 30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자광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자광 스님은 9살에 생모를 여의고, 한국전쟁서 아버지를 잃었다. 어린 시절 방황하던 중 철학 서적을 탐독했고, 출가자의 삶에서 나아갈 방향을 찾았다. 출가한 자광 스님은 은사 경산 스님과 사제 인연을 맺었고, 은사처럼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자광 스님에게 은사 경산 스님은 어머니와 같다.

"제 어머니는 은사 경산 스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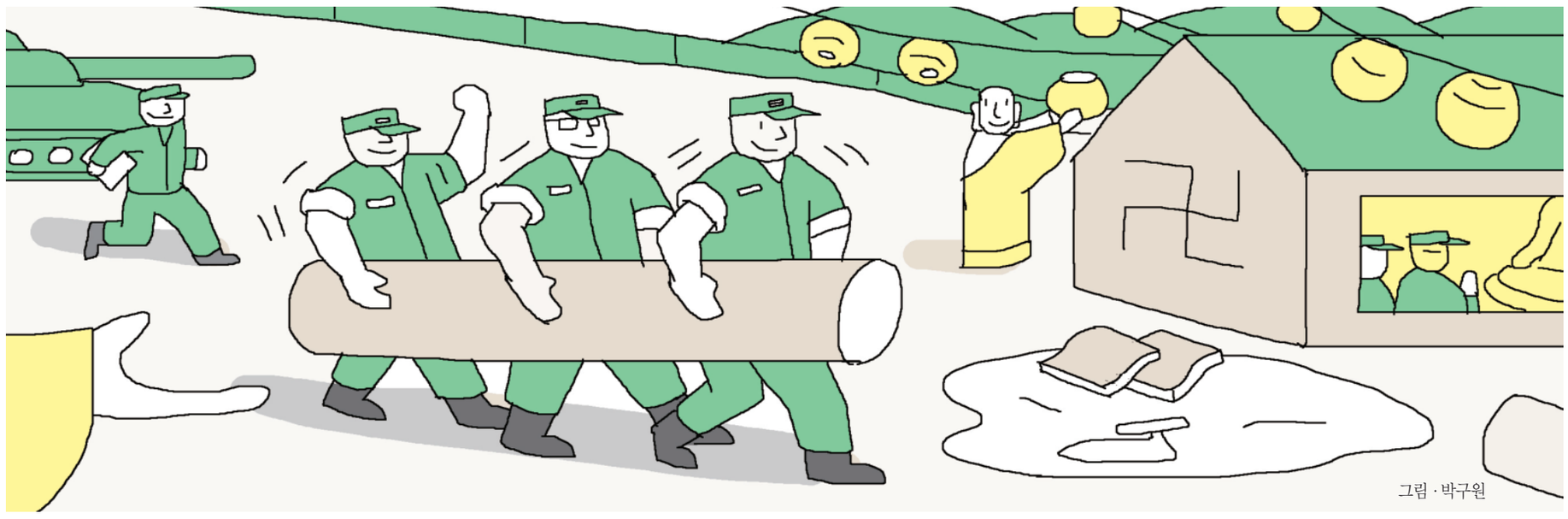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우리 어머니는 제 은사스님이세요."

어머니에 대해 여쭙자 세수 여든이 넘으신 자광 스님께서 단박에 하신 말씀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모든 걸 가르쳐주셨죠. 모성애와 자비를 가르쳐주셨고 친절과 뭇 생명을 포용하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자비를 행하고 친절을 행하며 모든 것을 포용하는 존재라는 말씀인 것 같다. 모든 것을 가르치는 존재가 어머니라는 말씀에 세상의 어머니들은 최상의 교육자임에 틀림없다.

"자비를 배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세상에 나오셨다고 하잖아요. 자식을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가 어버이죠.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남과 더불어 살 때 부닥침이 없도록 가르치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은사 스님이 어머니이셨죠."

스님의 은사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내신 손경산(1917~1979) 스님이다. 경산 스님은 청정비구의 표상과 같은 수행자다. 율사이자 선사로 정화불사에 헌신, 한국불교 정화의 기수 역할을 했고, 오늘날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큰 강물의 발원지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다. 또한 지금의 동국대학교를 종립대학으로 확립하는 데 초석을 마련한 분이다.

자광 스님은 은사 스님을 18살에 만났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걸 배우고 익혔다. 그러므로 은사 스님은 18살 이후의 어머니와 다름없다.

"자비의 화신이 어머니 아닙니까? 무엇이든 다 조건 없이 들어주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 무슨 조건이 있어요? 자식이 별 짓을 다 해도 이해하고 용서하잖아요. 또 바르게 가르치려고 회초리를 드는 것도 어머니죠. 회초리도 자비심이에요."

어머니들은 인생을 보는 안목을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은 필수일 것 같다. 자식은 그대로 어머니가 했던 행동들을 닮는다. 그래서 훗날 어머니 모습 그대로 행동한다. 그걸 생각하면 조심하지 않을 수 없고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어머니다.

3남 4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난 스님은 9살에 어머니를 잃었다. 어머니의 사랑이 전부일 나이에 어머니의 부재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이다. 아버지는 이념의 희생물로 한국전쟁 당시 돌아가셨다. 어린 나이에 겪었던 비극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한국전쟁 때 수많은 주검을 목격했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접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극한의 환경이었다. 경찰이었던 형님 밑에서 자라며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다. 어머니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은 지독한 외로움이 되었다. 어떻게 살아야할지 답이 없었다. 철학 서적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다. 미래에 도무지 별 희망이 없어보이던 그때 불교의 진리가 대단한 희망으로 다가왔다.

9살에 생모, 한국전쟁서 친부 잃어
친형 아래 자라며 어린 시절 방황
철학 서적들 탐독하다 출가 결심해
1959년 경산 스님 시봉하며 '인연'
은사 생전 모습 따르려 부단히 노력
"자녀 교육, '사람 되는 교육'부터"

출가를 결심했다. 피할 길이 없어보이던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수행자가 되는 것이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지리산 화엄사로 들어가 머리를 깎았다. 숯 물을 들여 만든 광목옷을 입고 지리산의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났다. 부목, 채공, 공양주까지 전천후 안 해본 것 없이 골고루 하며 행자시절을 보냈다. 생명의 발전을 위한 과정들이라 여기니 고달프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러다 제2의 어머니인 은사 스님을 만났다. 1959년 어느 봄날 조계사에서였다.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삼배를 올리고 수줍게 올려다 본 은사 스님은 거룩한 성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선방 수좌로 불교정화를 위해 총무원의 교무부장을 겸임하고 있었던 은사스님은 자신을 시봉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행자를 자세히 살피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에 들어 상좌로 받아들인다는 표시였다. 그날부터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듯 은사 스님을 시봉했다.

은사 스님은 말할 수 없이 순진하고 겸손하셨다. 언제 어디서나 그 누구에게도 꾸밈없이 담백하게 대하셨다. 함부로 대하는 일은 꿈에서도 없던 분이다. 아랫사람에게조차 말을 놓은 적이 없었다. 행자인 상좌를 부를 때도 ' 거기, 행자 있어요' 라고 불렀다. 그래서인지 자광 스님도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쓴다. 개인적으로 자광 스님을 오래 뵈어왔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반말을 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은사 스님은 날마다 새벽예불을 마치고 나면 〈초발심자경문〉을 가르쳤다. 사미계를 받기까지 10개월 동안 하루 한두 시간씩 은사 스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공부하면서 위대한 도인 원효스님을 만났다. 그리고 은사 스님의 청정 비구 정신을 뼛속까지 깊이 새겼다. 은사 스님께 글을 배우고 익히며 이런 도리대로 살아야 진정한 '사람'도 될 것이며 '부처' 도 되겠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 시절 지방에 계시던 큰스님들이 총무원으로 회의를 하러 오시면 스님이 물심부름을 했다. 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큰스님들이 우스갯소리를 하셨다.

"아이구 똑같네. 경산 스님 숨겨놓은 아들 왔네."

그러면 은사 스님이 화를 내는 듯한 얼굴로 아니라고 손을 내젖곤 했다. 각종 회의 때마다 큰스님들은 유머로 긴장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도 했는데, 유난히 은사 스님은 말씀도 많지 않고 말주변도 없었다.

"군 포교를 하시면서 수많은 법회를 열고 설법을 해서 청년들을 감화시켰으니 말주변은 은사를 닮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진로 위에는 늘 은사 스님이 계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한 제게 수계한 뒤 학교를 다시 다니게 해서 졸업장을 받게 했어요. 해인사 강원에서 경을 다 배우고 나면 대 논사가돼 선방에 들어가 언어도단에 이르는 길을 뚫어야겠다고 다짐하며 경전공부를 하고 있을 때 동국대에 들어가서 공부할 것을 명한 분도 은사 스님이셨어요. 그렇게 한번 운명의 길을 바꾸었는데, 군대에 다녀와서 선방에 있는데 저를 불러 군승으로 군대에 가라고 명하셨어요. 당신의 상좌를 군대에 한 번 더 보내야 군승제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은사의 뜻에 따라 운명이 달라졌지만 결국 은사의 뜻대로 산 것이 청정 비구의 정신을 잃지 않고 출가의 길을 걸어온 원동력이 되었죠."

"아무리 스승의 명이라고 해도 자신의 뜻을 접고 군대를 한 번 더 가는 것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조계사에서 포교활동을 할 때 주로 노인들이나 여성 불자들이 절에 오는 것을 보면서 포교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죠. 차라리 많은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에서 군포교를 하는 것도 부처님의 빛을 갚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결혼이 합법적이었던 관계로 군법사들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은사 스님은 염려를 담은 편지를 보내왔다.

"장가가지 말거라. 내 계맥을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제자는 편지를 받고 청정비구의 상징으로 통했던 은사의 위상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끝내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청정 비구로 있다가 종단에 복귀했다. 대학원에서 계율을 공부하게 된 동기도 스승의 계맥을 잇기 위한 때문이었다.

자광 스님은 불교 군승제도가 시행되자 군승 중위로 임관돼 25년 동안 군승으로 재직했다. 대한민국 군대 내 모든 군종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 군종감을 역임하고, 2012년에는 군종특별교구장으로서 논산 훈련소 법당인 호국연무사 대작불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제대 후, 2016년에는 반세기 전 동국대 이사장을 역임했던 은사 스님의 뒤를 이어 동국대 이사장을 지냈다.

군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계해준 장병이 4만 6000명, 장병을 상대로 한 법회와 설법이 4600회, 군승도 100여 명으로 늘려놓았고 수많은 군 사찰을 건립했다.

"군승은 반드시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장병들을 대해줘야 합니다. 장병들이 절에 오면 국수도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하면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배불리 먹이고 따뜻하게 입히는 것이 어머니 역할이잖아요. 법문과 상담, 인격지도 교육이 군승들이 하는 일이죠."

수많은 장병들의 자비로운 어머니 역할을 하신 스님이 요즘 어머니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궁금했다.

"사람이 되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물질만 공급할 줄 알고 정신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돼요. 밥상머리 교육, 예절 교육,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더불어 사는 걸 하나도 배우지 못했어요. 어머니들이 제 자식만 감싸고돈 결과죠. "

"은사 스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뭘까요?"

"우리 스님은 통합종단 전후로 총무원장을 세 번이나 역임하셨으면서도 상좌들이 모여 당신의 제사를 지낼만한 사찰 하나 없이 입적하셨어요. 종단에 계시는 동안 본사는 고사하고 말사 하나 상좌들에게 맡기지 않고 있을 때 은사 스님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문도들이 수십 명인데 우리 문중도 기댈 근거지는 한 곳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은사 스님께서도 노년에 머무실만한 교구본사가 있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다가 얻어맞다시피 쫓겨 나온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종단의 화합만을 가슴에 품었던 분이죠."

여러모로 스님은 어머니인 은사 스님을 닮았다. 대찰을 마다하고 용인에 반야선원을 지어 신도들을 맞으며 조촐히 지내고 있는 것도,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은사 스님처럼 화를 내는 법이 없는 것도 꼭 은사 경산 스님 모습 그대로다. 입적하는 날까지 종단을 위해 애쓰셨던 은사 스님처럼 여든이 넘은 연세에도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이라는 현직에 있으면서 일하는 것도 닮았다. 자식이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닮는 것처럼.

〈작가〉

불기 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축하광고 접수 받습니다

불기 2566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현대불교 신문사는 임인년 봉축특집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희망과 나눔의 등불로 가득 비출 수 있도록 자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다시 희망과 꽃피는 일상으로 평화롭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원고마감 : 2022년 4월 25일(월)
접 수 처 : 현대불교신문 광고부
전화 02)2004-8216 팩스 02)737-0698
E-mail jabi2018@naver.com

지사지국 접수처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번뇌의 창고 '無明住地'

〈무명주지〉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⑭ 번뇌

"번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지(住持)번뇌와 기(起)번뇌입니다. 주지번뇌는 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견일처주지(見一處住地), 욕애(欲愛)주지, 색애(色愛)주지, 유애(有愛)주지입니다. 이 네 가지 주지번뇌가 일체 기번뇌를 일으킵니다. 기번뇌란 것은 찰나의 마음이 찰나에 서로 응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서로 응하지 않는(心不相應) 것은 시작이 없는 무명주지(無明住地)라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네 가지 주지의 힘이 온갖 상번뇌(上煩惱)의 의지하는 곳이며 종자이지만, 무명주지에 비하면 산수나 비유로 미칠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아서 무명주지의 힘은 저 네 가지 주지의 힘보다 매우 큽니다. 마치 악마 파순(波旬)이 저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에서는 그 빛깔과 힘과 목숨과 권속과 여러 가지 도구가 가장 자재하고 뛰어나듯이 이 무명주지의 힘은 저 네 가지 주지의 힘보다 매우 크며, 항하의 모래와 같이 많은 상번뇌의 의지할 데가 되며, 또 네 가지 번뇌로 하여금 오래오래 머물게 하므로, 아라한이나 벽지불의 지혜로는 끊을 수 없고, 다만 여래의 보리의 지혜라야 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무명주지의 힘이 가장 큰 것입니다."

불교는 괴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번뇌를 다스릴 것을 주장하는데, 이 번뇌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행상으로 설명한다. 〈승만경〉의 이 대목에서 번뇌에 대하여 매우 심도 있게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번뇌란 마음을 교란하는 것으로 선정에 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아비달마론〉에는 번뇌란 말이 번란핍뇌(煩亂逼惱)를 줄여 번뇌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범어의 어원은 클레사(klesa)인데 몸과 마음을 교란하고 오염시키며, 미혹되게 함으로써 평온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정신작용을 총칭하는 말로 괴로워하고 학대받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대목에서는 번뇌의 종류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주지번뇌는 번뇌의 근본을 말하고 기번뇌는 주지번뇌로부터 파생되어 생겨나는 번뇌다.

이 번뇌를 견도위(見道位)와 수도위(修道位)에서 끊는 종류를 나눠 견혹(見惑) 수혹(修惑)이라고도 말하는데 견일처주지는 견혹이며, 욕애주지는 수혹이다. 수혹을 사혹(思惑)이라고도 한다. 견혹은 깨닫지 못한 무지의 상태에서 견도위에 들어가 사성제(四聖諦)의 이치를 관찰하여 끊게 된다. 욕애주지는 욕계의 사혹으로 오욕락 등에 집착하여 욕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번뇌다. 색애주지는 색계에서 일어나는 사혹이며 유애주지는 무색계에서 일어나는 사혹이다. 무명주지는 곧 근본무명으로 모든 번뇌가 이를 의지해 일어난다. 파순(波旬)은 욕계 육천의 임금으로 선정을 방해하는 마왕(魔王)이라 한다.

불교적 관점에 있어서 인간의 현실은 혹(惑), 업(業), 고(苦)가 악순환하는 과정으로 보고 그 실존의 실상은 고(苦)라는 한마디로 요약되며, 이 '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번뇌를 끊을 것을 제시한다. 초기불교부터 부파불교 대승불교로 이어지는 번뇌론은 번뇌가 야기되는 인간의 심리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인간이 번뇌로 인해 미혹해져 그릇된 업을 짓고 고통을 당하며 생사의 윤회를 거듭한다고 보는 것이다. 번뇌가 없어질 때 열반이 누려지며, 해탈이 얻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번뇌를 깨달음을 방해하는 장애로 보아 번뇌장(煩惱障)이라 하였다. 무명주지는 모든 번뇌의 근원이 되는 근본무명으로 모든 번뇌의 의지처이고 생사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다. 또 아집(我執)과 법집(法執) 중에 법집이 일어나는 곳으로 그 힘이 가장 강하여 끊기 어렵다고 한다. 주지(住地)란 머물고 있는 땅이라는 뜻이지만 근본을 지칭하는 말이다. 또 번뇌가 머무는 곳이 다섯 군데라 하여 오주지(五住地)를 있는데 무명주지가 다섯 번째이고 앞의 네 주지는 분단생사를 받고 무명주지는 변역생사를 받는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마음이 서로 응하지 않는다(心不相應)' 는 말은 번뇌가 매우 미세해 주관과 객관의 서로 대(對)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대승불교 완성하는 관음신앙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㊲ 관음신앙의 올바른 견해

발보리심(發菩提心)

불자 여러분! 대비심에 뿌리를 둔 서원과 원생은 중생을 구호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리고 대비심에 바탕을 둔 발보리심은 바로 성불을 위한 의지이며 각오입니다. 위없는 보리는 열반과 서로 다릅니다. 열반(涅槃)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수행의 결과라고 한다면, 보리(菩提)는 중생을 구제하려는 서원(誓願)과 중생을 구제하는 대비심의 실천을 근본으로 완성된 수행의 증과(證果)이기 때문에 열반(涅槃)과 보리(菩提)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서원과 원생 그리고 자비심에 의한 발보리심은 관음신행 뿐만 아니라 대승불교의 모든 신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실천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는 이타적인 의지가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대승불교의 신행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60권 화엄경〉에서는 '발보리심' 을 설하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재동자는 관자재보살의 발에 예배드리고 오른쪽으로 무수히 돌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건대 성자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관세음보살이 말하였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내었구나. 나는 보살의 대비행 해탈문을 성취하였다. 나는 끊임없이 이 대비행의 문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인도한다. 나는 대비행의 문에 머물러 항상 모든 여래의 처소에 있으며, 모든 중생의 앞에 두루 나타난다. 보시로써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사랑스런 말과 이롭게 하는 행과 같은 일로써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한다. 또 육신을 나타내어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온갖 불가사의한 빛과 맑은 광명을 나타내어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며, 음성과 위의의 설법으로써 거두어 주기도 하며, 신통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며,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성숙시키기도 하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함께 있으면서 성숙하게 하기도 한다."고, 자비와 중생구호의 의지가 결합된 위없는 보리심은 곧 보살행과 보살도를 닦는 것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관음신앙의 신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음신앙을 올바르게 신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관세음보살의 종교적 가피력을 믿는 신앙적 확신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세음보살의 서원과 원생 그리고 자비심에 대해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행자 스스로가 타력적 수행에서 자력적 수행으로 영역을 변화시켜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제하겠다는 대자비의 서원을 일으키고, 윤회 속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의 괴로움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스스로 고통의 세계에 태어나는 원생을 실천하여 자비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필경에 스스로 정각을 이루고 말겠다는 불퇴전의 각오와 일체중생을 꼭 구제하겠다는 의지인 위없는 보리심을 발(發)해야 합니다.

관음신앙은 수행자가 처음엔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수행을 출발하지만, 수행력이 점차 깊어지면 차후엔 수행자 스스로가 관세음보살의 화신(化身)이 되어서 서원과 보리심을 일으켜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는 대비심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관음신앙을 올바르게 신앙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대승불교의 실천이념은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입니다. 관음신앙은 바로 이러한 대승불교 이념을 완성하는 신앙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⑫ 올바른 견해의 경 ③

처음부터 괴로움이란 없었다

"벗이여, 고귀한 제자가 이와 같이 무명을 잘 알고, 무명의 발생을 잘 알고, 무명의 소멸을 잘 알고, 무명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잘 알면, 그는 완전히 탐욕의 경향을 제거하고 분노의 경향을 제거하고 '나는 있다'라고 하는 자아의식의 경향을 제거하고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일으키며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의 종식을 성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귀한 제자는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견해가 바르게 되고,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합니다."

무엇이 괴로움일까? 크게 두 가지 괴로움이 있다. 한 가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움직여,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느끼는 괴로움이고, 다른 한 가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와 안다고 느끼는 나, 둘 다 자신이 아닌데 그 둘을 자신이라고 느끼면서 겪는 괴로움이다.

대부분은 첫 번째 괴로움을 괴로움이라 알고 겪을 것이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일로 겪는 괴로움은 진짜 괴로움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 는 지금 마음으로 겪는 느낌을, 일어난 일과 무관하게 일어난 일로 느낄 뿐이다. 사실 지금 일어난 일은 과거의 그가 원했던 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조건에 따라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지금 마음으로서는 뜻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렇듯 계속 재생되는 삶을 영위하면서 첫 번째 괴로움을 소멸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무명이 다시 무명을 낳아,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이 내치는 꼴이 되는 탓이다.

두 번째 괴로움이 참으로 괴로움이고, 참으로 번뇌이다. 스스로는 온전한 그대로이다. 그러니 모르는 일도 없고 아는 일도 없다. 일어나는 그대로가 옳은 것도 아니고 옳지 않은 것도 아닌 것이며, 되게 하여야 하는 완성도 없고, 무너뜨려야 하는 소멸도 없는 '물질은 괴로움이다' 라고 아는 마음밖에 없다. "이것이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하는 지혜가 없는 무명이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괴로움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만나기 어렵다. 수행을 오래한 사람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기 어려워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흔치 않다. 무명으로 괴로움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괴로움의 소멸은 무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무명을 알게 되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괴로움이 없었음을 알게 된다. 사라지는 것이 있으면 무명은 끝나지 않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니 사라지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무엇이 무명인지를 골똘히 사유해야 하는 것이다.

사유는 저울이다. 사유의 저울 양끝에 올려놓은 그릇이 없다. 그렇다면 올바른 사유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저울은 언제나 균형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저울 끝에 그릇을 만들어 무게를 달려는 놈이 분명히 생긴다. 무게를 다는 그놈을 밀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그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놈의 실체를 온전히 다 볼 수 있다. 오온덩어리가 바로 무명인 줄 알아야, 무명을 움직이면 무명이 쌓인다는 것을 알고, 움직임 없는 마음을 지킬 것이다.

모든 말, 입을 열고 하지 않은 줄 누가 알까?
말이 흘러 귀를 통과하게 하지 말라
입으로 뱉는 말 아니니
듣는 말, 입으로 나오는 말 없으니
귀담아 들을 일 없네
속이는 말 같지만
그 속에 들어야 할 소리, 없는 소리 있다네
숨겨 놓은 것은 아니지만 숨겨 놓은 것처럼 보일 뿐
가만히 듣고, 가만히 두어 보게
모든 것 그 곳에 다 있으니

〈(사)여시아문 선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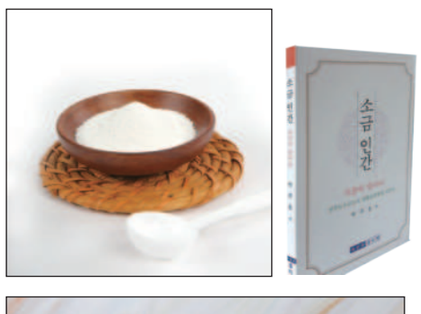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진주정사
- 주 지 : 석윤 (속명 : 윤정오)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창렬로 205-16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3일

대광불교 조계종 종정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형통사
- 주 지 : 혜운 (속명 : 진도국)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월용1길 53-111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한국불교 미륵종 총무원장 법하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83호 | 17 | 전면광고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한 공덕보다 금강경 사구게 만이라도 남을 위해 설해준 공덕이 더 수승하다.



부처님 말씀 읽기 - 《금강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 합장 010-3586-6091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양도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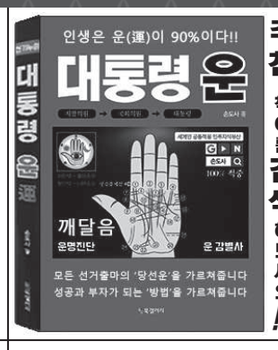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49재 · 천도재 · 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 의 010-6785-1130, 010-5270-8260

자비행법 전수인 모집

지장보살님의 점찰행법
아미타불님의 현행참법

❊ 사부대중의 전수인을 00명 모집합니다 ❊

유튜브. 법장TV를 참고하세요
지리산향기암 법장행자

010-2367-0086

작법무 연수원

천수바라부터 작법 및 염불, 사물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밀히 지도합니다.

010-2635-9386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종 각
일주문 삼성각

원명 010-4300-9104

• • •
비구니 기도스님,
보살 모십니다.
지리산 작은암자
• • •
010-4569-3722

• • •
청주 봉은사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 • •
010-5883-2255

• • •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특수불 각 한분씩
(높이105cm, 좌대30cm)
모셔갈분 찾습니다.
• • •
010-5353-3936

가피와 맞춤기도

스님에게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절간사주 · 타로 · 인상학 · 수상
특별비법 **비구니 스님**께만 전수 **수강료 100만원**
★**간절하게 꼭 배우고 싶은 비구니 스님만 문의 주세요**★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 • •
경상도 고향인 30대 후반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주소 : 함안군 군북면 밀림사
주지 : 지웅 합장(76세)
• • •
010-6893-5040

• • •
부전(기도)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 •
010-8620-4303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스님들의농장 운영보살

- 도고온천에 2박3일
- 불자들은 무료로 콩새싹밥 칡밥에 도전하시고져 하는분
- 고졸이상 운전 컴퓨터 음악이나 글짓기
- 임명이 결정되면 준성직자 100일 교육
- 지장성모님 해탈세계 밝고맑은 사람들

만불사 043-745-3332
010-3410-0004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2078-9595

음향기기 설치봉사

음향업자가 아닙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사찰에서 사무장을 맡았을 때 주지스님 부탁으로 음향장비 설치를 시작했고, 주변 스님들께서 일부 업자들의 **견적 부풀리기**, **불필요 장비설치**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으시는 모습을 보고 도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찰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사찰에서 원하시는 장비로만 구성하며,
· 모든 장비는 인터넷 최저가로 구매,
· 별도의 설치비는 없고, 거리에 따른 출장비만 발생
· 사정이 어려우신 사찰은 중고장비라도 구해서 설치

문의 : 010-2068-7030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732-1520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83호 | 18 | 전면광고

만약 근기가 총명하고 지혜가 밝으며 많이 듣고 널리 알아서 불도를 구하는 이 있거든 이 같은 사람에게는 경을 설할지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화경 방편품》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수도권
◎ 경내부지 : 250평
◎ 건평 : 50평
◎ 수도권, 산, 주차가
◎ 매가 : 3억3천
◎ 위치 : 전국
◎ 부지 : 1000평-10만평
◎ 건평 : 120평외전각
◎ 천년사지, 외
◎ 매가 가격다양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경남 양산 위치 사찰
- 부지 총면적 : 718㎡(217평)
- 건물 총면적 : 224.82㎡(68평)
- 가액 : 7억8천만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

010-5421-153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5천(조정 조금 가능)
- 가전제품 보시합니다.
- 당일법회 가능합니다.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찰부지 및 토굴터

- 위치 : 경남 산청군 생초면 향양리 (924번지, 925번지)
- 면적 : 800평(국유림內 소재), 생산관리 지역
- 특징 : 정남향, 주변 소나무 및 암반, 포장 완료, 버스 진입가능, 물1급수, 주변 민가없음,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3억

010-8516-33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서포면
- 부지 : 대지,전,답 1,800여평
- 바닷가 부근
- 대웅전, 주지실, 큰방
- 가액 : 13억

010-9178-6397

3층 상가주택 안내

- 위치 : 김천시 부곡동
- 대지 약 98평
- 1층 : 상가3칸 세나옴
- 2층 : 주택 전세3천
- 3층 : 학원하던곳, 포교당자리
- 가액3억에서 3천만원 빼드림

010-4999-5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11억

010-4547-0023

사찰(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보문산 입구
- 2층 43평, 시설금 7백만, 보증금 3백 합 1천만, 월세 30만
- 법당, 요사채(2), 공양간
- 시설완비(에어컨2, 냉장고, 냉동고, 순간온수기, 전기증설, 판넬, 도배, 장판, 음향)
- 5년전 인수금액보다 5백만 절상

보문산 지장사 무진

010-3049-581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 통도사에서 15분, 양산IC에서 15분
- 총평수 : 588평, 법당 단독 기와집 주방 방3개 46평, 양지, 영축산을 등지고 천성산을 바라봄, 산신각 전통목조 6평, 콘크리트조 9평, 지하수(청옥 암반수), 시수도 연결되었음, 농사용 전기, 저온창고
- 융자 3억, 평당 2백30만

010-5309-9117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 344~43번지
- 대지 : 500평
- 법당 : 30평
- 요사채 : 20평
- 가액 : 6억

010-3640-3128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4억 8천만원

010-7710-8334

절 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지하철1호선 소요산역 25분거리)
- 면적 : 전 450평, 도로접
- 건평 : 23평
- 가액 : 2억5천만원
- 잣나무숲, 정남향
- 주인직접

010-5069-7054

옛 암자터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마천면 구양리
- 전 232번외 다수 필지 860평
- 자연수 나옴, 생산관리지역, 자연경관 좋음
- 가액 : 1억2천

010-7305-505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
- 층/평 : 3층 / 90평
- 보증금 7천만원, 월세 50만원(조정가능)
- 시설금 및 입주조건 : 협의 결정

010-7726-1105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 -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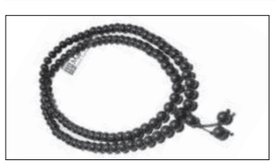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엽 스님의
자연힐링차
⑦ 차와 건강

한국 약차로 100세 인생 건강하게

바야흐로 100세 시대다. 하지만 '100' 이라는 숫자에만 의미를 두고 단순히 '수명연장' 에 그친다면 그것은 인류가 진정으로 바라는, 행복한 '100세 시대' 가 아닐 것이다.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사는 것이 진정한 '100세 시대' 일 것이다. 100세 인생을 진실로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따뜻한 물과 차 그리고 약차를 마시는 것을 생활화하기를 권한다. 유아기 어린이부터 청년 중장년 노년기까지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쉬운 건강비결로 따뜻한 약차를 마실 것을 권하고 싶다. 실제로 일본의 종양내과 의사인 사이토 마사시는 "모든 병의 원인은 저체온에 있다"고 한다. 2010년 책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가 나오기도 했다. 약차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그보다 먼저 이 이야기를 꼭 이해해야 한다. 몸이 차가워지면 우리 몸속의 정기혈 가운데 기순환과 혈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정기가 얼어붙어 몸은 꽁꽁 굳고 말 것이다.

첫 번째, 기순환이 잘 안 되면 뱃속이 차갑고 그로 인해 질병과 노화(암, 뇌질환 중풍, 심혈관질환 ,정신질환)가 찾아온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따뜻한 물과 천연 미네랄 영양분과 항산화 항암에 뛰어난 우리 약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정체불명의 법제도 거치지 않고 건조된 향기로 마시는 허브티나 지나친 양의 카페인 볶음 음료, 과당의 탄산과 라떼 시럽이 잔뜩 들어있는 음료와 방부제 표백제로 만든 밀가루 등의 음식도 우리의 수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큰 요인 중 하나이다. 서구화로 인한 인스턴스음식, 유전자변형의 GMO음식과 기름에 쩐 튀김음식, 신경안정제와 수면유도제 등은 우리들의 신경을 점점 잠들게 한다.



이제는 스스로 의식주를 살필 줄 아는 지혜로운 소비를 지향해야 한다. 방송가의 쇼 닥터와 홈쇼핑에 의한 구매가 아닌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음료와 자연의 음식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조리 가공법에 대한 연구와 체질에 맞는 음식도 주부와 가족 공동체의 역할이다. 사회의 누구도 자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는다. 오직 스스로 깨어나 자기 자신을 잘 살필 줄 아는 건강한 소비자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시대상황을 거슬러 가기위한 발걸음과 진실한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수제 약차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약재와 약초인 뿌리, 줄기, 꽃, 열매를 특별한 법제법을 통해 만든 한방차다. 100℃ 물만 부으면 5초 안에 가볍게 마실 수 있도록 간편하게 티백형태로까지 나와 있다.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만성통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좋다. 코로나로 인한 힘든 이 시대는 아주 특별한 면역력이 필요한 시대이다.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호주 뉴케슬대학 영양식이학과 교수인 클레어 콜린스는 '당신의 면역체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돕는 비타민 영양소' 라는 주제로 웹사이트 컨버세이션 논문을 기고하며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효과적인 영양소인 비타민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 식품 케뮤니케이션 포럼에서도 우리 몸을 보호하고 지키는 비타민A부터 E까지는 어느 것 하나 빠트릴 수 없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나 또한 바이러스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천연비타민, 무기질을 생명의 영양소라 칭하며 특히 한반도의 무한한 광물의 에너지를 섭취한 우리 약초를 통해 법제된 계절약차와 한방차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뿐만 아니라 제2, 3의 위험한 바이러스에 대처할 생명수라 말하고 싶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자면 차(茶)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음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차의 원재료인 원물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독성 물질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생식, 생야채, 겉절이를 즐기는 음식문화에서 내가 차를 만드는 노동과 정성 시간 마음을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렉틴 글루텐이라는 성분과 농녹균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채가 좋다하니 무조건 날것을 갈아 생즙으로 유행처럼 마시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성분과 농녹균 벌레가 우리의 첫 번째 호흡기(기관지, 폐)를 공격하기도 하며 우리의 혈관염증을 유발시킨다. 차는 일반음식에 비할 수 없는 정성과 노동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반음식인 날 채소에 들어 있는 '렉틴 글루텐' 이라는 성분에 대해 알고 계신지 묻고 싶다? 동식물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단백질 복합체로 식물이 동물과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결정적 종족보존 무기이다. 매일 먹는 생야채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잠시 렉틴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렉틴은 식물을 어떻게 보호하가? 식물의 씨앗 낱알 껍질 잎에 든 식물을 소비한 포식자 몸에 들어가면 탄수화물 특히 다당류라고 불리는 당질 결합체와 대사 기능에 의해 복합하면서 렉틴은 몸속의 다른 유기체와 특히 곰팡이 곤충 다른 동물의 세포 표면을 표적 삼아 달라붙어서 시알산 모든 혈관 표충 세포를 포함해서 장 대노 신경 말초 관절 체액에서 발견되는 당분자와도 결합한다. 렉틴은 흔히 끈적끈적한 단백질로 불리며 혈액의 염증유발, 세포들을 흐름을 교란시키며 세포간 통신 방해와 독성을 만들고 면역체계를 산란하게 한다.

나는 한국의 약차를 권하여 또 여러분도 차로 몸을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싶다.

〈체질별약차 전문점 마음정원 대표〉



박주용의
&건강
⑦ 소금 제조 기술이 다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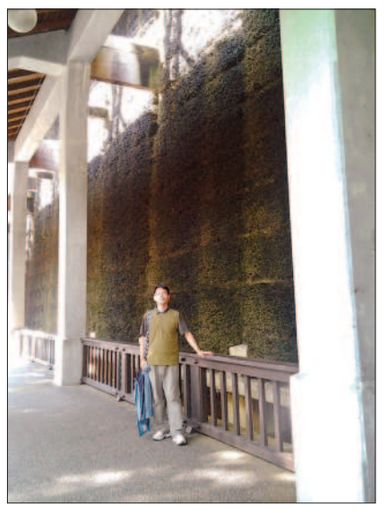
각자 몸에 맞는 소금 사용해야

나는 여행을 할 때 소금 제조 시설을 관심 있게 본다. 그때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너무나 다른 시설들과 제조방법에 놀라게 된다. 왜 나라마다 지역마다 소금 제조시설이 다를까?

유럽지역을 여행하다보면 대한민국에서는 볼 수 없는 소금 관련 시설이나 장치들을 많이 보게 된다. 거대한 구조물인 경우도 있고, 수십 킬로미터로 이어진 소금물 이동길도 있다. 때로는 지하로부터 소금물을 길어 올리는 거대한 펌프인 경우도 있고, 길어 올린 소금물을 농축하는 농축장치도 있다.

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염전 형태의 소금 제조 시설을 많이 보게 된다. 물론 염전 시설이라고 해도 나라마다 다르다. 조그마한 염전들도 있고, 넓은 염전도 있다. 바닷가 염전도 있고 육지 내륙 깊은 곳에 위치한 염전도 있다.

내륙 국가를 여행하면 암염 관련 시설들을 많이 보게 된다. 땅속 깊은 곳까지 굴을 파서 암염을 채취하는 시설도 있고, 고압의 물을 밀어 넣어서 암염을 녹여낸 물로 소금을 만드는 시설들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암염을 그대로 사용하는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녹여서 재결정화시키는 방식을 택한다. 암염에는 불순물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성분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용이나 산업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유럽의 소금물 농축장치

이처럼 소금 제조 시설과 소금 제조 방법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다. 이렇게 소금 만드는 방법들이 다른 이유는 소금을 만드는 원료 즉 해수 혹은 농축 염수의 확보 방법, 필요로 하는 소금의 종류, 그리고 기후조건, 증발을 위한 원료확보 여부 등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소금을 수입에 의존하다가 소금 증발에 석탄을 사용하면서 소금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산업혁명에 성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만들 수 있었다.

독일 같은 유럽의 북부 내륙 국가에서 특이한 시설들을 자주 볼 수가 있다. 하나는 소금물을 멀리 이동시키는 소금물 이동통로와 나무를 이동시키는 시설 그리고 소금물을 증발시키는 수백 미터의 거대한 증발장치가 그것이다. 소금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화석연료가 소모된다. 문제는 이들 소금물과 연료가 같은 곳에 무한정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지역은 소금물의 증발을 위해 연료인 나무가 많은 곳으로 소금물을 이동시켜서 그 지역의 풍부한 나무를 연료로 하여 소금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나무를 강이나 운하를 이용하여 소금물이 있는 곳으로 운반하여 소금을 만들기도 하였다. 나무를 운반할 것인지 아니면 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소금물을 운반할 것인지, 경제성에 따라서 소금공장의 위치가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확보한 소금물의 농도가 낮으면 거대한 소금물 농축장치를 사용하여 물을 반복 순환시켜 증발 농축한 후 마지막으로 끓이는 장치에 넣어 소금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들기도 한다.

화학공업용으로 고순도의 소금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온교환막을 이용하여 고순도 소금을 생산하여 산업에 이용하였다. 고순도의 소금은 이온교환막을 이용하여 염화나트륨만을 모아서 소금을 만들거나, 암염을 물에 녹여서 이물질 및 다른 미네랄을 제거한 후 고순도의 소금을 만들기도 하고, 천일염을 만든 후 세척 등의 방법으로 염화나트륨 이외의 미네랄을 제거하여 고순도의 소금을 만들기도 하였다.

만드는 원료 염수가 다르면 같은 천일염도 만드는 방법이 달라진다. 보통의 천일염은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든 간수 성분의 물은 더는 농축하지 않고 소금만을 수확한 후 나머지 물을 그냥 버린다. 물에 들어 있는 간수 성분이 소금에 포함이 되면 소금이 써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티베트나 페루 등 지하 염수를 사용하는 염전에서는 염전의 모든 물이 증발될 때까지 내버려 둔다. 모든 염수가 증발하여 소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즉 염수의 모든 성분을 소금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소금을 만들어도 이들 소금은 쓴맛이 적은 소금이 된다. 그 이유는 소금의 원료인 지하 염수에는 간수 성분이 없기 때문이다. 지하염수는 암염이 녹은 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암염지역에 물이 스며들어 녹아 나오는 물이 지하 염수이고 염정이라 불리는 소금 우물이다. 암염은 암염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간수 성분인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이미 다 제거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소금이기 때문에 이들 소금이 녹은 물 역시 이들 미네랄이 거의 없다. 그러니 모두 증발을 시켜도 염화나트륨이 대부분인 소금이 되고 쓴맛이 거의 없는 소금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들 지하염수가 녹아 나오는 과정에서 땅속 흙의 일부 미네랄이 녹아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이처럼 소금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원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는가에 따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선택하여 용도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용 중에서도 화학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소금은 고순도의 염화나트륨으로 이루어진 소금이 좋다. 식품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소금은 염도가 표준화된 소금이 좋다. 건강을 위해 먹는 소금은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이 좋다. 물에 타 먹는 소금은 미네랄이 풍부하면서도 이온화가 잘되어 미네랄 흡수율이 빠른 소금이 좋다. 나는 어떤 이유로 어떤 지역, 어떤 방법으로 제조한 소금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을까? 용도에 맞는 소금, 각자의 몸에 맞는 소금을 찾아서 사용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

〈(주)오씨아드 이사〉

일일시호일

"엄마, 소리 한 번이라도"…
심장 혈관 막혀 생사 갈림길 선 아기

희망 찾아 베트남에서 온 후이티공씨 부부…4년 만에 후이뚜언 출산
심부전 등 진단 산소호흡기 없이는 호흡불가…병원비만 수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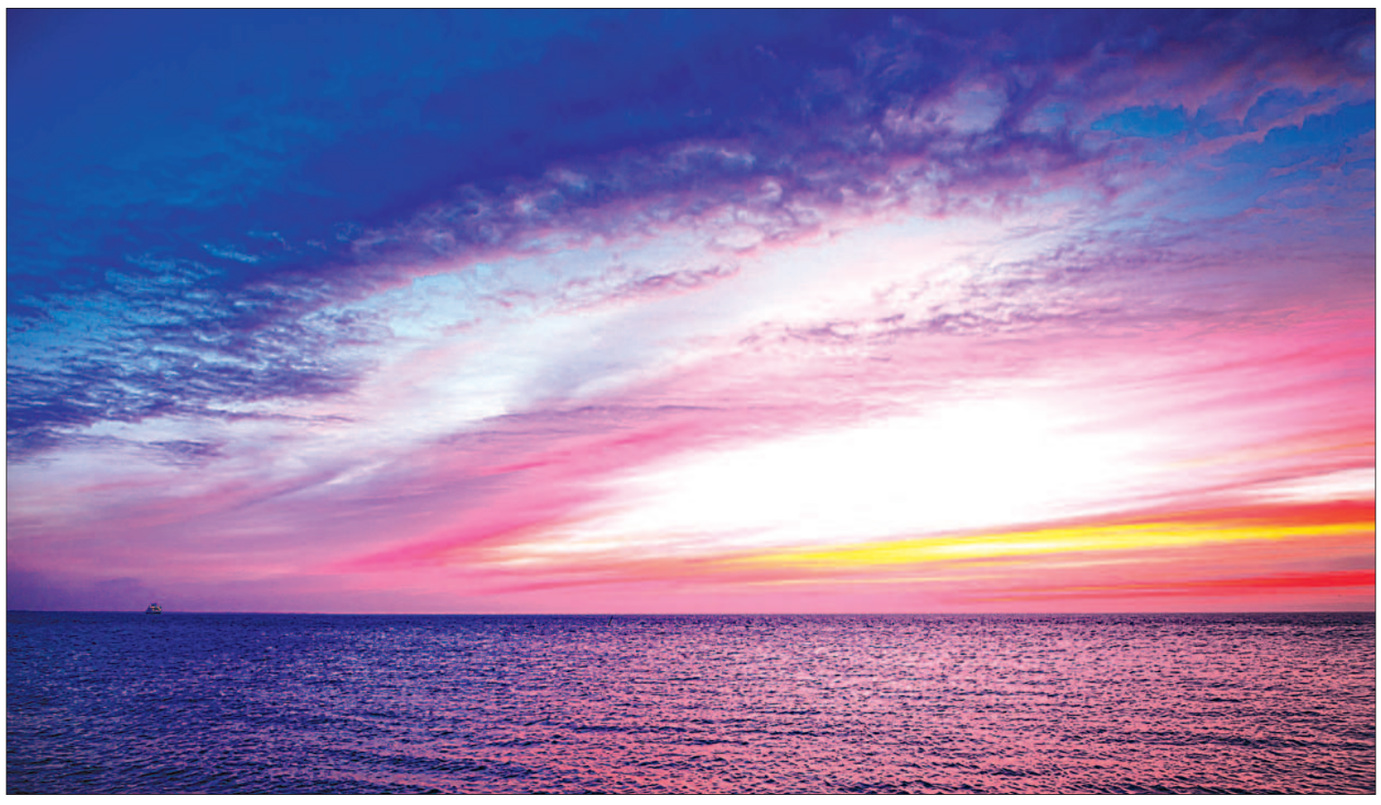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문현공 교수의 **죽음학과 불교** 4 죽음의 공포



▶한줄요약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삶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 있다.

죽음 공포, 참회의 단초 되다



만약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본다면 어떨까. 삶의 끝, 다시 말해 '죽음'과 연상되는 이미지들은 평화, 고요, 휴식보다는 두려움, 불안, 공포, 고통, 슬픔, 후회 등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들일 것이다. 임종이 목전까지 다가오면 육체적 고통, 남겨질 가족들에 대한 불안, 삶을 미완성인 채로 끝내야 한다는 불안, 죽음의 길을 오로지 혼자 걸어가야 한다는 공포 등이 떠오를 것이다. 특히 죽음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공포와 불안이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공포와 불안은 궁극적으로 무명에서 생성되는 것이지만, 혹시 무언가 다른 이유는 있을까? 왜 우리는 죽음을 공포스러운 것, 불안한 것으로 느껴야만 할까?

사실 공포와 불안은 두가지 모두 불쾌하고 두려운 감정이 담긴 말로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심리학자 폴 웅(Paul Wong)은 '공포'는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귀신, 동물 등) '불안'은 정확히 어떤 것이 원인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두려운 상태라고 말한다.

죽음이 고통과 불안에 연결되는 가장 큰 요인은 '고통'일 것이다. 초기경전에는 종종 죽음에 이를 때의 고통, 그리고 이에 불안과 관련된 언급이 있다. 〈잡아함경〉, '차마경(差摩經)'에는 차마 비구의 고통에 대한 묘사가 있다. "제 병은 차도가 없어 몸이 편안하지 않으며 갖가지 고통은 갈수록 더해져 나을 길이 없습니다. 만일 힘센 사람이 쇠약한 사람을 붙잡아 끈으로 머리를 매고 두 손으로 세게 당긴다면 정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지금 제가 겪는 고통은 그보다 더합니다. 만일 백정이 날카로운 칼로 소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낸다면 그 소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 복통은 그보다 더합니다. 그리고 마치 힘센 사람 둘이서 쇠약한 사람을 불 위에 매달아 놓고 두 발을 태우는 것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발의 열은 그보다 더합니다."

〈중아함경〉에서도, '여러 비구들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비구가 번열하지 않고 죽으며 번열하지 않고 목숨을 마칠 수 있습니까?"' 라는 죽음에 이를 때 겪을 고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언급이 있다. 이에서 번열(煩熱)이란 타는 듯한 고열이 나며 가슴이 꽉 막힌 듯한 고통을 뜻하는데 번열함 없이 목숨을 마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죽음의 고통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죽음에 다다르면 통증을 수반할 것이고 이 통증은 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된다. 통증의 유형에는 날카로운, 아리는, 욱신거리는, 타는 듯한, 쏘는 듯한, 찌르는 듯한 등의 종류가 있으며 기간에 따라 급성통증, 만성 통증이 있다. 또한 통증은 단순히 고통을 육체적으로 감각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울증(depression) 같은 심리질환을 수반하기도 한다. 통증은 어떻게 보면 죽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통증이 없다면 죽음이 한결 수월하지 않을까.

생명연장에 대한 희망
죽음의 공포로 확장돼
참회와 감사의 삶 전환
호스피스 과정서 발견

〈중아함경〉에서는 '번열없이 목숨을 마치는 방법'에 대해 아나율타(阿那律陀, Aniruddha) 존자는 세 가지로 답한다. 첫째로, "만일 비구가 몸(身)을 관찰할 때 (나의 몸이라는 집착을 버리고) 그저 몸 그대로를 관찰할 수 있다면, 또한 감각(覺)과 마음(心), 법(法)을 관찰할 때에도 감각과 마음과 법을 사실 그대로 관찰하게 된다면 번열하지 않고 (고통없이) 목숨을 마칠 수 있습니다."고 말한다. 몸, 감각(느낌), 마음, 법은 불교의 대표적인 마음챙김 수행인 사념처(四念處)수행을 뜻하며 고통을 일으키는 자신의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고통을 느끼게 하는 감각과 마음을 붓다의 법에 근거해 꿰뚫어 본다면 고통없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로 아나율은, "자애로운(慈) 마음을 온 공간에 두루 채워, 한(恨), 원망, 성냄, 다툼이 없이 광대하고 끝없는 선행을 닦고 성취해 온 세상에 두루 채우고 노닐 수 있게 된다면, 연민(悲)의 마음, 함께 기뻐함(喜)의 마음, 평온(捨)의 마음을 온 세상에 두루 채워 한, 원망, 성냄, 다툼이 모두 없이, 광대하고 끝없는 선행을 닦고 성취해 온 세상에 두루 채우고 노닐 수 있게 된다면 번열하지 않고 (고통없이) 목숨을 마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아나율의 언급은 불교의 사무량심(四無量心) 수행을 의미한다. 사무량심은 자신과 세상을 자비로운 사랑으로(慈), 연민의 마음으로(悲),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喜)으로, 차별없는 평등의 마음(捨)으로 헤아릴 수 없이(無量) 많은 중생에게 자신의 마음을 확장시키는 수행이다. 시기, 질투, 탐욕, 분노 같은 인간을 고통에 몰아넣는 마음들을 제거하고 자비희사의 마음으로 나와 세상을 두루 채운다면 임종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아나율은 "지혜로서 관찰해 모든 번뇌를 제거하면 번열하지 않고 목숨을 마칠 수 있습니다"고 하며 지혜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것, 다시 말해 불교의 궁극적인 측면에서 생사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죽음학에서는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어떻게 설명할까? 생사학의 대가 알폰스 디켄(Alfons Deeken)은 그의 저서, 〈인문학으로서의 죽음교육〉에서 죽음의 공포와 불안의 유형들을, 고통에 대한 공포, 고독에 대한 공포, 불쾌한 체험에 대한 공포, 가족에게 부담을 준다는 불안, 미지의 세계를 눈앞에 둔 불안, 혹은 사후의 심판이나 벌에 대한 불안으로 구분한다.

'고독에 대한 공포'는 죽음을 오롯이 혼자 겪어야 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말한다. 죽음은 개인이 각자 다른 시간 속에서 혼자 겪어야 할 몫이다. 가족이나 친구도 그 고통을 동시에 함께 할 수 없다. 죽음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이며 한 번 가버린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그 누구도 상세히 알려줄 수 없다. '불쾌한 체험에 대한 공포'는 주로 말기 환자에게 일어나는 공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를 말한다. 말기 암환자들의 경우 항암치료가 진행될수록 몸이 몹시 야위거나 구토, 탈모증상도 겪게 된다. 배변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해 기저귀를 차거나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살아오며 나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왔건만 간난아이처럼 타인의 손길을 기다려야 한다.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자신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공포로 다가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족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불안'이 있다.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부착 등의 시술이 행해지는데 이는 말 그대로 연명(延命)만을 위한 시술이다. 당사자가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에게 존엄한 죽음을 제공하며 또한 무의미한 지출을 방지한다. 연명 시술을 하면 길면 몇 개월 짧으면 며칠 혹은 극단적인 경우 몇 시간밖에 더 살지 못한다. 그러나 시술 후 가계에서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 물론 환자의 가족은 단 하루, 단 몇 시간만이라도 살아 있기를 바라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하는 환자는 드물 것이다. 무엇보다 환자는 매 순간 반복되는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죽음을 공포와 불안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걸까.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걸까. 공포와 불안은 오로지 부정적이기만 할 것일까.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인간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바로 '생존본능' 때문이라 말한다. 일상의 삶에서 위험에 닥쳤을 때 공포와 불안의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판단(공격할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공포나 불안이 인간의 감각과 주의력을 예민하게 끌어올리고 동시에 근육에 신호를 보내고 신체의 운동성을 증가시켜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한 행동을 준비시킨다고 말한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죽게 되는 사건들에는 대부분 '부주의'한 경우가 많다. 무단횡단, 건설현장의 낙사 혹은 폭발 사고,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높은 곳 혹은 물가에서 하는 무모한 행동 등이 그렇다. 만약 주의해야 할 순간들에 공포나 불안이 작동하면 우리의 주의력을 '각성'시켜 현재의 위험을 살피게 한다. 공포와 불안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는 것이나 인간의 결함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진 공포와 불안의 역할은 생존을 위한 도구에만 한정될까.

폴 웅(Paul Wong)은 죽음이 미지의 세계, 사후 심판 등의 두려움으로 표출되는 마음의 이면에는 생전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속죄 혹은 구원의 기회를 잡고 싶은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한다. 생전에 지은 잘못을 딱히 반성하지 않았는데 죽음과 가까워지게 되면 사후의 문제에 대한 불안함과 공포심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는 이러한 정서들은 죽음이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고 삶을 돌아보게 만들며 자신이 했던 과오들을 떠올리고 반성하게 한다. 이러한 일련의 심리 과정이 공포와 불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바로 불안과 공포가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는 '계기'임을 뜻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불안과 공포의 또 다른 역할은 바로 자신이 저질렀던 행위를 환기(喚起)하는 기능이 있다.

죽음 곁에 매달려 있는 공포와 불안은 안일하고 무감각한 정신을 파고들어 비상벨을 울린다. 이는 마치 넋이 나가 멍하니 있는 사람의 뺨을 때려 정신이 바짝 들게 하는 영화 속 장면과 유사하다. 그리고 공포와 불안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참회를 불러일으키는 계기 또한 된다. 이렇게 보면 죽음의 공포와 불안은 마치, 앞면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형상을 띠고 있지만 뒷면은 생명의 존속과 마음의 전환이란 모습을 하고 있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동국대 응용불교학 전공 조교수〉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대행 스님

정신계 물질계를 벗어나야 자유권을 가질 수 있다

관할 때 마음은 어디다 두나요

질문 '주인공!' 하고 관할 때 입으로는 '주인공' 하는데 마음은 어디다 두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인간이 태어났으면 본래 자기 뿌리와 싹이 동시에 같이 태어났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게 염주가 되려면 줄에다 알을 꿰어야 염주가 되죠? 그렇다면 사람도 염주와 같이 그렇게 겸해서 가지고 나왔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야 하고 어디를 믿어야 하고 이런 게 없이, 육신과 정신계가 본래 이렇게 꿰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주알은 어디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염주를 꿴 줄이죠?

이 줄은 정신계라고 비유할 수 있고, 이 알은 물질계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주는 불가부득 누가 믿어라, 안 믿어라 할 게 없이 이 줄을 믿어야 하겠죠. 그런데 믿는다는 언어도 붙지 않는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그대로니까, 그대로 꿰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염주가 되듯이 인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위치에 놓여 있으면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해야죠?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필요하죠. 그럼으로써 "그대로 믿어라, 그대로 믿어라. 그대로 같이 겸해서 있으니 그대로 믿어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다면 줄이다 알이다 이런 이름을 찾을 필요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비유를 할 때에 싹은 뿌리에 붙어 있고 뿌리는 바로 싹을 살리기 위해서 생긴 거니까, 그렇게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으니까 무조건 믿어야지요. 바로 싹을 내게 한 장본인이기도 해요, 뿌리가! 그리고 모든 것은 그 뿌리가 흡수해서 올려보내니까요. 싹은 또 모든 걸 흡수해서 아래로 내려보내고요. 이런 거니까 내가 "이걸 믿으시오!" 이러지 않아도 그대로 결집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염주는 이 줄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소립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저 은하계나 태양계도 그렇지만 지구도 그렇게 이 염주알처럼 줄에 매달려서 돌아갑니다. 이 마음의 줄에서 한 치도 어긋나지 않고 돌아간다 이겁니다. 인간도 이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 줄은 매듭도 없고 시발점, 종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알은 시발점이 있고 종점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이 안에서 훌떡 벗어나야, 정신계 물질계를 벗어나야 자유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물질계 테두리 안에서는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이 정신계로 무(無)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광대무변한 묘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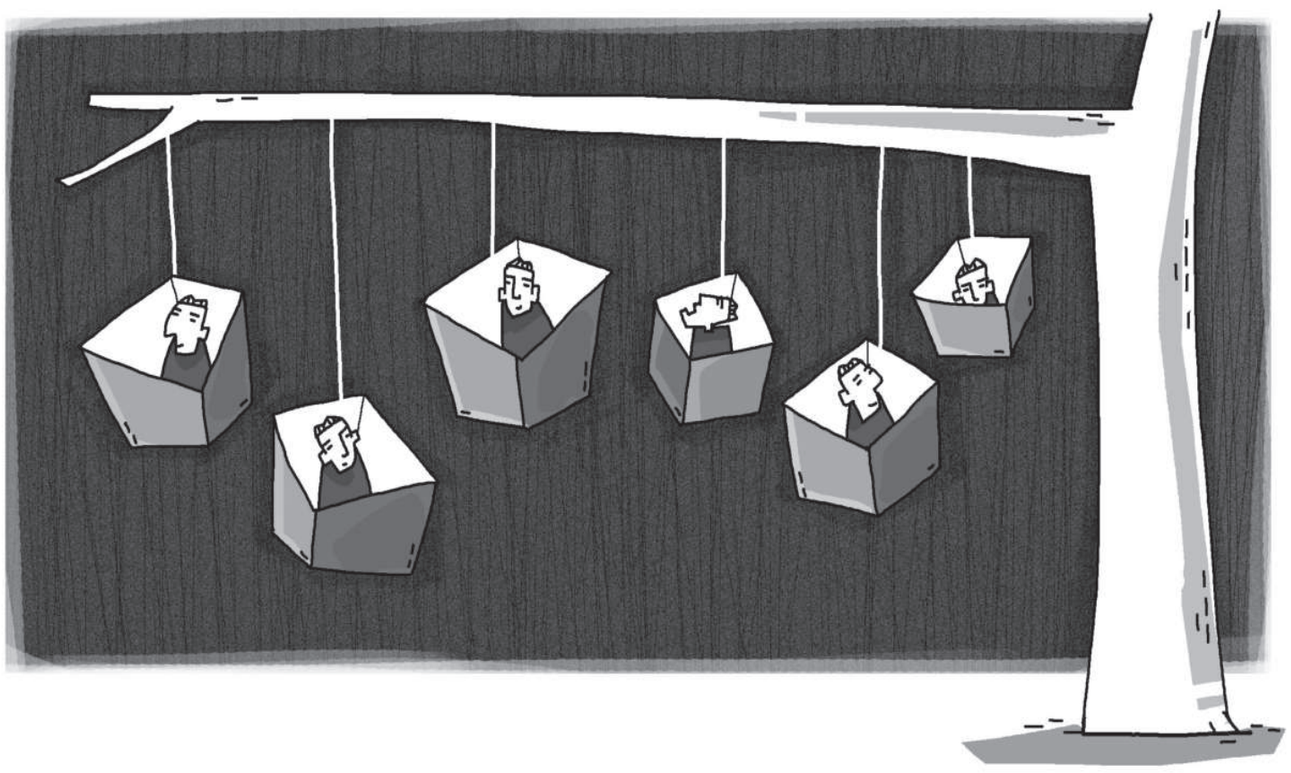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 이걸 내가 믿으란다고 믿지도 말고, 믿지 말란다고 안 믿지도 말고, 또 누가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무조건 자기 뿌리는 자기 싹을 지니고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부처님의 뜻과 돌아가는 인간 생활 자체와 진리가 바로 합류화되어야 진리지 만약에 거기에서 벗어난다면 이거는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누가 믿어야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듯이, 염주알이 자기 줄을 믿듯이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 염주알이 저절로 이 줄에다 꿰어져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꿰어졌기 때문에 염주알은 걱정도 안 해요. 줄 끊어질까 봐 걱정도 안 하고,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대로 줄을 믿고 그냥, 믿는다 안 믿는다도 없이 그냥 하면, 그대로 움죽거려져요. 그러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대로 믿으시고 거기에 맡겨 놓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 뿌리를 믿지 못해서, 맡겨 놨다가도 못 믿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한 번 맡겼으면 맡긴 그 자체가 아주 뚜렷하게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그런 마당에서 좀 시일이 가서 풀릴 수도 있고, 시일이 안 가고 단박 풀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바로 천차만별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조급해서 "아이구, 요렇게 맡겨도 안 돼! 안 돼!" 하는데 그렇게 못 믿을 것이면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게 불찰이 아닙니까, 네? 뿌리로 인해서 싹이 났는데, 자기 영혼의 뿌리가 자기를 형성시켰는데 그렇게 못 믿어서야 어찌 삶을 보람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워 가지고 믿어야 되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본래 꿰어져 있으니까 믿어라' 이겁니다. 이름을 믿을 겁니까, 형상을 믿을 겁니까? 이 세상에 누굴 믿겠습니까? 아, 이 세상에 누굴 믿어요, 네? 부부한테도 할 말 못 할 말 가려서 해야 되고 자식한테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알고, 슬프고 즐겁고 한 거는 자기 뿌리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즉, 마음 내기 이전의 마음은 죄 알고 있는 겁니다. 마음 내는 건 아무렇게나 막 그냥 나오는 대로 마음을 내겠지만 마음 내기 이전의 마음은 아주 정확합니다. 더하고 덜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낼 때 마음의 선장은, 잘못 내걸랑은 다스려서 거기 놓고, 잘 내걸랑은 '잘 내게 해서 감사하구나. 나를 가르치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즐겁게 내 주니 감사하구나.' 그러고 거기다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주고 안 주고가 없습니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지, 누가 '해라 하지 말아라, 지어라 짓지 말아라' 이런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라면 부처 될 수 있는 능력이 99%가 됩니다. 이건 한 찰나 생각만 잘한다면…, 어렵고 가난하고, 못나고 잘나고 간에 반드시 줄에 꿰어져 있는 염주알과 같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염주알을 꿴 그 줄을 믿어야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다스리고 행하고 거기 놓고, 잘못된 것도 거기서 나오는 줄 아시고, 바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줄 아시고 그 자리에다 되놓으신다면, 앞서 게 없어지고 새 입력이 들어가면서 보람 있는 새 삶이 나온다 이 소립니다.

탐진치 삼독심 제거하려면

질문 우리가 마음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탐진치의 삼독심을 제거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발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정진할 수 있을는지요.

답변 그거 걱정 없어요. 삼세, 삼심, 삼독 이런 것이 과거, 미래로 인해서 현재,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죽는 순간과 나올 수 있는 순간의 교차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미래가 오늘이죠.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되면 바로 삼세가 되고 삼심이 되니까 삼심이 그 무명을 벗지 못하고 인과를 벗지 못하면 바로 삼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독은 바로 현실의 일심 속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삼독을 어디서 빼내느냐. 그 모두, 지금 내가 작업하라는 대로 그렇게 관하시고 모든 걸 용광로에 넣듯이 거기다 놓으시면 바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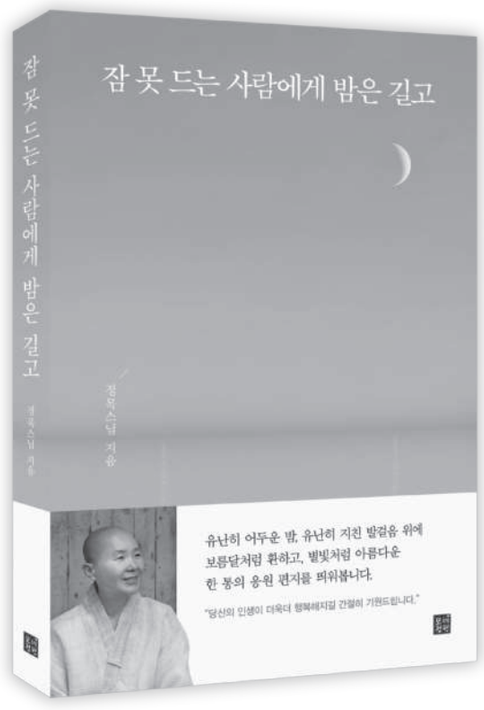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정목 지음 / 248쪽 / 14,000원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모네의 정원 TEL. 02-2004-8253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공해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느니라

☞ 21면에서 계속

로 삼독이 무너지는 겁니다. 삼독이 무너지면 그대로 부처요, 그대로 법신이요, 그대로 화신이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를 하나 건진다, 무명을 벗겨 준다 하더라도 그냥 소의 마음을 나와 둘이 아니게 딱 한데 합치면 두드러지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형체가 없는 거니까 두드러지지 않고 그냥 나로 돼 버리는 거죠. 나의 그 속을 거쳐서 바로 탄생이 된다 하면 꺼내도 줄지도 않고 넣어도 두드러지지도 않는 격이죠, 체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바로 나고 드는 것이 없죠. 나고 드는 게 없이 내 마음이 항상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합류화돼 가지고 돌아가는 게 사무 사유(四無四有)를 한데 합쳐서 중용을 한다는 격이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앉아서 소의 무명을 벗겨 줘도 아프지도 않고 그냥 금방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 껍데기가 없어지는 거죠. 무명이 벗겨지고, 그 영혼은 내가 돼 가지고 바로 환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즉시에 무명이 벗겨지는 거죠. 어떤 때는 지나가다가 도살장에 가는 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에 그냥 그렇게 해 줘요. 그러면 소의 머리를 방망이로 쳐도 아픈 걸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무명을 벗어요. 돼지든지 닭이든지 모두가 그래요.

그러니까 안을 치느냐, 바깥을 치느냐에 달려 있죠. 소도 바깥으로, 달구지를 치면 절대로 안 갑니다. 소가 가질 않죠. 그러니까 소를 쳐야 달구지를 끌고 가죠.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안의 소를 쳐야 바로 소가 작용을 하죠. 작용을 하니까 제도가 되죠. 작용을 하니까 일체가 다 제도가 된다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이 그대로 통신이 되면 어느 한 부분에만 통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을 치면 누진으로 통신이 돼 가지고 사대로 통신이 되는데, 그게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안을 치면 바로 사대, 즉 말하자면 세계로 친다면 세계가 다 통신이 되는 거나 똑같죠. 이 몸뚱이 이 세포 하나하나에까지도 통신이 되니까요.

그렇게 통신이 되면 지금 이것이 어떻고 어떻고 어떤 건가를 전부 다 알게 돼요. 통신을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 통신이 돼서 다 알고 자꾸자꾸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다 보면 둘이 아니게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는 일체가 둘이 아닌 줄 알고, 아래로는 둘이 아닌 도리로 제도하면서 자꾸 안을 치면 그 소가 달구지를 끌고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제도가 된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니라. 위로는 부처를 모시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연들을 맺으세요. 악한 인연을 맺지 말고 좋은 인연과 선덕을 쌓아서 바로 선의 씨로서 이 세상을 두루 한다면 내가 고달플 때 모두 같이 해 주고 모두 같이 들어 줄 수 있고 이렇습니다.

악연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면

질문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들 하는데 악한 인연이 왔을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게 마음을 돌리려고 해도 부정적인 마음이 자연스레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선악의 인연을 다 수용할 수 있을는지요.

답변 긍정이다 부정이다 하는 게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지 두 구멍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너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너한테서 나올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가 놔라 이 소리예요, 한 구멍에다가.

받아들이라는 이치는 나쁜 사람이 나한테 접근을 했다, 접근을 해 온다, 망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이 소립니다. 그 왜냐. 전력에 비유한다면 어떤 용도에 쓰든 전력이 똑같듯이, 나쁘게 하는 사람이나 좋게 하는 사람이나 그 전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천리만리도 멀다 하지 않고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내 주인공에다 모든 걸 놓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할 때에 그 마음과 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응신이라고 그러죠. 만 보살(萬菩薩)이 응신으로 화해서 각계각층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응해 주신다. 나투어 주신다. '나투어 준다' 하는 거는 병을 앓는 데는 의사가 돼 주고, 좋은 데로 못 가서 원하는 사람한테는 지장이 돼 주고, 또 좀 더 살게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칠성이 돼 주고, 이렇게 나툰단 말입니다. 딴 걸로 화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자꾸자꾸 바뀌어서 만나고, 바뀌어서 말하고, 바뀌어서 듣고, 바뀌어서 보고, 발자국을 떼어 놔도 딴 데를 자꾸 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모든 거는 그렇게 해서 해결도 하지만, 그러면 이쪽에서 그것을 받아서 차차차차 잘못되는 그 자체가 잘되게끔 자꾸 연결이 돼서 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비하게 하는 사람도 마음이 야비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건지라는 거지, 악한 거를 버리게 되면 인과가 돼서 또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과 선을 몽땅 다, 하나는 감사하게 놓고, 하나는 그냥 되돌려 놓으라는 겁니다. 남이 그르다 하더라도 자기 주인공에다 들이대고 '너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잖아. 그 사람도 본래 나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깐 그렇게 해.' 하고서 거기다 놨을 때에 그 사람도 마음이 변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건져야죠.

우리가 녹음을 할 때 차례차례로 녹음을 하죠? 녹음한 대로 차례차례로 먼저 한 거부터 나오죠. 나중에 한 거는 맨 끄트머리로 나오죠. 그렇듯이 여러분도 과거에서부터 녹음이 돼서 차례차례로 쌓여졌다고 할까요? 쌓여진 것이 차례차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례차례로 업이 많이 쌓인 사람이 있고 적게 쌓인 사람이 있는데 그냥 "딴 사람은 그렇게 잘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하고 오는 사람 앞에는 아무 말 없이 "정성이 지극하면 돼."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 업이 너무 쌓여서 그게 모두 다 녹아야 되니까 나온 자리에다 되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앞서 입력된 게 자꾸 없어지면서 줄어들 텐데, 그래서 그게 거반거반 다 됐으면 '어, 이제 거반거반 다 되는구나.' 이렇게 속으로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빨리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악업들이, 모두 나쁜 고가 쌓인 것이 차례차례로 없어지는 거니까 좀 인내가 있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고, 실천적이고 평등하고, 이해성 있고 지혜롭고 이래야만이 입력된 걸 무난히 다 폐지시킬 수가 있죠. 새로 좋은 마음으로 입력된 게 나올 시기가 될 때까지 말이에요.

일이 안 풀려 마음이 힘듭니다

질문 요즘은 집에서 조용히 공부할 수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는 일이 잘 안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마음이 좀 답답하고 힘들어집니다. 모든 걸 주인공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을 보니 제가 믿음이 많이 부족한 듯하여 부끄럽습니다만, 그래도 힘을 낼 수 있도록 채찍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런데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보세요, 싹은 무조건 자기 뿌리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싹 한 잎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런다면 그 뿌리는 뭐라고 할까요? 싹은 뿌리로부터만 나올 수 있고, 뿌리가 썩질 않아야만이 싹도 싱싱하게 푸르르게 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능력을 가진 뿌리를 놔두고도 그 싹은 이파리 하나하나가 바람에 날리면 괜히 '아이고, 이거 바람에 또 날리는구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뿌리가 있는데 뭐가 힘이 듭니까?

나무에 이파리가 많듯이 몸 안에도 생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몸 안의 생명체들이 제가끔 댁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니, 그 마음의 선장 뿌리한테다 모든 거를 맡겨 놓아야 자동적으로 거기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지, 댁이 이론으로, 말로 아무리 공론을 해도 그것은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의 의식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마음이 다스려야 다스려지는 거지, 내가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육안, 또는 그냥 이론적인 말로는 아무리 발버둥이 쳐도 통신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스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들의 의식이 전자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입력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거를 마음의 선장한테다가 일임하면 마음의 선장만이 그걸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선장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런다면, 나는 위로는 마음의 선장을 모시고 아래로는 모든 생명들의 의식을, 지금 생명들을 다 거느리고 사는 집합소며 심부름꾼이며 관리인이다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공생이지 댁의 몸뚱이에서 생명이 하나라도 튀어나와서 따로 살 수 있습니까? 따로 살지 않죠? 댁의 몸속에서 다 같이 살죠? 그러니까 공생이죠.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거 먹을 때, 어떤 거 볼 때, 어떤 거 할 때, 어떤 거 들을 때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나 혼자만이 산다고 하며, 나 혼자만이 똥을 누었다고 하며, 나 혼자만이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생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모든 거를 합해서 다스리면서 돌아가는 이 주인공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뿌리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만 믿고 거기다가 맡기면 다 거기서 다스려서 해 줄 텐데, 왜 관리인 심부름꾼이 그렇게 참섭을 합니까? 일종의 종과 같은 건데. 서로가 공생이고 공용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서로가 소임을 맡아서 제가끔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이 말입니다. 나사가 하나만 빠져도 기계가 돌아가지 않듯이, 지금 공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 혼자만 산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 혼자 발버둥이를 치고 애쓸 필요 없다 이 소리예요.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해라.' 하고 거기에 일임해 버려라 이거예요, 전부! 나는 없어요. 나 혼자가 없어요. 공했단 말입니다, 모두가. "공(空)이 색(色)이요, 색이 공이니라. 모두가 공해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 답답하다 그런다면 답답한 거는 그 자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까? 시원한 거는 그 자리에서 안 나옵니까? 그러니 시원한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답답한 거는 그것도 그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답답하지 않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내던지면 될 거를 왜 그렇게 붙들고 늘어져서 걱정을 합니까.

쇠든지 금이든지 용광로에다 그대로 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에 물질적인 모두가 그거와 똑같습니다. 거기다 맡겨 놓으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바뀌져서 나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모두가 들고 나면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못 믿어서 맡기지 못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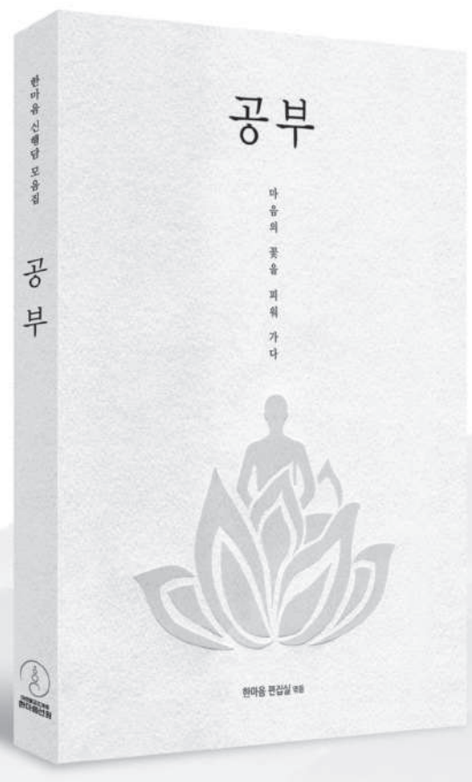
법당에 참배하는 마음

질문 요즘 개인적으로 사찰 순례를 하고 싶어서 휴일이면 전통 사찰을 인연 닿는 대로 둘러 보고 있습니다. 근데 법당에 가서 참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배를 해야 되는지요.

답변 그게 간단해요. 만 개의 사찰을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 만 개가 단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서 참배를 올릴 때, 내가 그랬죠? 이 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당에서 참배를 올릴 때 왜, '일체제불의 마음' 이라는 노래 있죠? 그와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저 형상이 내 형상이요, 저 마음이 내 마음이요, 저 생명이 내 생명이니 둘 아니게 '주인공!' 하면 전체가 모두 하나로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저 어디를 가셔서 참배를 올리든지, '주인공!' 하면 그냥 그 부처와 나, 일체가 다 하나가 돼 버리니까요. 주인공에 감사히 생각하고 하면 그대로 그 부처님 마음도 거기에 함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죠, 하하하.

좋은 인연들을 맺으세요.
악한 인연을 맺지 말고 좋은 인연과 선덕을 쌓아서
바로 선의 씨로써 이 세상을 두루 한다면
내가 고달플 때 모두 같이해 주고 같이 들어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마하몰 www.mahamall.co.kr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현불 논단

象罔은 어디있는가

윤재웅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학장



곤륜산서 구슬을 잃어버린 황제
뛰어난 離珠 등 찾게 하나 실패
멍청한 象罔 시키니 구슬 찾아와
세속가치 멀어진 人, 진리 이르러

신구 권력 갈등으로 세상 시끄러
대책으로 리주, 끽후들만 내세워
국민들 마음속 망상을 찾아보길

〈장자(莊子)〉 '천지(天地)' 편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까 한다. 황제가 곤륜산에 올랐다가 귀한 구슬을 잃어버렸다. 아는 것이 많은 지(知)로 하여금 찾게 했으나 찾지 못했다. 눈이 밝은 리주(離珠)를 시켜도 찾지 못했고 말솜씨 좋은 끽후(喫詬)를 보냈으나 실패했다. 그래서 멍청한 상망(象罔)을 시켰더니 상망이 귀한 구슬을 찾았다.

여기에 나오는 귀한 구슬(玄珠)은 도(道)를 비유한 말이다. 참된 진리는 세속에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라도 찾기 어려우며, 오히려 세속적 가치에서 멀어진 사람이 진리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멍청한 상망' 은 '망상(罔象)' 으로도 불리는데 실제로 멍청한 게 아니라 유용하지 않은 듯 보이는 무용의 지혜를 일컫는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금강경〉 해설에도 곧잘 인용된다.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라고 하는 모습이 실제로 있다면 여래는 얻은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의 실재 모습이 본래 없기 때문에 여래는 얻은 복덕이 많다고 말한 것이다." -제19 법계통화분(법계를 다 교화함)

〈금강경오가해〉 속 야부도천의 '송(頌)' 이라는 양식에는 "망상(罔象)은 다만 무심(無心)으로 인해서 얻었으며 리누(离婁, 리주와 같은 인물)는 유심(有心)했기에 친한 이를 잃었도다"고 돼 있다. 〈장자〉 '천지' 편의 복잡한 캐릭터들을 정리하여 무심과 유심으로 대비시킨 것이다. 이는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상(相)을 여읨' 과 '여의지 않음' 의 논법을 따른 것이다.

복을 짓되 복의 성품이 공(空)함을 아는 게 중요하고, 성품이 공(空)함을 꿰뚫어 안다고 하더라도 복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맥락 속에 있는 이야기이다.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실천만 하고 알지 못해도 안 된다는 뜻이니, 이게 바로 함허 득통 선사가 경책한 "대도(大道)와 더불어 서로 계합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리누' 는 독수리처럼 눈 밝은 사람으로 정평이 높은 사람이니 잃어버린 구슬을 찾을 수 있으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다. 어디 리누만 실패하는가. '지' 와 '끽후' 역시 마찬가지다. 아는 것 많은 사람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요란하기만 할 뿐 문제 해결의 적임자는 아니다. 어리숙한 망상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한다.

상에 집착하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 믿는 정보에만 빠져드는 확증편향주의자, 내편 네편 갈라서 차별하는 분리주의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마음속에서 살아간다. 문제투성이의 세상사가 언제라도 한 번 평온한 적이 있었던가. 탐진치 삼독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한 부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절대평화의 세계(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요원하다.

나라가 어수선하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신구 정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잦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선거를 통해 국민이 심판을 했는데 알아서(知)들 눈치껏 하지(行) 못한다. 정도가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 여당과 야당이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하는데 허구한 날 싸우기만 한다. 대책을 낸다는 것이 지와 리주만 선발하고 끽후들만 설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망상(罔象)은 어디 있는가. 말없이 걱정하는 국민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역사의 신(神)과,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라는 지혜의 신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중도(中道)의 신이 국민들 마음속에 함께 살고 있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농경의 여신, 자청비

새벽녘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꽃길을 따라 시다림을 다녀오니, 절에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차담이 시작되자, 누군가 '구시래' 하고 작은 떡 조각을 등 너머로 던지자 몇이 따라 합니다. 그 유래와 의미를 물으니, 모르지만 옛 어른들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는 제주의 목축 농경시대에 옥황상제로부터 오곡 씨를 지상에 가져온 농경신 자청비를 기리는 것입니다. 자청비는 제주에 전승되는 서사무가 '세경본풀이' 의 주인공입니다. 세경본풀이는 큰 굿에서 연행되는 무가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승되는 '농경기원신화' 로 그 내력을 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김진국 대감과 조진국 부인이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 동관음절 부처님께 공을 들여 자식을 점지받았는데, 스스로 청해 태어났다고 해서 '자청비' 라고 했다. 같은 날 하녀도 아이를 낳았는데 '정수남' 이라 했다.

자청비는 자라면서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빨래하러 연못에 갔다가 우연히 옥황상제의 아들 문도령을 보게 되었다. 첫눈에 반한 자청비와 문도령은 함께 글공부하며 사랑을 나누고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다. 문도령은 다시 돌아오겠다며 복숭아씨를 남기고 하늘로 떠났다. 자청비는 긴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다가 문도령을 찾아 나섰는데, 함께 떠난 정수남이 겁탈하려고 하여 죽이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와 죽인 이유를 말했지만, 오히려 나무라기만 했다. 어쩔 수 없이 자청비는 서천 꽃밭에서 생명꽃을 꺾어 와 죽은 정수남을 살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청비의 재주가 무섭다며 다시 내쫓았다.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는 비구니가 되어 떠돌다가 청태산 마고할미의 수양딸이 되었다. 할미의 도움으로 문도령에게 편지를 보내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자청비의 장난으로 오해를 한 문도령은 하늘로 돌아가 버렸다. 자청비가 직접 문도령을 만나기 위해 하늘 문곡성을 찾아 나섰다. 자청비는 하늘나라로 올라가 문도령을 만났고, 옥황상제의 시험을 통과하여 결혼 승낙도 받아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 난리가 나서 반란군이 문도령을 죽였다. 자청비는 서천 꽃밭에서 멸망꽃과 생명꽃을 얻어 와서 반란군을 무찌르고, 문도령도 살려냈다. 큰 공을 세운 자청비에게 옥황상제가 하늘나라 영토를 주겠다고 했으나, 자청비는 이를 거절하며 "하늘의 오곡 종자 씨앗을 인간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고 했다. 씨앗을 받아 내려와 보니 하나가 부족하여 다시 올라가 얻어왔는데 메밀 씨앗이다. 그래서 한 달 늦게 메밀 씨앗을 뿌렸는데도 수확은 다른 작물과 함께 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문도령은 지상으로 내려와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이 되어 농사를 보살폈고, 정수남은 하세경이 되어 말과 소 같은 동물을 돌보게 되었다.

자청비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늘의 난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서천꽃밭에 핀 '환생' , '멸망' , '생명' 의 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천꽃밭은 살아있는 사람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는 서방정토의 아미타불의 화현으로 관음 · 세지보살께서 사바세계로 오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청비는 생명의 씨앗을 갖고 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화현하여 고난의 삶으로 오는 보살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삶 끝에 죽음을 맞고 죽음 너머로 새 생명이 피어나는 삶의 실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주 선래왓 주지〉

社 說

인재불사에 불교 미래 달렸다

동국대가 이른바 '등록금 걱정없는 동국대' 만들기에 나섰다. 재학생들이 학비 걱정없이 꿈을 키우는걸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역사찰이 지역인재를 지원하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 학업성적 외에 품성과 지도력 등을 다각도로 심사해 선발하는 '동국건학장학' , 동문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내리사랑장학' 등이 그것이다.

우리 사회를 진정한 불국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훌륭한 스님들의 높은 법력도 필요하지만 불법(佛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토대로 한 정치가, 기업가, 교육자, 과학자, 예술가들이 양성되어야 한다. 이른바 불자인재들이 우리 사회를 선도할 때 진정한 불국토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불교의 미래는 어떻게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 낼 것이냐에 달렸다.

동국대에서 전폭적인 장학제도로 인재불사에 나서는 것을 계기로 불교 각계에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불사가 확산되길 바란다. 이를 계기로 동문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으면 한다.

여기에 불교계에서 종합교육이 이뤄지는 대학뿐만이 아니라 성장기 가치관 확립과 진로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초중고교 설립 및 운영, 다양한 교육기회 지원 등이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 〈선어록〉에서는 "사람을 보고 집을 보는 것이지 집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다"는 격언이 있다. 불교도 마찬가지다. 사찰 전각 불사가 아무리 많이 진행되어도 정작 그 안을 채울 사람이 없다면 무의미하다. 사찰불사보다 인재불사가 더욱 필요한 때이다.

잊혀진 불교활동가 조명에 기대

근대화 과정에서 잊혀져 역사의 지층 속에 묻혀버렸던 불교 인물 선양 사업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도로 추진된다. 종단협은 독립, 문화예술 등 5개 분야에서 한국의 근대화를 이끈 총 12명의 불교인을 선정하고 이들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근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불교인물이 주요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불자들 조차 만해 스님과 용성 스님 외에 근대 불교 활동가를 잘 알지 못했다. 특히 근대 스님들 중 문손이 남아있는 경우 선양사업이 있었지만, 없는 스님들이나 재가자의 경우 업적을 드러낼 기회조차 없었다. 격변기 속에 사회와 불교발전에 노력한 이들에 대한 선양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특히 젊은 이들에게 이러한 불교활동가를 알릴 필요성이 높았다.

종단협은 12월까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카드뉴스, 포스터를 제작해 회원 종단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료를 받은 각 종단들이 홍보에 나선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근대 불교 활동가의 활동 내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외국인들도 불교인의 업적을 알 수 있도록 영문으로 인물 소개책자도 제작할 방침이다.

사실 이번에 알려지는 12명 뿐만이 아니라 수행과 전법으로 한국불교 중흥에 힘썼던 여러 근대 선지식과 활동가들의 삶과 사상을 선양하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 대한 조명은 한국불교를 일군 이들의 원력에 보답하고 불교중흥을 담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때에 종단협이 근대 불교인물 조명에 나서니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아무쪼록 이번 사업이 여러 근대 불자들의 삶과 사상, 업적을 기리고 잇는 다양한 선양사업으로 알차게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대표이사 : 혜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 도량장엄등
-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 연등자동승강장치
- 원불전, 인등, 위패
-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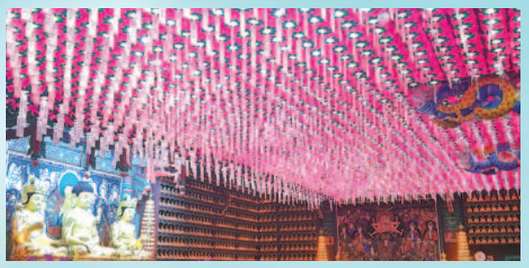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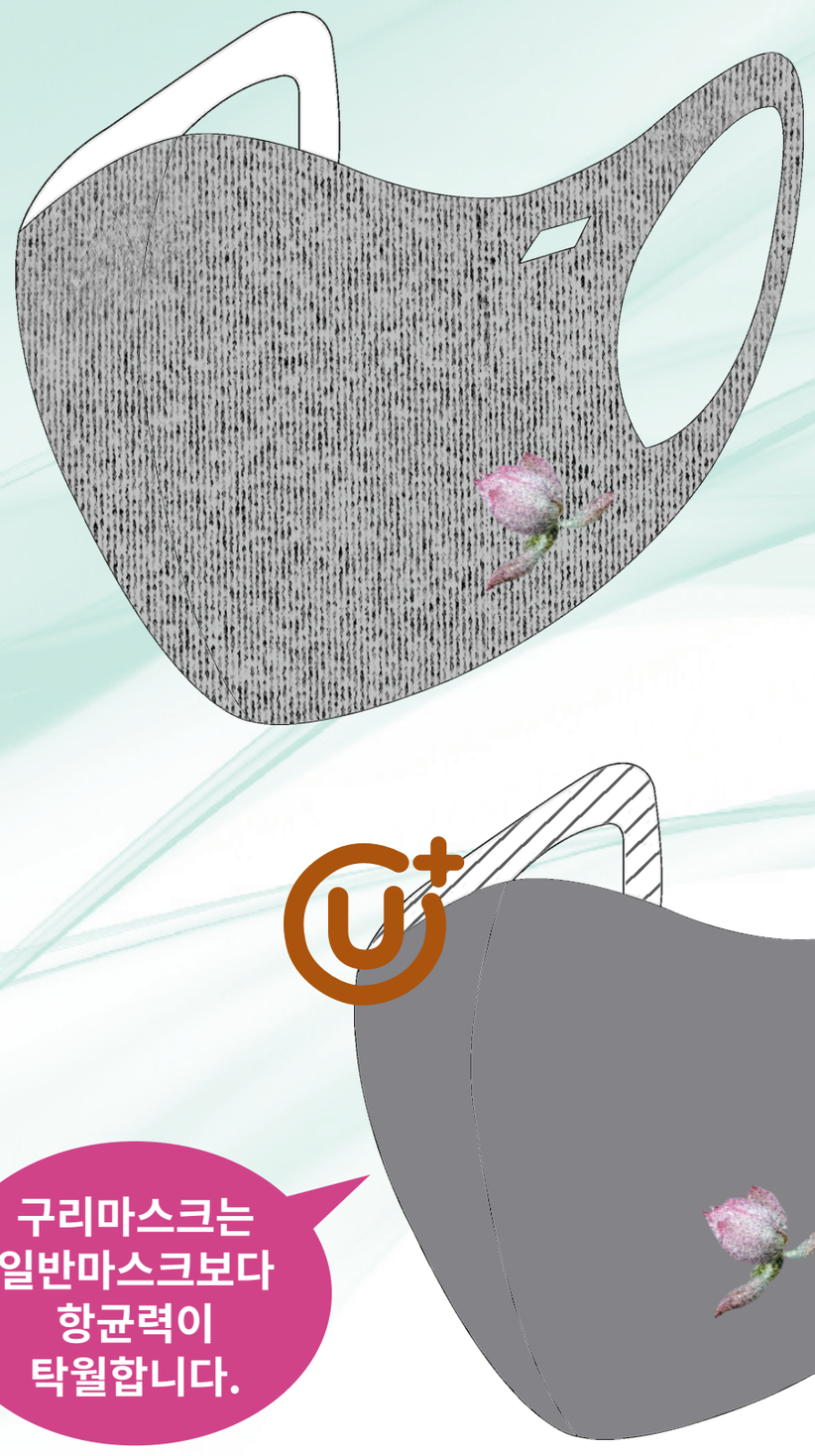
위 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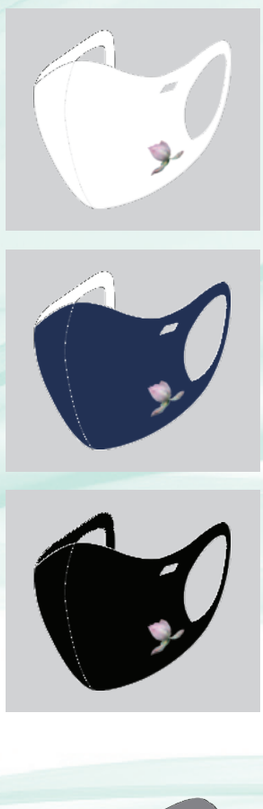


또 다시 닥친 코로나의 위기와 공포!!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 · 구리마스크

ANTI-BACTERIAL · DEODORIZATION · 항균&소취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구리마스크는 일반마스크보다 항균력이 탁월합니다.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여름용 쿨 마스크는 주문제작상품으로 제작기간은 5~7일 소요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